•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9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9월 24일(음력 8월 25일) 수요일(주간)



"모든것엔 끝이 있어요"
17 선자삭-관후 스님



"조금 부족한 것이 편해요"
9 도반의 향기-연기자 김혜옥



"참사람 결사 정신 잇겠습니다"
6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시쓰는 자체가 禪"
19 대담-이승훈 시인

수행자에게 '황혼'은 없다

조계종 종회특위,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마련

"문중 없고 사제 없고, 돈 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이다."

노후보장제도가 미비한 승가에 노스님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랍 65세이상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및 포교활동 지원을 위한 종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 선문 스님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칭) '승려노후법지법 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실무소위는 10월 초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종법안을 결정한 뒤, 총무원 집행부에 종법안을 보내 예산부분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10월 말 승려노후복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11월 종회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승려노후복지법', 무엇이 담기나**=제정안에는 '승려복지재단'을 설립해 스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 지급, 보건 및 의료 보장, 주거 및 수행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관리 · 운용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종법안에 따르면, 종단과 교구본말사는 노스님들의 보건과 복리증진을 위해 종책을 마련하고 승려노후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 종단은 2년마다 승려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 또는 사찰에 대해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승려복지재단은 승려의 노후 건강을 보장하고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도록 수행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스님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료비, 요양비, 간병인 등 지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신 모든 스님들은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비용은 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 **복지재원 확보가 관건**="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승려 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조계종 종헌(제116조)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역시, 재원 마련이 승려 노후복지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 종단적인 공감을 얻어 승려복지기금을 종단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종법안은 총무원 및 교구 본말사 출연금, 재단 잉여금, 기부금 및 희사금, 기금 운영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승려복지기금'의 재원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소위 박재현 위원(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이 교구와 함께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과 같이 종단차원에서 사후재산 기증, 월정액 보시, 보험금의 일정액 보시 등 '승보공양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중 · 돈 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7년 전 조계종 소속 모 사찰의 젊은 스님이 거동이 불편한 91세의 노스님을 서울시내 한 동사무소에 맡기고 사라진 사건은 스님 노후 대책의 시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무료양로원에는 오갈 데 없는 노스님들이 일반 노인들 틈에 끼어 서글프게 생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평생을 수행에 전념하며 꿋꿋이 한 길을 걸어왔지만, 말년에는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님들이 의외로 많다. 건강이라도 좋으면 인연따라 소위 '뒷방'이라도 거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몸이 아파도 선뜻 아프다는 말조차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스님 노후복지의 현주소다.

2007년도 기준, 조계종 승려는 1만 3576명으로 65세 이상 승려는 남승려 736명, 여승려 881명, 총 1617명으로 전체 승려의 11.9%를 차지한다. 문제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스님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종법 제정을 통한 승려노후복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 **승려노후대책 마련 못하면 심각**="승려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종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님 개개인이 수행 · 포교에 전념하기 보다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설 사암을 지어 개인 소유화하는 경향이 확대되어 삼보정재가 수행과 교육 · 포교 · 사회사업 등 종단 목적사업으로 회향되지 못하고 개인 노후대책 자금으로 유출되고 있다."

스님 노후복지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한 이 글을 지난 2001년, 조계종 중앙종회에 제출된 <승려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한 대목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님 전용병원의 설립, 노스님 수행원 건립, 의료 보장 및 노후 연금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삼보정재의 사유화와 종단 분규 등 수행풍토의 악화를 막을 방안이 없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문 스님은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이 11월 종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내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종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북한 동포 굶고 있어요 4개 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인 모임인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9월 18일 서울 명동에서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알리고 이를 돕기 위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현재 서명자가 9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탤런트 한지민, 김여진, 작가 노희경씨가 참가해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의 비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재완 기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문화부, 12인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도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10월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전화(02-720-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이 사례가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해 처리하게 할 예정이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법조계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다. **김성우 기자**

제1회 이상시문학상 시상식 안내

수상자 이승훈 시인(한양대 명예교수) **장소**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지하2층 **일시** 2008년 9월 23일 6시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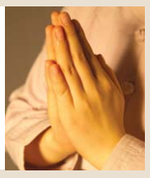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1차 법보시 청와대 주요 부서에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신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실장 제1 · 2부속실,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경제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사회정책수석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홍보기획관실에 본지 698호부터 1차로 발송합니다. 그 다음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부서에 현대불교를 보낼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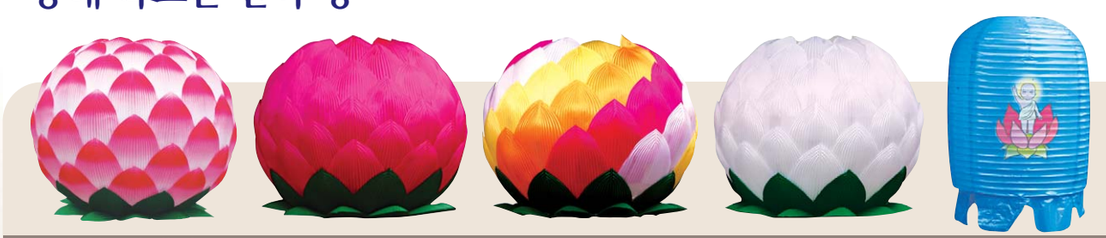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北식량난 외면하는 정부와 언론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 세계식량계획(WFP)과 JTS 등 구호단체들은 연일 북한긴급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 원불교 성직자 268명은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용주의'와 '상호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북 식량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9월 3일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김정일 위원장 건강악화 등 北체제 이상 징후로 정부 지원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 느낌이다.

식량지원에 앞장섰던 국제사회도 북한인권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과 EU는 9월 23일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 인권문제와 식량지원을 다룰 예정이다. 일부 단체는 북한인권문제 개선과 식량지원을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이상과 정부대응방안을 보도할 뿐, 정작 북한 체제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 <주간조선> 등은 심지어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 다수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식량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조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또한 인권문제 개선이 없는 한 식량지원을 하지 말하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북한의 인권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살 권리 아닐까? 이념과 생명은 별개다. 생명만큼 소중한 인권은 없다. 이념과 인권문제로 식량지원이 표류하는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통일 후 민족화합을 위해서라도 식량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한다. 어떤 이들은 "경제난으로 먹고살기 힘든 시국에 왜 북한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나?"고 반문한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운 이를 도와야 한다.

<증일아함경> '선취품'에 부처님 "출가자처럼 전문적인 수행이 어렵다면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다"고 설했다.

종교편향과 경제난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의 모습이 그립다. 정부 당국자들과 언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생명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목조문화재 화재경보 미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 조사

숭례문 소실 후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목조문화재 70%는 여전히 화재경보 등 기초 방재시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 사진)은 9월 17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을 분석해 "국보 · 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조차 없다"고 발표했다.



화재경보조차 갖추지 못한 목조문화재에는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290호 통도사 금강계단,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등 국보급 문화재가 9건이나 해당됐다. 특히 보물 제1307호 능가사 대웅전 등은 소화전 설비가 미비했고, 보물 제827호 김제 금산사 대장전 등은 소화기만 1개 비치됐을 뿐 화재경보와 CCTV도 없어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현 의원은 "국보나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 결과 2007년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예산 30억중 10억만 집행한 후, 지자체에서 신청한 6건의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졌다"면서, "배정된 예산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문화재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지자체가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6건 중 5건이 국보 · 보물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행보도 눈에 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9월 10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도내 목조문화재 153곳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3년간 65억원을 투입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목조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125곳, 전통사찰 28곳이다. 각 목조문화재마다 옥외소화전 20기, 화재감지기 470개, 폐쇄회로TV 118대가 설치된다.

◇화재경보 없는 문화재 87건 중 국보 9건

국보 제15호 봉정사극락전/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국보제50호 도갑사해탈문/ 국보 제51호객사문/ 국보 제304호 진남관/ 국보 제305호 세병관/ 국보 제290호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 소화전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문화재

보물 제177호 서울 사직단정문/ 보물 제1307호 능가사대웅전/ 보물 제475호 안동소호헌/ 보물 제553호 예안이씨충효당/ 보물 제521호 숭렬당/ 보물 제836호 대적사극락전/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

◇ 소화기가 1개만 설치된 문화재

보물 제827호 금산사대장전/ 보물 제832호 성혈사나한전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백담사 인근 '네팔 문화촌' 조성

설악산 불교문화마을 조성으로 불심융성 기대



9월 17일 '네팔문화촌 투자 · 양해각서'를 체결한 박삼래 인제군수(오른쪽)와 커멀 프라사드 주한네팔대사.

강원도 인제군은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네팔대사관에서 '네팔문화촌 투자 ·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불교문화마을 조성에 적극 나선다. 조인식에는 박삼래 인제군수와 커멀 프라사드 코이랄라 주한네팔대사, 한의동 군의장, 용대리 이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제군은 백담사가 위치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백담교~백담주차장 777m 구간에 네팔문화촌을 조성할 예정으로 네팔문화촌에는 석가모니 탄생사원 등 다양한 불교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인제군은 "봉정암, 백담사 등 기존사찰들과 연계해 국내 최대 불교 순례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정치권 불심잡기 경쟁

여야 앞다퉈 불자회 결성…한나라당 부산 불심잡기 총력

추석 연휴를 전후해 불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예년과 달리 조계종 총무원장 뿐 아니라 부장스님들에게도 추석선물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故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의 저서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등을 읽었고, 불교계 정서를 고려해 경찰 방문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기간 시 · 도당에 종교관련 특별지침을 내렸던 한나라당은 9월 17일 강석호, 이계진, 조문환, 주호영 등 당내 불자 의원 17명이 모여 '한나라당 불자회'를 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해봉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불교발전과 불교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자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도 최문순 의원을 회장으로 박주선, 박선숙, 추미애, 최재성 의원 등 10여명이 모여 9월 23일 당내 불자의원 모임 '연등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연등회'는 9월 말경 조계사에서 창립법회 봉행 후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추석이후 부산지역 불심잡기에 집중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은 9월 26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을 비롯한 부산지역 불교계 인사 20여명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허태열 최고위원과 안경률 사무총장, 김정훈 시당위원장, 허원제, 현기환, 박민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9월 8일 김정훈 시당위원장은 안성구 부산시당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범어사와 부산불교연합회 등을 방문해 불교계 여론을 경청했다.

한편 서울 봉은사와 화계사, 불광사 등 일부 사찰은 청와대 추석선물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해외공관 기도회 등 종교편향 중지하라"

미주승가회, 국제단체와 연대 · 국제기구 탄원등 대응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 포교하는 스님들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미주승가회'(공동회장 원영 · 현철 · 도현)는 9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작금 본국에서 이명박 정권하에 일부 공직자에 의해 일어난 '헌법파괴,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주승가회는 "계속된 종교편향 행위는 세계 역사속에서 많은 불행한 전쟁을 야기시켜 왔고 해외 동포간에도 종교로 인한 분열을 가져온다"면서, "미주한인 동포사회의 공관이나 한인회 주최 행사 등에서 관행처럼 행하여온 특정종교만의 기도 등 종교편향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주승가회는 "종교편향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주승가회는 종교차별법에 호소하고 세계불교도우의회 등 국제 정의구현 단체와 연대, UN 등 국제기구에 탄원하는 등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 창립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이 설립된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식을 갖는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법인 이사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창립을 선포하고, 법인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정각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김성우 기자

포교원, 청소년지도자 연수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포교원은 9월 27일~28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1회 불교청소년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불교청소년 지도사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제 1회 선운문화제 | 1ST SEONUN CULTURAL FESTIVAL

초대의 글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해 상사화라고도 불리우는 꽃무릇이
선운산 골짜기마다 피어납니다.
선운사에서는 가을의 결실에 감사드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제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선운문화제는 선운사의 창건 역사와 함께하는
검단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1500년이 넘는
은혜 갚는 소금이야기와 희망과 상생을 노래하는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

주요행사
◈ 보은염 이운식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는 소금이야기)
9월 27일 오후 1시
◈ 영산대재
9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대웅전 앞 특설무대
◈ 전통다례시연 (규방다례)
9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특설무대
◈ 학술세미나 (선운사의 역사와 인물)
9월 28일 오후 2시 ▷장소 : 선운사 세미나실
◈ 박물관 특별전시 (만다라전)
9월 23일부터 ▷장소 : 선운사 박물관
◈ 고창 특산물 직거래 장터 9월 27일 ~ 28일
◈ 산사음악회
9월 27일 오후 7 ~ 8시 30분 ▷장소 : 특설무대


가르침을 노래하는 범능스님

상카의 후손 시사이(SISAY)

타악전문 연주단 얼 쑤

신세대 퓨전국악그룹 헤이야

노래하는 시인 정태춘 · 박은옥

장소_고창 선운산 선운사 주최_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후원_ 고창군 세방 / 문의전화 063)561-1422 홈페이지 seonunsa.org

조선왕실의궤 반환요구 불교계 일본정부와 소송

일본 강점기 강탈된 조선왕실의궤(儀軌) 반환을 놓고 불교계와 일본 정부가 법정에서 정식 소송으로 맞붙게 됐다고 경향신문이 9월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가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며 일본 정부와 왕실을 상대로 (2007년 5월) 낸 민사 조정신청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과정에서 일본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건 성격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궤 반환 여부는 본격적인 법정 소송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불교계가 승소해도 일본 측이 순순히 의궤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는 법조계 의견도 전했다. 신문은 법원에서 반환 판결이 내려져도 판결 내용을 근거로 일본 법원에 집행 청구를 허가받아야 한다며 의궤 반환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9월 4일 일본 수상관저를 찾아 '조선왕실의궤 반환요청서'를 접수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공동의장 김원웅 前 국회의원)는 일본에 새 내각 구성되면 다시 일본에 건너가 신임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의궤 반환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민영 미디어렙 안돼"

4대종교 라디오 방송사 "종교탄압" 반대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4대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이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신설 계획을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불교방송과 CBS,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사장단은 9월 16일, "정부는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를 비판했다.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종교방송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정부가 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 커녕 앞장서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광고 취약매체를 위한 코바코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며, "정부가 방송 독과점을 부추길 방송광고시장의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종교방송 사장단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가운데,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국회에서 "종교방송이 지금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종교방송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유 장관과 정 의원 발언에 4대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은 '종교방송사 폄훼 발언'이라며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 CBS 이정식 사장, 평화방송 오지영 사장은 9월 19일 긴급회동을 갖고,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회동에서 사장단은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저지를 위해 각 종교별로 사찰과 교회, 교당, 성당 등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와 유인촌 장관 · 정병국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서명운동과 반대시위 등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영미디어렙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 후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해 코바코의 기능을 대신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다.

불교방송 경영기획실 박원식 실장이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광고수입의 90%가 감소돼 방송사 존폐 자체가 위기를 맞는다"고 말할 정도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광고매출에 큰 변화가 있게 돼 종교방송을 비롯해 지역방송사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반대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무문관'의 도량 천축사 '가을 산신재'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산신재가 열리는 도봉산 천축사 전경.

도봉산 천축사(주지 유방)의 가을은 기도로 깊어진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봉행하는 천축사 산신대재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진다. 천축사 산신대재는 30년 전부터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 온 기도다. 첫날인 7일 입재법회에서는 입재불공과 함께 원로 스님 설법이 진행되고 살풀이춤 공연도 펼쳐진다.

국내 5대 명산의 하나인 도봉산, 그 가운데 3대사찰 중의 하나인 천축사는 매월 음력 16일부터 18일까지 산신기도를 정례화 하고 있다. 이번 산신대재는 그간의 전통에 따라 매일 네 차례 기도를 올리는 '4분정근' 형식으로 진행된다.

천축사는 무문관(無門關)으로 유명한 도량이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6년간의 정진을 회향한 관응 제선 스님 등의 무문관 정진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자랑이기도 하다. 주지 유방 스님은 "무문관의 도량에서 봉행되는 산신대재는 불자들이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정진의 기회"라며 "기도를 통해 나라의 안녕과 개인의 소원도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 2차순례 고불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9월 19일과 20일 도선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부처님 진신 모시고 떠나는 108산사순례 및 영가천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108산사순례 기도회 창립 2주년 기념과 2차 순례 고불의 의미도 함께 담긴 이번 법회에는 기도회원 50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법회에 앞서 혜자 스님과 기도회원들이 네팔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설법단으로 이운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세계에서 제일 좋은 茶 나와라!'

김해시 국제명차품평한국대회 27일 개최

세계 명차를 선별하는 국제명차품평대회가 9월 27 · 28일 양일간 가야차문화제와 공동으로 국립 김해박물관과 수로왕릉에서 개최된다. 지금까지 대중차로 인식돼 온 한국의 차를 명차 문화 대열로 승격하고 보급하는 행사다. 더욱이 부탄 · 이탈리아 · 캐나다와 같은 이색적인 차 문화 국가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생산된 차 중 1차 예선을 거친 세계 차 570여종을 대상으로 최종결선에 오른 230여종 가운데 최고의 '국제명차'를 선별한다.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우려진 마른 차 잎의 색과 잎의 형태 · 맛 · 향 등을 감별해 평점 90점 이상 획득해야만 금상을 수여한다.

한국 차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자 · 소비자 · 유통 구조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게 될 이번 국제명차품평대회는 중국을 근본으로 한 차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할 전망이다.

김해시는 장군차의 명성을 되살리는 일환으로 9월 28일 수로왕릉에서 헌다례를 봉행하며 이형석 박사는 '한국 차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가연숙 기자**

9월 11일 국토수호 대장정 출정기사의 마성 · 마조 · 지원 스님을 국민화합범불교 종단협의회 지성 · 마조 · 지혼 스님으로 정정합니다.

경로위안문화예술제 개최 청룡사 복지법인 '사홍서원'

대구 청룡사(주지 보성) 사회복지법인 '사홍서원'은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대구시민회관대강당에서 제5회 경로위안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제1부 동요 및 가요 · 민요 공연에 이어 제2부 어르신 장기자랑, 제3부 평양민족예술단 초청공연 등이 진행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신정아사건 관련 美예일대 사과…東大 거부

동국대와 소송중인 예일대가 신정아씨 박사학위 취득사실에 대해 사과문 게재, 기자회견 등 공식사과 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9월 17일 동국대가 밝혔다.

동국대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8월 28일 정식재판에 앞서 미국 법원에서 가진 제1차 화의조정(Settlement)에서 예일대측은 동국대가 소송을 취하하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들여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총장은 "예일대가 동국대에 세계적인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며, "동국대는 재판에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예일대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예일대는 2005년 9월 동국대에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취득확인 문서를 보내고도 이 문서가 가짜라 주장했다가 결국 진본임을 인정했다. 이에 동국대는 예일대를 상대로 최소 5000만달러(약 6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동섭 기자



음악 공양에 '만산 홍엽'

가을맞아 전국사찰 산사음악회 풍성

한반도 전국 사찰은 가을맞이 축제 라인업을 완료했다.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노란빛 은행 붉은빛 단풍 너울진 물결 따라 가을 산사로 가보자. 사찰 창건을 기념하는 개산대재(開山大齋)와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 산사음악회가 심신을 재충전시켜 줄 것이다. 올 해는 특히 사찰의 역사와 지역문화를 접목시킨 특색 있는 축제들이 돋보인다. 청명한 가을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불·법·승 삼보와 어우러진 불법의 향연장 22곳을 소개한다.

조계사(주지 세민)는 창건 기념 주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갖는다. 10월1일 개산대재를 봉행한데 이어 저녁7시부터 산사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10월4일에는 3000배 철야용맹정진 기도가 봉행된다. (02)732-2183

서대문 백련사(주지 수봉)는 구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9월 25일 개최한다. 서울시 무형문화재33호 최형근·최승운의 앙상블로 불교의식을 시연하는데 이어 인기 가수 김현정·현철·웅산 등이 공연을 펼친다. (02)302-0288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개산대제를 봉행한다. 29일에는 독거노인 초청 '나눔과 평화의 비빔밥' 공양 행사를, 10월1일 저녁7시에는 음악회가 열린다. (02)511-6070

양평 용문사(주지 호산)는 9월 27일 천년의 빛과 노래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연다. 용문사 특설무대에서 소리꾼 장사익의 찔레꽃이 국악의 풍류와 어울린다. 국악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심진 스님과 이동해가 특별 출연한다. (031)773-3797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월정사·상원사 일대에서 연다. 10일 진신사리 이운법회를 시작해 오대산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와 청소년 어울 마당이 열린다. (033)332-6661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목조건축물인 대웅전(국보 제49호) 건립 700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를 연다.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독경법회로 백제 혜현 법사가 <법화경>을 설한 수덕사에 천여 명의 스님이 운집할 예정이다. (041)337-6565


지난해 산사음악회를 겸해 열린 미황사 괘불재 모습.

울산 한마음선원은 소년 소년 가장 돕기 일환으로 9월 27일 산사음악회를 연다. 퓨전 가야금 명창과 클래식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만난다. 선원 합창단이 불국토를 노래하고 가수 김종환·전영록 등이 출연해 울산시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052)295-2335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개산 1330주년을 맞아 '금어문화축제'를 연다. 9월 28일부터 10월5일까지 '하늘물고기,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다'는 표어로 범어사 일대와 금정체육공원 등지서 진행된다. 금어등불 행렬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가수 윤도현·안치환이 개막 및 폐막 무대를 장식한다. (051)508-3122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100일 백고좌 대법회 회향을 기념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9월 29일 법왕사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팝페라 가수 손영희와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등이 공연한다. (053)766-3747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20년만의 중창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괘불재와 더불어 작은 음악회를 연다. 10월 18일 오후 1시 미황사 괘불탱화(보물1342호·높이 12m)를 내걸고 괘불재를 진행하며 만등공양이 어우러진 밤 6시부터 남도 판소리 등 지역 소리꾼들의 노래와 정태춘 박은옥의 특별 출연으로 음악회가 펼쳐진다. (061)533-3521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산사음악회 일정]

사 찰 명	일 시	연 락 처
통영 미래사	9월 27일	(055)645-5324
영천 은해사	9월 28일	(054)335-3318
고창 선운사	9월 27·28일	(063)561-1422
구미 도리사	10월 2일	(054)474-3737
양산 통도사	10월 3~9일	(055)382-7182
서산 부석사	10월 4일	(041)662-3824
화성 용주사	10월 4~5일	(031)234-0040
대구 동화사	10월 5일	(053)982-0101
부천 석왕사	10월 6일	(032)663-7771
광주 원각사	10월 11일	(062)223-3168
김제 금산사	10월 18일	(063)548-4441
원주 구룡사	10월 18~19일	(033)732-4800

중국 최초 불교교향악 '신주화악' 공연된다

10월 18·19일 고양 아람음악당서

중국 불교역사상 첫 교향악인 '신주화악'이 10월 18·19일(오후 3시)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아람음악당에서 공연된다.

태고종은 최근 "한중 양국은 불교음악 교류를 통해 우수한 불교문화를 알리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주화악'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먼저 중국의 불교교향악인 '신주화악을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2009년 중국에서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시연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종교사무국 불교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태고종이 주관해 공연하는 신주화악은 중국 불교음악과 서양교향악의 음악적 특성을 융합한 동서양의 문명과 지혜를 결합시킨 중국 불교역사상 첫 교향악. 불교악기, 서양악기, 중국민족 악기의 공통점을 융합하면서도 각자 악기의 개성미를 살려냈으며 이를 교향악에 접목시킨 독특한 예술적 창조라고 평가받고 있다. 신주화악 공연에 중화권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높은 음악적 평가를 내린바 있다. (02)739-3450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1〉 기산 대종사

東大 이사장 시절에도 도서관 이용… '일의일발'의 삶

기산 스님은 송광사 출신이시다. 송광면 장안리에서 태어나 14세에 인봉 스님께 출가, 화엄사 진진응 스님께 이력을 보았다. 1919년부터 현 동대 전신인 중앙학림을 졸업하고, 지방학림 교사와 강사, 주지를 거쳐 1940년 조선불교총본산 태고사(현 조계사) 대웅전 건축 상임위원으로 부임 종무원 교육부장을 역임하였다.

1961년 8월 신촌 봉원사 이만봉(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스님 댁에서 처음 뵈었을 때는 광주 포교당 포교사, 전남종무원장, 정광학교 교장, 총무원 원장을 거쳐 동국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셨다.

낙산사에서 춘곡 큰스님 편지를 받고 서울에 가니 아직 학교에서 퇴근하지 아니하였다. 만봉 스님께서 "여섯 시까지 기다려 보라" 하여 기다리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지프차 한 대가 도착하였다.

"어디서 왔느냐?"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들어가자."

방으로 들어가니 밥상이 두 개 놓여져 있었다.

"이리 가져오너라. 같이 먹자."

상하의 구별이 엄격한 절간에서 큰스님과 마주 앉아 공양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여 사양하였으나, 극구 가져오라 하여 친아버지 모시고 밥 먹는 식으로 다정하게 밥을 먹다보니,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다. "저녁에 자고 가거라" 하고 스님 자리 옆에다 자리 하나를 더 깔고 물었다.

"어찌하여 중이 되었느냐?"

"중이 된 줄도 모르고 중이 되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였지?"

"송광사 추강 학담 스님께 사미과를 배우고, 취봉 스님께 사미계를 받은 뒤 <수심결>을 익혔고, 추강 스님을 따라 월정사로 갔으나 종단분규 때문에 수도원이 폐지되어 상원사 선방에서 한 철을 났습니다."

"이력도 마치지 못하고 선방에 먼저 들어가 스승을 잘못 만나면 증상만인(增上慢人)이 되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능엄경>에 홀연연기(忽然緣起)라는 말이 있어 몇 군데 물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긴다 하였는데, 왜 홀연연기라는 말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허허. 네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나는 내 나이 50이 다 되어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고 벌떡 일어나 손목을 잡으시면서, "너는 학교에 가야 되겠다"하시었다.

"<수심결>을 보니 도만 통하면 무불통지(無不通知)라 하였는데, 학교는 다녀서 무엇합니까?"

"지금은 선지식을 찾아 자기 점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학교에 가서 나의 공부를 점검하고 불·조사들이 어떻게 포교하였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스님과 나는 하루 저녁사이에 스승과 제자가 되고, 이듬해 동국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틈만 있으면 사서실 일을 보게 되었다. 동국대학교 총장 백성욱 박사님께서는 출근시간에 맞추어 꼭꼭 나오셔서 문안을 드리셨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때는 이사장실에 직접 납시여 인사를 드렸다.

"총장님께서 이러하시면 진짜 이사장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학교는 이사장님이 주인입니다. <금강경> 도인을 잘못 모시면 금강신장에게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고 깍듯이 대접하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모셔 왔지만 기산 스님처럼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스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로 스님은 77세를 일기로 성북동 청룡암에서 입적하실 때까지 가진 것이라고는 가사, 장삼, 발우와 평생 동안 쓰신 원고밖에 없었다. 책도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셨기 때문이다. 돌아가시기 5일전에 가니,

"죽고 난 뒤에 주면 죽은 사람 물건이라 쓰지 않을 것이니 이것 받아라" 하고 친히 덮으시던 이불 한 채를 주셨다. 당시는 경제가 어려워 불도 제대로 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미아리에서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할 때 이른 봄에 오셨다가 벽에 성에가 낀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당시 7천2백원 월급을 받으면 3천원은 하숙비 내고 2천원은 운전수 주고, 2천원 가지고 용돈을 쓰시는데, 그 가운데 반을 잘라 학생들 노트와 연필을 사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불교공부해 가지고도 호구지책만을 생각하는데, 너는 장가갈 돈까지 갔다가 자선사업을 하고 있으니 고맙다."

그런데 그날 학교 방문을 하고 내려가시다가 인수동 3거리에서 건립패들을 만났다. 징, 꽹과리를 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길거리에서 불공시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자가 누구 상좌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여 가서 물으니,

"동국대학교 이사장 임석진 스님 상좌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어 보니 실제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 불쌍한 건립패들을 살피며,

"나 같이 못난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호구지책을 면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나에게는 린곡, 문곡, 두성, 대천 등 상좌가 몇 사람 아니 되어 쓸쓸 하였는데, 저런 사람들이라도 있으니 내 마음이 든든 하구나."

그리고, "나쁜 짓만 하지 말고 잘 살게"하고는 내려 오시면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한다더니…" 혀를 툭툭 차셨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6기 최 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정토회가 펼치고 있는 북한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탤런트 한지민(오른쪽)씨가 동참해 시민들에게 서명을 부탁하고 있다.

현장속으로

정토회 북한돕기 100만인 서명 현장

"하나의 서명 하나의 생명"

정토회 7월 8일100만인 서명 시작…국내·외 현재 90만
대북관계 악화 속 전국돌며 '동포애' 호소, 종교계 적극동참

"북한 동포들은 지금 시간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북한 아이 한명, 한 가족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한 해의 수확을 만끽하는 민족최대 명절 추석. 한가위의 여운이 남아있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명동 한복판. 북한 돕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수많은 인파를 가른다.

목소리의 진원지는 정토회(대표 보수 법사)가 100만인 100m 현수막 서명 행사를 펼치는 곳. 연예인 한지민, 김여진, 방송작가 노희경씨가 직접 나서 서명을 부탁하자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 북한동포 돕기에 관심을 표했다.

데이트를 하기 위해 명동을 찾았다는 안경제(21) · 장인영(21) 대학생 커플은 "우연찮게 한지민씨를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왔다. 하지만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듣고 차마 그냥 갈 수 없어서 서명을 했다. 서명을 하고 나니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환하게 웃는다.

4살 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김학준(34) · 윤경희(31) 부부는 "부산에서 추석을 겸한 휴가로 서울 명동에 왔다가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북한 동포 특히,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사실에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 지방에도 이런 행사가 꾸준히 개최돼 같은 민족이 굶어 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아이와 함께 온가족이 모두 서명하는 열의를 보였다.

화창하다 못해 늦더위까지 느껴지는 초가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북녘 어느 마을에서 굶주림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동포를 위해 열심히 서명을 받는다. 이러한 열정에 힘입어 무심코 지나쳐 가던 직장인들도 하나둘씩 서명에 참여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100m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은 행사시작 45분 만에 빼곡히 서명으로 가득 찼다.

정토회가 진행 중인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100만 명 서명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서명 행사는 정토회가 주관하고,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4개 종교인 모임인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 주최해 열렸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이번 행사가 개최되기까지는 정토회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그동안 산하 구호단체인 JTS와 좋은벗들을 통해 북한동포 식량난 타개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온 정토회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직접 나서 북한 식량 지원을 호소하게 됐다.

정토회 100만인 서명운동은 7월 8일 발대식을 시작해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청주 등 국내 12개 지역과 미국과 독일 · 필리핀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 진행돼 18일 현재 90만 명 서명을 돌파한 상태다. 이에 9월 11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도 268명의 종교인 서명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 경제난 속에 굶주리는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보살도의 길이 비춰졌다. (02)587-8990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정토회 대표 보수 법사 인터뷰

"우리민족 반쪽은 굶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민족의 반쪽은 올 겨울 굶어 죽습니다."

2008년부터 정토회 대표를 맡은 보수 법사는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있고, 올 겨울 많은 아사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동포돕기에 국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보수 법사는 JTS, 좋은벗들 등 산하 구호단체뿐만 아니라, 수행공동체인 정토회가 직접 나선데 대해 "그만큼 북한 식량난이 절박하다"며 "현재 정치 · 사회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공감대가 필요하기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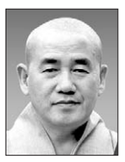
보수 법사는 이어 "북한 동포의 식량난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만 톤 긴급 식량 지원을 하고, 정부예산 1%를 사용해 장기적으로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하 JTS를 통해 5월 이후 밀가루 700톤과 중국에서 국수 500톤을 보낸 정토회는 향후 JTS활동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수 법사는 "해외 동포를 비롯한 온 국민의 자비심이 모였기에 100만명 서명을 앞두고 있다"며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한 방생이다"며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일주문



공생선원 6주년 법회서 법문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생선원 개원 6주년 기념 초청법회에서 법문한다. (02)900-2448



법왕사 백고좌 회향법문 · 수계식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은 9월 30일 오전 11시 대구 실상사에서 백고좌대법회 회향법문 및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를 주관한다. (053)766-3747



광동학원 '학교숲 운동' 시작해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동중학교에서 '학교숲 운동'을 개최한다. (031)573-9412



법흥사 10만등 점등법회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10월 17일 영월 법흥사서 10만등 점등법회 및 흥녕원 개원식을 봉행한다. (033)374-9177



상도선원 '마음수행학교' 개최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9월 18일~12월 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마음수행학교'를 연다. (02)815-3391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의식교육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원장 원명 스님은 9월 24~28일 불교전통작법 구감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한다. (062)222-4133



'행복나눔 한마음대축제'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9월 30일~10월 24일 '2008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02)466-6442



대전파라미타 간부수련회 개최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선오 스님은 9월 6~7일 천안 광덕사에서 대전파라미타 중 · 고 간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간부수련회를 실시했다.



제1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 주영운이사장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1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02)555-0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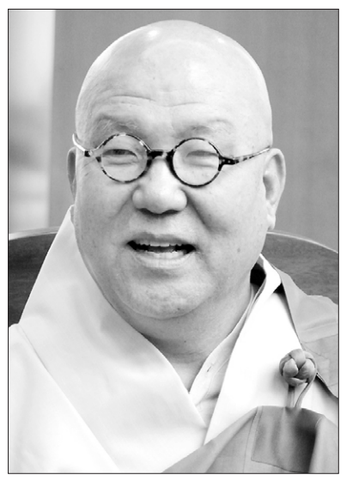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토요반

서울 한국위빠사나선원 원장 묘원 법사는 10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2연기와 위빠사나 강좌'를 개강한다. (02)512-5258

"만암·서옹 스님 연구소 건립해 참사람운동 이어"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주지 시몽 스님



"만암 · 서옹 스님 연구소 건립과 도심 속 포교로 참사람 결사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9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주지로 임명된 시몽 스님(사진)은 "근대 대중불교의 태두인 참사람 결사의 정신을 잇고, 만암 · 서옹 스님 연구소 건립으로 업적과 의의를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는 산중불교인 조선불교의 한계를 벗어나, 신라 · 고려 불교의 대중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시몽 스님은 "근대불교 100년 역사에 만암 대종사야 말로 대중의 사표(師表)이신 분이다"며 "만암 대종사의 업적이 다소 저평가됐다. 그분의 정신과 업적을 본받는 것이 백양사가 나아갈 길"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이어 "참사람 결사 활동이 서옹 스님 타계 후 지속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한 시몽 스님은 "대중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가까워져야 한다. 대중과 떨어진 근본적인 한계를 벗기 위해 사찰 운영방식이나, 주거환경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양사 본사는 수행 · 연구 중심으로, 말사와 지역 포교당은 대중 포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시몽 스님은 주지직무대행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2007년 제주 관음사 사태에 대해 "사찰분규로 신주지 · 구주지간의 불협화음과 충돌이 일어난 일은 한국불교 역사에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직무대행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었다"며 "현재는 관음사 사태가 정리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주불교가 아픔을 딛고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1950년 태어나 1965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상현 스님이다. 1975년부터 제주 법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2007년 제주 관음사 분규 때 주지직무대행으로 3번 임명돼 사태수습에 나선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천안 문화도시로 육성"

천안문화원장 선출된 법혜 스님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수한 문화 기반을 가진 천안 지역을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월 10일 천안문화원장에 선출된 법혜 스님(한민족평화포럼상임의장)의 일성이다. 스님은 고향인 천안에서 문화 활동과 지역봉사활동 해외 한민족들과의 문화교류와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민족평화포럼 운영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삶과 문화는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결부되는 문화운동의 선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안지역의 여러 장점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혜 스님은 천안문화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동적인 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연태 기자

"다양한 법회·시민선원 운영으로 포교"

취임 100일 맞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불교 1번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스님의 주지 취임 후 100일은 다사다난했다. 취임 후 시작된 조상천도법회 봉행으로 불교계 안에서 이견이 대두됐다.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촛불시위 수배자들은 불교계 밖의 이목을 조계사로 한층 더 집중시켰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조계사는 줄곧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세민 스님이 말하는 조계사의 현안은 무엇일까? 스님은 "조계사 주지 부임 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채문제였다"고 말했다. 은행대출 65억5000만원과 시민선원공사 대금 7억7000만원이 남겨진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스님이 행한 방편은 조상천도법회 봉행이었다.

"343일 서울 한복판에서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해 부채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자 다소 잡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계사를 위해 중요한 불사라 생각하고 추진했어요."

처음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하자 신도를 비롯한 조계사 대중들 중에는 "원심원사 복원을 위해 조계사 시주금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수행도량에서 천도재가 웬말이냐" 등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스님은 "조계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불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상천도도 수행의 방편인 것을 이해한 신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털어버리고 적극 동참해줘 부채 17억7000만원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20만명 이상 불자들이 운집했던 범불교도대회에 조계사가 일익을 담당해 보람이 컸다"는 스님은 조계사를 포교1번지로 거듭나게 할 비전을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세민 스님은 "초하루법회 외에 다른 법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조계사 삼존불(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 기도하는 정광재일법회 등 여러 법회를 활성화해 포교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시민선원을 이용한 참선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포교 방편도 마련 중이다.

스님이 제시하는 조계사 비전은 2010년 조계사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를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조계사 발전에 장애되는 모든 문제를 불식하고, 제2의 도약이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민 스님은 "조계사에 하루 종일 기도와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불교 포교일번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국불교협회에 성금 1억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9월 9일 중국불교협회에 쓰촨성 지진 구호 성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국장 재경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 등 스님과 신도 3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조혈모세포 기증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가을 학기를 맞아 9월 10~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대학가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02)734-8050 노덕현 기자

선본사 산사음악회서 '국민화합' 발원



팔공산 갓바위로 유명한 경산 선본사(주지 향적)는 9월 19 · 20일 제9회 산사음악회를 성료했다. 다례봉행을 시작으로 인드라 스님, 주현미, 조항조 등 가수를 초청해 국민화합을 발원했다. (053)851-1868 가연숙 기자

기허당 영규 대사·중봉 조헌선생 추모제향



의승장 기허당 영규 대사 및 중봉 조헌 선생 추모제향이 9월 17일 옥천 가산사(주지 지승)에서 열렸다. 올해로 8번째인 추모제향에는 지승 스님(축관), 한용택 군수(초헌관), 이인석 문화원장(아헌관) 등이 참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생활불교조계종 영등포교도소서 백중법회



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9월 3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수형자 조상영가천도 백중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도선 스님, 포교부장 기종 스님 등이 수형자들에게 보시금과 음식을 공양했다. 노덕현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H.P 010-3056-331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조선시대 스님들의 애국심 미군에 '어필'

해외불교칼럼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당대 조선의 정치사회상에 비춰 보건데 승병의 무장봉기는 결코 당연지사(當然之事)라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승병의 전투행위는 불교의 계율 중 특히 지엄한 불살생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승병들은 무장투쟁의 선봉에서 혈전을 치루는 한편, 민초들을 독려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관군과 협공작전을 전개한다.

앞서 언급한 미 합중국군 <군법사 승가>의 한국승병 관련칼럼은 승병의 참전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조선 승려의 감연한 애국애족의 기백(a gut-level nationalism and Patriotism), 두 번째는 조선 승려들이 지닌 불국정토(佛國淨土)와 불자의 수호자로서 사명감이다(Dharma protector of the Pure Land and People). 그러나 참전에 대한 불교계의 견해가 처음부터 일치된 것은 아니다. 우선 불교인 스스로 비폭력의 계율을 어기는 이율배반을 풀어갈 특단의 해법이 필요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부대중의 단합이 어려울뿐더러 적전분열(敵前分裂)마저 초래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성리학을 내세워 불교계를 가혹하게 핍박해온 조정과 신료들이다. 가해자라 할 그들을 피해당사자인 불교계가 목숨까지 바쳐가며 구해줘야 하는 모순을 불교계 스스로 극복해야 했다.

그러나 그 정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교계 지도부가 일대결단을 내렸다. 국토와 백성의 안위(安危)를 최우선의 명제로 채택한 것이다. 조정대신과 권문세도가, 그 온상인 유림(儒林)을 제외한 민초들이 기댈 데라곤 불교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초들은 신 유교적 정치파행, 또 사실상 유림 내의 세력쟁탈전인 당쟁에 극도의 환멸을 느꼈다. 그 패거리 난장판은 일본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도 추악함의 극에 이르는바, 백성들은 하루 빨리 불국토의 복락(福樂)을 되찾기를 희구한다. 이 모든 여건은 승병참전의 대의명분(大義名分)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이제 불교계는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투쟁방식에 총력을 결집한다.

먼저 서산 대사 휴정은 자신이 73세의 노령임을 들어 선조가 내린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摠攝)의 직함을 제자인 사명 대사 유정(惟政)에게 넘긴다. 실질적인 팔도승군통수권을 수임한 유정은 당시 49세로 이미 독자적인 전투경험이 있었다.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그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스스로 거병(擧兵)하여 유점사 인근의 아홉 촌락의 백성들을 구출한다. 이어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은 그는 병력을 보강하여 순안 법흥사에 주둔한 휴정의 야전사령부에 합류한다. 거기서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에 임명된 그는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 평양성 탈환의 전초기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1593년 1월 명나라 원군과 평양성 혈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곧이어 두 달 뒤인 3월 그는 승병전투단을 한성의 외곽으로 이동하여 삼각산 노원평(蘆原坪)전투와 우관동전투에서 거듭 전공을 새운다. 그 공으로 그는 선조로부터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를 제수 받는다.

그 후 그는 네 차례에 걸쳐 적진에 들어가 적장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와 정전회담을 갖는다. 불퇴전의 야전군사령관에서 국운이 걸린 막중한 종전담판의 외교수장으로 그의 직무가 바뀐 것이다. 1594년 4월 중순 현 경남울산의 서생포에 주둔한 일본군 본진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적측은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조선의 왕자와 고위대신을 일본에 머물게 할 것' 등 황당한 5개 화평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유정은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논변으로 그 오만방자한 요구를 꺾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중순과 12월 하순에 각각 2,3차 회담, 그리고 3년 후인 1597년 3월 중순에는 4차 회담을 한다. 특히, 2차 담판 이후 그는 선조에게 토적보민사소(討賊保民事疏)를 올린다. 장중하고 충정어린 이 명문은 적정(敵情) 탐색 및 담판의 보고서인 동시에, 적도를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할 방책의 제안서다. '국민총력전으로 적을 꺾는다, 교린외교로 적을 돌려보낸다, 피폐해진 민심을 추스르고 식량생산을 장려한다, 총체적 전투인력을 양성하고 무기생산과 병참구축을 본격화한다'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는 전후인 1604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간다. 거기서 8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외교협상에 성공한다. 마침내 그는 전란 때 끌려간 조선의 백성 3500여 명을 구출하여 이듬해 4월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 문무겸비의 사명 대사 유정은 담대한 기백과 기지가 번뜩이는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울산의 왜성에서 종전담판 중 왜장 가토 키요마사가 날도적놈의 다급한 심보를 드러낸다. "대사, 지금 조선에 숨겨진 큰 보물이 무엇이오?"그 못된 탐심을 꿰뚫어본 사명 대사가 느긋하게 되받는다. "그대의 머리요. 조선의 모든 백성이 그 보물을 노리고 있소." (계속)

편역; 성휴 스님

참조: The Warrior Buddhists of Korea, People Mattered in Korea: Samyeong-daesa, Samurai Invasion : Japan's Korean War, Japanese Castles in Korea 1592-98 (Stephen Turnbull),기타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Just fine down there!"

"저승이란 꽤 괜찮은 동네지"



A retired general returned to his hometown. Sick in bed, he told his old friend, a Buddhist monk who had come to see him: "Venerable, I'm going to die, but I don't know how things are in the netherworld." "Haha, General! Just fine down there!" readily answered the monk. "How do you know?" He murmured. "If not," smiled the monk," those who had died and gone there would flee the netherworld and come back. Since no dead man has ever came back, things down there must be very fine." And the general broke into loud guffaws.

퇴역하여 고향에 돌아온 장군이 앓아눕게 됐다. 그의 옛 친구인 스님이 병문안을 왔다. 장군이 그에게 말했다. "어이, 스님, 나 곧 죽을라나 보네. 헌데 저승이란 대체 어떤 덴가?" 스님이 곧장 맞받았다. "하하, 장군! 거기 꽤 괜찮은 동네지." "아니, 그걸 어찌 아시는가?" 그가 중얼대자 스님이 빙긋 웃었다. "만약 저승이 안 괜찮다면 지금껏 죽어서 거기로 갔던 영가들이 몽땅 뛰쳐나왔겠지." 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태 아무도 안 그런 걸 보면 꽤 괜찮은 동네가 분명하다고." 그러자 퇴역장군은 우아하하 뒤집어지게 웃었다.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심리치료 강좌 실시
프랜스 로이 선사 법사로

미국 플로리다 탐파 베이의 불교참선원은 프랜스 로이 선사가 '분노, 좌절 및 짜증의 원인과 치유'를 주제로 법문을 펼친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헨더슨가의 뉴에이지 기프트 홀에서 진행되는 이 법회의 참가비용은 일반인은 9달러, 학생과 저소득층은 5달러이다.

미국 전역의 8000여 불교 동아리와 봉사단체, 선원에서는 가정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상담과 비디오강좌를 실시한다. 출처 : MTB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도 블룸 ❷

"어쩌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반지의 제왕' '사상자' 등 영화 드라마 대박행진
자아에 대한 집착 버리고 편한 생각 갖기가 비결

올랜도 블룸은 1977년 영국의 켄터베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소니아의 가계는 본디 켄터베리 일대의 출신으로 호주, 인도 등 과거 영국식민지인 이른바 영국연방국(Commonwealth of Nations)과 남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다.

그녀는 아들 올랜도에게 남아프리카의 악랄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투쟁한 전설적 영웅인 해리 블룸이 친아버지라 말했다.

해리 블룸은 올랜도 블룸이 4세 되던 해에 뇌경색으로 사망한다. 올랜도 블룸과 그의 누이 사만다는 어머니와 함께 해리 블룸 가문의 친구인 콜린 스톤의 후견을 받으며 자란다. 그런데 올랜도는 리들리 스콧의 '블랙 호크 다운' 출연, 2003년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주인공 윌 터너로 출연, 2004년과 2005년 대 블록버스터인 '트로이'와 '킹덤 오브 헤븐'에 거푸 출연, 정말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바쁘셨죠?"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올랜도 블룸님께선 연기력도 뛰어나시지만, 타고난 고전적인 외모도 성공에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어쩌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이처럼 대 스타가 되자면 뭔가 큰 비결이 숨겨져 있을 듯도 한데?" "뭐, 어쩌다가 이 야단법석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확 뜰 거라고 제게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출세지침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죠. '반지의 제왕'이 제게 덜컥 맡겨진 건 22세 때였어요." "아, 네, 일생일대의 기회라 하겠지요?" "맞아요, 어쩌다가 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죠." "하하,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데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지금껏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떠나야 할 길, 즉 제 삶의 여로(旅路)에 늘 믿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갈 인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갈 길을 알고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삶이란 펼쳐질 때가 되면 스스로 펼쳐지는 거죠." "네, 이런저런 삶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물론이죠! 저는 인생이 본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저를 둘러싼 삼라만상도 마찬가지일 테죠."

블룸은 13세 되던 해에 콜린 스톤이 자신의 생부란 사실을 알게 된다. 꽤 헷갈리는 대목이지만 남의 핏줄 얘기로 시간을 끌 까닭이 없으니 이쯤 얼추 넘어가기로 한다.

올랜도 블룸은 성공회의 본 고장인 켄터베리에 있는 유서 깊은 세인트 에드먼즈 스쿨에 다닌다. 그런데 그는 글을 잘 못 읽고 단어의 철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희한한 학습장애로 인해 공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시, 조각 등 예술분야에선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

어머니는 그에게 '끼'를 펼치게 돕고 그는 시낭송 대회 등에서 상을 받는다. 16세 때에 어머니, 누이와 런던으로 이사한 그는 내셔널 유스 시어터에서 연기 수업을 시작한다. 그 무렵부터 그는 독립영화, 연극, TV 드라마 등에 토막출연을 한다.

깔끔한 외모에 탄탄한 연기력까지 겸쳐 점차 주목을 끌게 된 그는 인기 TV 시리즈 '한여름 밤의 살인자들'에 고정출연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TV 드라마 '사상자' '스맥 더 포니' 그리고 영화 '와일드'에도 등장한다. 길드홀 스쿨에서 음악과 연극을 공부한 그는 드디어 피터 잭슨 감독에게 픽업되어 출세작 '반지의 제왕'에 출연한다. 거기서 그는 레골라스의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성큼 스타덤에 올라선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2001년에 뭔가 큰 비결이 숨겨져 있을 듯도 한데?" "뭐, 어쩌다가 이 야단법석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확 뜰 거라고 제게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출세지침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죠. '반지의 제왕'이 제게 덜컥 맡겨진 건 22세 때였어요." "아, 네, 일생일대의 기회라 하겠지요?" "맞아요, 어쩌다가 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죠." "하하,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데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지금껏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떠나야 할 길, 즉 제 삶의 여로(旅路)에 늘 믿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갈 인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갈 길을 알고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삶이란 펼쳐질 때가 되면 스스로 펼쳐지는 거죠." "네, 이런저런 삶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물론이죠! 저는 인생이 본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저를 둘러싼 삼라만상도 마찬가지일 테죠."

우리 불자님들은 올랜도 블룸 도반이 되풀이한 '어쩌다가'란 말속의 참뜻을 이미 잘 아실 것이다.

지금 할리우드의 전법사인 올랜도 블룸은 누구든 알아듣기 쉬운 법문을 펼치고 있다. '나 스스로 꽁꽁 묶고 달달 볶고 아등바등 매달리지 말라. 나 자신을 믿고 편히 놔줘라. 그러면 보다 나은 일이 나에게 생겨날 터라.' 영어 격언 증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행복이란 어쩌다가 생겨나는 것이여 (Happiness just happens)."

(계속)

성휴 스님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혜초 스님 열반지 건원보리사는 중국 오대산 청량사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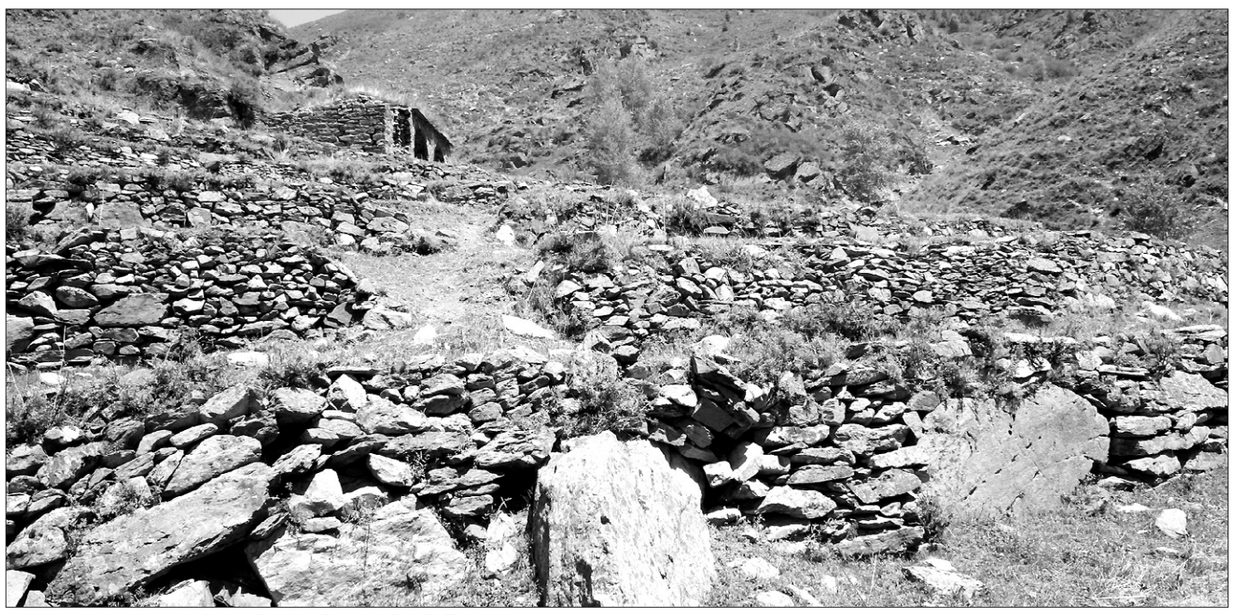
20년 혜초 스님 행적 추적 끝에 '오대산도'서 발견
밀종 도량으로 바뀐 청량사 인근에 '보리암' 실존 추측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저자인 혜초(慧超, 704~787)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로 추정되는 보리암을 지도상에서 발견해, 유지로 여겨지는 몇 곳을 답사했습니다."

혜초 스님을 가슴에 품고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20여년 동안 8차에 걸쳐 10여개국을 돌아다녔던 티베트불교 연구가 다정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이 <불교평론> 36집에 기고한 '혜초의 후반기 생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혜초스님 열반지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김 소장은 2005년 본지 인터넷 뉴스판 '붓다뉴스(www.buddhanews. com)'에 연재한 '역 왕오천축국전 별곡-혜초 따라 5만리'란 기고문에서는 "혜초 스님이 <천발대교왕경>을 번역, 서문을 쓰고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는 금각사의 별칭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었다.

김규현 소장은 "찾을 수 없던 보리사가 실체를 드러나 스스로 결론을 수정한다"면서, 지도상 발견된 건원보리사와 그 터로 추정된 몇 곳을 답사해 정리했다.


김규현 소장이 건원보리사 유지로 추정하는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의 전경.

혜초 스님 번역에 전념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의 열반지를 찾기 위해 스님의 후반기 연보에 주목했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의 704년 출생설을 전제로, "스님이 천축국 순례를 마치고 728년 제2의 고향 장안성에 돌아왔을 때는 25세였다"고 말했다.

장안성은 현재 시안이다.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뤄양(洛陽)과 함께 4대 고도(古都)로 손꼽히는 시안은 산시성(陝西省) 중심지로 현재도 인구 300여만의 대도시지만, 당나라 때는 인구 150만 이상이었다.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이 장안 도착 후 만년에 오대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50여년을 밀교승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김규현 소장은 "궁중 원찰 내도장에서 중책을 맡았고, <왕오천축국전>에서 쓰인 단어들이 혜림에 의해 <일체경음의>란 용어집에 수록됐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서역에서 돌아온 혜초 스님이 여장을 풀었을 장소로 천복사(薦福寺)를 지목했다. 천복사는 혜초 스님이 천축 순례를 떠나기 전 인연을 맺었던 중국 밀교의 태두인 금강지와 불공삼장이 주석하던 곳이다. 김규현 소장은 천복사에서 금강지, 불공삼장을 모시고 8년간 불경을 번역했다는 <대종조 사공대변정광지삼장화상 표제집>을 통해 "천축에서 돌아와 집도 절도 없던 혜초를 전문번역가가 필요했던 금강지와 불공삼장 등 두 스승이 반갑게 맞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서는 "금강지와 불공만큼 혜초 화상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오대산도.

혜초 스님 열반지는 건원보리사

김 소장은 "774년 불공삼장 입적 후 혜초 화상이 문득 무상을 느낀 것이 오대산으로 향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 말했다.

오대산은 높이 3058m로 중국 북동쪽에 위치했다. 다섯 봉우리로 이뤄져 오대산이라 불린다. 당나라 때는 법화, 화엄, 천태, 정토 등 종파와 신흥 밀교 고승들이 사원을 개창해,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이 거처한 청량산과 동일하게 인식했다. 신라 선덕여왕 13년(644년) 자장 율사는 청량사에서 47일 기도 후 문수보살로부터 불사리와 금란가사를 받고 귀국해 설악산 봉정암 사리탑을 조성했다는 설화도 있다.

혜초 스님은 780년 4월 15일 오대산 건원보리사에 도착해 다시 번역에 착수했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이 스승 금강지로부터 전수받은 <대승유가금강성해만주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珠實利千臂千鉢大敎王經, 이하 천발경)>을 50년 세월동안 참구했다"고 말했다. 만주실리(曼珠實利)는 문수보살이다.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흰 사자를 타고 남대봉까지 친히 마중 나온 문수보살의 손을 잡고 열반에 들었다"며 혜초 스님의 열반 당시를 설명했다.

건원보리사가 혜초 스님 열반지라는 사실은 <천발경 서>에서 밝혀졌다. 김규현 소장은 780년 4월 5일 오대산 건원보리사에 도착한 혜초 스님이 기록한 문헌(至唐建中元 年四月十五日 到 '五臺山 乾元菩提寺' 至五月五日 '沙門慧超' 首再錄)에 주목했다.

건원보리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김규현 소장도 "건원보리사는 금각사의 별칭"이라 했을 정도였다.

건원보리암 '오대산도'서 발견

혜초 스님 열반지인 건원보리암은 돈황 막고굴 제61호 벽화인 '오대산도'와 돈황연구원이 편찬한 <돈황석굴예술>의 '막고굴 제61굴' 책자 부록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김규현 소장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곳이 책자에 쓰인 보리지암(菩提之菴)이란 이름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보리지암' 네 글자를 단서로 건원보리사를 찾아 나선 김 소장은 먼저 지도상에서 '보리암'과 유사한 지명 및 사원을 찾아 분석하고 현지를 답사했다. 유일한 단서는 '오대산도' 뿐이었다.

'오대산도'는 13m×3.4m 크기의 장방형으로 막고굴 중 가장 큰 벽화로 꼽힌다. '오대산도'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불광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찰 지명과 설화들이 명기돼있다.

김규현 소장은 '오대산도' 방제 순서에서 보리암을 유추했고, 금각사가 아닌 청량사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됐다. 금각사는 불공삼장-금각함광-(보리)-혜초로 이어진 밀교 도량이었지만, 청량사는 화엄종 종찰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소장은 최정삼이 엮은 <오대산 육십팔사>에서 의문을 풀었다. "불공삼장이 대력 원년(766년) 황제에게 주청해 청량사를 중수했다. 이로 인해 청량사는 선종 총림과 정토 도량에서 밀종 도량으로 변했다"는 기록이었다.

김규현 소장은 불공삼장의 행장을 담은 <불공표제집> 등을 인용해 "당나라 대종 때 여러 선종사찰들이 밀종화됐다"고 뒷받침했다.

건원보리사 청량사 인근 위치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는 보리지암이며 청량사 인근에 위치했다"는 자신의 가설에 풀지 못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수많은 오대산 관련 자료에서 왜 보리암이 빠졌는지가 그 중 하나다. 김규현 소장은 <대정신수대장경>과 <불공표제집> 등에서 불공, 함광, 혜초 등의 기록량이 다르다는데 주목하고, 선종과 밀종의 파워게임으로 기록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규현 소장은 "'오대산도'는 사방 500리나 되는 광대한 오대산의 수백개 대상체를 한 장의 평면구도에 축약해 표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건원보리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여년 혜초 스님을 쫓은 김 소장의 연구는 이제 혜초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가 청량사 인근이었다는 사실까지 접근했다. 하루빨리 건원보리사 위치가 밝혀져 김 소장이 발원한 '해동사문보리혜초행적비(海東沙門菩提慧超行蹟碑)'가 세워지길 기원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축 순례 혜초 스님



혜초 스님은 신라 승려로 어릴 때 출가하여 723년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 그곳에서 인도 승 금강지의 제자가 됐다. 그 뒤 불교성지인 인도(천축)를 찾아 부다가야를 비롯해 녹야원, 쿠시나가라 등 성지를 순례했다.

천축에서 돌아온 뒤 당나라에 머물며 금강지의 법통을 이은 불공삼장의 6대 제자로 이름을 떨치며, 불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며 후학을 양성하다 건원보리사에서 열반했다.

혜초 스님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 학자 펠리오에 의해 발견돼, 현재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왕오천축국전>에서 '천축국'은 지금의 인도를 말한다. 당시 인도는 동천축(캘거타), 서천축(알로르), 남천축(나시크), 북천축(잔다라), 중앙천축(마가다)의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오천축국'이다. '왕'은 그 곳을 다녀왔다는 의미다.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세권이었으나 앞뒤가 잘려진 채 발견됐으며, 1200여년 전 인도와 중국의 사정 등을 알려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다.

◇ 김규현 소장은



티베트불교문화연구소 김규현 소장은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 중국 북경의 중앙미술대학, 라싸의 티베트 대학에서 수인 목판화와 탕카(탱화)를 연구했다.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1993년부터 양쯔강, 황하, 갠지스강과 티베트 고원 등 12개국 오지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홀로 누비며 '붓다뉴스'에 연재를 통해 <왕오천축국전>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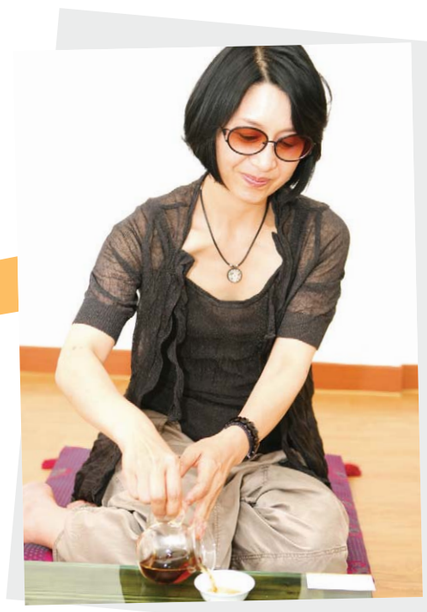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꽉 찬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편해요”

김혜옥(탤런트, 배우)



팔색조 같은 연기로 온 국민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키는 연기자 김혜옥씨의 미소는 의외로 차분했으며, 도회적인 분위기였다.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가 출연한 주요 드라마로는 ‘달콤한 나의 도시’ ‘난 네게 반했어’ ‘강적들’ ‘경성 스캔들’ ‘소금인형’ ‘며느리 전성시대’ 등이 있으며, 영화는 ‘6년째 연애 중’ ‘녹색의자’ ‘가족의 탄생’ 등이 있다.

최근의 몇 작품을 꼽아 보아도 그녀의 면면이 다 드러난다. ‘경성 스캔들’에서 야멸찬 ‘사치코’의 역을, ‘미우나 고우나’에서 철없는 시어머니 역을,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푼수 같은 할머니 역을 맡아 사람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김혜옥씨에게는 어떠한 배역이 주어지더라도 그 배역에 생명력을 집어넣는 마력 같은 것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설렁설렁해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고 그 배역에 푹 빠져야 한단다. “때로는 연기삼매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 느낌이 명상할 때의 고요함과 같다”고 하니 김혜옥씨에게 있어서는 ‘생활이 곧 수행이요, 하는 일이 곧 수행인 것’이다.

“사람들이 내 연기를 그렇게 높이 봐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연기할 때 정말 욕심 없이 해요. 그냥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순간에 몰두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연기에 표출되어진 것이라 생각해요.”

김혜옥씨는 “연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푼수 같은 역할을 맡아 할 때면 계산되지 않은 그 넉넉함이 좋아 자신도 덩달아 행복하단다.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배우지요. 꽉 찬 것보다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것이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의 외모를 보고는 도회적이라 하지만 내 안에는 푼수기가 좀 있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남과 경쟁하는 것을 싫어했고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도 잘 할 줄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김혜옥씨는 ‘2006년 MBC연기대상 중견 배우상 부문 특별상’을 ‘2007년 KBS 연기대상 여자조연상’을 수상했다. “그 세를 몰아 올해는 연기대상 ‘여자주연상’을 수상하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저는 원래 무엇을 해서 상을 타겠다는 생각은 정말 없어요. 그냥 주어진 배역에 몰두하다보니 상을 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상을 타니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뻐요.”

김혜옥씨는 지금은 중견배우로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만 한때는 ‘전원일기’에서 빨래하는 연기만 10년 동안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혜옥씨는 그 배역조차 하지 않으면 밥을 굶기에 열심히 해내었다. 이십 때부터 김혜옥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했고,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녀이다. 슬픔과 아픔으로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오랫동안 앓았어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니 산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삼 년 넘게 앓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거의 누워만 있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었고 의사도 손발을 들었다. 그때 유일한 낙은 불교방송을 듣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제일 슬프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불교방송을 들으면서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님들께서 신행상담을 해 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었어요.”

한 번은 동생 소개로 마곡사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초심자인줄 알고 절 경내 서점에서 책을 한 아름 사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이 일러 주시는 대로 날마다 108배와 진언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불교 책들을 열심히 읽었는데 한 일 년쯤 지나니 나도 모르게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마음의 병 ‘홧병’이었어요.”

김혜옥씨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부처님을 알게 되었고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자 지침이 됐다.

“남들이 잘 겪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 것이 전생의 업이기도 하겠지만 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행복만 계속됐다면 부처님 말씀이 가슴 깊숙이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고통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 때는 불교방송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달래곤 했었는데, 지금은 김혜옥씨가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 MC를 맡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다. 4년째 ‘아름다운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혜옥씨는 이러한 인연에 대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 여긴다면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아끼고 애착이 가는 방송”이라 했다. 김혜옥씨는 불교방송을 비롯하여 드라마와 영화 등 방송연예활동을 통해 대중문화포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7회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김혜옥씨는 아침마다 108배와 명상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고 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불교서적들을 읽는다. 그의 차안에는 항상 불교서적들이 그득하게 실려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를 좋아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나를 위해서 한 말씀 같아 어떤 때는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환희심을 느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후회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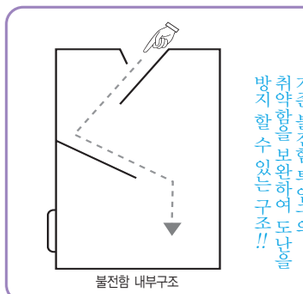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온 몸에 박힌 가시 하나하나가 법음으로 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혜옥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족(知足)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했기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했지 않나 싶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95

BY630 사무가정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 투입부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 보광사, 법성사, 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길)
기업 485-005940-01-017 (강순길)

사명 대사 추모법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사명대사 열반 398주기를 맞아 9월 25일 오전 9시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 대사 동상 앞에서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제1부 육법공양 및 영산재에서는 어산스님의 영산재 시연, 불교TV 염불공양모임의 육법공양, 스님 및 일반 내빈의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동상 앞에서 추모제가 열리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까지 사명대사 위패 이운 행진을 한다.

제2부 추모대법회에서는 바라밀무용단의 불교전통무용 '연화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명 대사 위패 이운팀의 입장 및 육법공양, 영산재, 사명대사 행장소개, 헌화, 기원문, 추모사, 사명대사 추모가 합창 순으로 2시간여에 걸쳐 봉행될 예정이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가을 산사순례

거창군 삶의쉼터 노인복지관(관장 심우)은 가을맞이 어르신 산사순례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0일 화요일 충남 부여의 백마강 황포돗대와 고란사, 무량사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회비는 1인당 1만원으로 중식 및 교통비가 모두 포함된다.

선착순 300명에 한하며 참가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055)945-2014 박지원 기자

심우도 선묵전

선서화 대중화를 위한 '심우도 선묵전'이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 지하2층 대하미술관에서 열린다.

9월 30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2008년 전국 최고미술대전 동양화 부문에서 입선한 울산 심우사 주지 현정 스님의 작품 15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현정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마련된 미술관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심우도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과 비유해 묘사한 것으로 모두 10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지원 기자

하늘물고기가 안내하는 축제 속으로

범어사 9월 28일~10월 5일 금어문화축제 개최

부산 금정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사찰 창건 1330년을 맞아 '하늘물고기,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다'라는 부제로 2008 금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금어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범어사, 부산문화공동체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장장 8일간에 걸쳐 범어사와 금정체육공원 일대를 신명나는 축제의 장으로 수놓는다.

첫날인 9월 28일 개막식은 오후 6시부터 금정체육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국민가수 윤도현밴드 콘서트를 시작으로 범어사 합창단, 전통무용단 공연, 불꽃놀이 등이 열린다.

9월 29일에는 본격적으로 범어사의 산문이 활짝 열리고 금어등불 점등식이 경내에서 펼쳐지고, 해외 유명음악인을 초청해 산사음악회가 메인 무대에서 관람객을 기다린다.

9월 30일에는 '(가제)달마야 놀자'라는 주제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와 각종 전시체험행사가 마련되고, 오후부터는 스님과 신도 간 화합의 장이 될 스님 노래자랑,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팀을 이뤄 즐기는 단체게임 등이 펼쳐져 기대를 모은다.

축제 기간 중 국군의날인 10월 1일에는 육군 53사단 국군장병 1000여명을 초청, 범어사 사찰탐방과 우정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금어노래자랑이 열린다.



올해 개산대제는 지역문화축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산대제의 모습.



이어 노인의날인 10월 2일에는 어르신 장기자랑 및 자비의 쌀 나눔, 영정사진 무료 촬영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10월 3일에는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본격적인 개산대제 법회를 봉행하고 명종타종, 기념법요식, 다비식 시연 등이 이어진다.

10월 4일에는 '금샘을 찾아서'를 주제로 등불로 환히 밝힌 산길을 따라 신화 속 금샘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10월 5일 폐막식은 금어를 세상에 알리는 시민예술제로 대화합의 장을 연다. 소망 등불행렬이 범어사 인근 지역을 밝히고 안치환콘서트로 막을 내린다.

1330년 전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문화와 결합해 친근한 종교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온 범어사 개산대제가 이제 부산을 넘어 세계 속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어문화축제의 '시어' 같은 부제는 범어사 창건설화에서 땄다. 한 마리의 금빛 나는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고 해 '금정(金井)'이라는 산 이름과 '하늘나라의 금어(金魚)'라고 하는 절 이름을 지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인터뷰-정여 스님

"사람·자연 어울림마당"



"유구한 신화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일등 전통문화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금어문화축제는 범어사의 역사와 금어신화를 바탕으로 단순한 종교의례를 넘어 문화 예술로 승화시킨 지역문화축제다. 정여 스님은 "개산대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축제문화를 창조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축제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어축제는 금정산속 금샘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님은 "최근 가지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 파괴 논란이 이슈인데, 설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세계인이 찾아와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로 지구촌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성재문화원 야단법석 백고좌

부산 성재문화원(원장 이강원)은 10월 19일 오후 1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민대화합 · 국가경제발전 기원 백고좌대법회를 개최한다.

백고좌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간 100인의 큰스님을 초청해 설법하던 전통 불교법회다. 619년 신라 진평왕 때 경주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 법사 등을 맞아 설법하면서 시작됐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맥이 끊어졌다가 이번에 성재문화원이 다시 되살려낸다.

이번 법회에 참가하는 스님은 모두 100명으로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 등이 설법에 나선다.

성재문화원 이강원 원장은 "백고좌 법회는 신라 이후 10월 중 3일간 걸쳐 성대하게 열리는 정기 행사로 발전해오던 중 호국불교에 대한 원나라의 압력으로 점차 쇠퇴했다"면서 "750여년 만에 재현하는 만큼 잃어버린 우리 전통 문화를 찾는데 역사,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재문화원이 지난해 7월 19일 KBS부산홀에서 개최한 불심 도문 스님 초청 대법회.

성재문화원은 야단법석을 통해 대중법회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1999년 고산 대종사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매년 5000여 명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법석을 만들고 있다. (051)863-4441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부산불교인재개발원 이욱태 원장

"불교의 비전 '교육불사'가 기본"

"부처님 뜻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만 못하죠.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원력과 소신 갖춘 불자를 양성할 것입니다."

올해 초 인재 불사를 통한 불교 저변인구 확대와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불교사상의 정립을 발원하며 부산불교인재개발원(원장 이욱태)이 처음 문을 열었다.

초대 원장을 맡은 이욱태 원장은 군법사 출신으로 인재불사를 위해 십수 년 째 해동중학교 교법사로 현직에서 뛰고 있다. 그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불교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아쉽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부처님 가르침에서 삶의 신념과 가치관 등이 평생에 걸쳐 형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불교인재 양성 시스템이 교양대학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초심자를 위한 기본교육부터 남다르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이 법사로 초빙됐다. 이욱태 원장은 "신도회 공병수 회장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법력 높으신 큰스님들을 모시게 됐다"며 "우선 강사진이 각 분야별 전문인으로 구성돼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이에 따라 강의 내용 또한 심도 깊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별화된 특성을 인정받아 현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진행 중이다.



2009년 2월 수료하는 1기 교육생들 중 일부는 전문강당 과정, 연구 과정, 한국불교역사문화 과정을 총 9년간 거쳐 부산불교계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각 분야 이끌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법사 시절부터 올바른 불교사상을 갖춘 참 불자를 기르고 싶었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교육과 인재 불사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신도회관 건물 5~6층에 자리 잡은 교육원은 일주일 내내 200여 수강생이 모여들어 배움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현재 9월초 개강한 제1기 입문자수행학교와 불교전문강당 수강생을 모집해 기존 교육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전통 불교교육을 운영 중인데 각 사찰이나 신행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불교

한편 개발원은 청년 지도자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캠프, 도심속 일반인 템플라이프 등을 준비중이다. 또한 불교 문화재의 감시,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할 모니터링 해설사 전문 과정, 재가종무원 전문 교육도 기획중이다.

하지만 이욱태 원장은 더 큰 미래를 꿈꾼다. "단순한 교육기관의 틀을 넘어 불교계가 함께 책임져야할 사회 전반의 문제들, 가령 사회복지, 여성문제, 제3세계,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가져 올바른 미래를 여는 비전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51)853-2021

박지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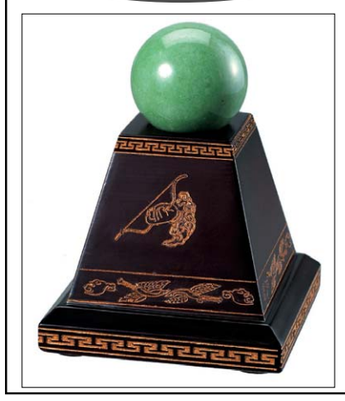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또는 합장주 택1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만남·나눔·추모…도약발판 마련

광주생명나눔 창립 10주년행사 10월 9~22일



광주생명나눔이 지난 여름 개최한 생명나눔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

광주지역 대표적 신행단체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10월 9~22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생명나눔이 10년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4개의 주제에 따라 광주시민과 만남의 날, 환우가족과의 만남의 날, 환우 추모의 날, 생명나눔의 날(난치성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로 펼쳐진다.

광주시민과 만남의 날은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고, 광주시청과 광주일원에서 골수기증, 장기기증, 헌혈은행 캠페인이 10월 9일 진행된다.

10월 18일 진행되는 환우가족과 만남의 날은 병상에서 지친 환우가족들을 초청해 가을나들이를 떠난다. 생명나눔 관계자는 "가을나들이에는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탐방도 함께 진행되며, 무등산 풍경소리음악회에도 동참한다"고 말했다.

환우 추모의 날은 10월 19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함께 진행한다. 그동안 광주생명나눔에 시신기증을 했거나, 투병 중 사망한 환우를 위한 천도재가 봉행된다.

생명나눔의 날인 10월 22일에는 5.18기념문화관에서는 장용실 KBS아나운서 사회로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범능 스님, 류상호, 주권기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를 기획한 윤예중 사무국장은 "최근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광주생명나눔이 지난 10년간 많은 역할과 함께 불교계의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해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후원과 함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1989년 9월 19일 창립,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활동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편향 규탄 삼보일배로 한마음

광주사암련 · 광주전남아고라 '연대성명'

광주지역 스님들과 재가불자,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3보 1배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를 비롯한 신행단체와 광주전남아고라 연대(대표 ID 지안)는 9월 16일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를 차별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종교대화합의 길을 보장하고 공직자가 더 이상 종교차별을 할 수 없도록 종교차별금지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껏 이명박 정부가 한 잘못에 반성을 요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토와 자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분열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은 인터넷 공간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해온 광주전남아고라 연대가 동참했다. 광주전남아고라연대 대표 ID 지안은 "오늘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모두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신행단체 및 광주전남아고라연대 등은 9월 16일 광주 충장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요구서를 통해 "양극화반대, 종교편향반대, 촛불수배반대, 언론장악반대, 미친소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삼보일배에 나선 참가자들은 3보 1배를 하면서, 절 한 번, 한번마다 종교편향반대, 양극화반대 등을 외치며 바닥에 몸을 던져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3보 1배를 통해 참회하고 의지를 다졌다.

"불사가 곧 수행이자 공덕의 실천"

전주 만월사 원통보전 관세음보살 봉안 및 낙성식 봉행

천태종 만월사(주지 설래장)는 9월 18일 전주시 진북동에 대지 약 1만㎡ 건평 7000㎡ 규모의 새 터전을 마련하고 원통보전 관세음보살 봉안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 도정 스님, 춘광 스님, 전북사암연합회 회장 원행 스님, 전주 정혜사 지석 스님, 최강우 덕진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도량을 가득 메우고 광주 금광사 합창단의 찬불가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작된 낙성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완상칠봉 길상지에 백련이 피어나듯 밝은 달이 비추니 공덕으로 빛내주고 복덕으로 장엄하도다'는 법어를 내리고 찬탄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도시이자 예향인 전주에 만월사가 시민들의 귀의처가 되고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열심히 기도 정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관음행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사암연합회 회장 원행 스님(김제 금산사 주지)은 축사에서 "전라북도 중심인 전주시 도심 안에 자리잡은 만월사가 불교의 전통을 이어 서로 화합하며 미래를 밝히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만월사의 낙성을 축하했다.

만월사 주지 래장 스님은 "만월사 원통보전 낙성식까지 불사가 곧 수행이었고 공덕의 실천이었다." 며 "시작은 초승달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곧 둥근 달처럼 천태 법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낙성식에 앞서 관세음보살상, 상월원각대조사 진영, 신중탱화, 지장탱화 등을 점안하는 봉불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태종 만월사는 9월 18일 원통보전 관세음보살 봉안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 상량식 봉행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9월 12일 경내에서 주지 종삼 스님, 선원장 현산 스님과 각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보박물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성보박물관은 2007년 12월 설계안을 완료하고 2008년 1월 기공식을 했다. 전체 공사비 60억원으로 건축부분 30억과 전시부분 30억원이 들어간다. 정면 13칸, 측면 3칸의 ㄱ자형태의 건물로 지하 1층은 120평으로 수장고와 전시준비실 등이 들어서며, 지상1층은 113평 규모의 상설전시관을 마련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시를 비롯해 주변 말사의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성보문화재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화엄사는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화엄사 일대와 화엄사각화전(국보 제67호)을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 8점 외 수많은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문귀례 총무간사

"포교하려면 신심에 적극성 더해야"

광주불교회관에서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총무간사를 맡고 있는 문귀례 보살을 복덩이보살이라 부른다. 지역사암연합회라는 다수의 사찰이 참여하는 연합체에서 문 간사의 역할과 부지런함이 묻어나는 말이라고 광주지역 불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는 현재 조계종, 태고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가장 큰 단체다. 현재 150여개 회원사찰이 참여하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상무지구 무각사 내에 광주불교회관을 두고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불자로서 불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생에 불교와 많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최근 촛불집회와 종교편향까지도 사암연합회에서 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소신껏 불교에 대해 답해 줍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포교하려면 신심이 깊어야 되고, 기도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요."

시간날때마다 무각사 법당에서 절하며 기도하는 문 간사의 말에는 불교에 대한 신심이 묻어나온다.

문귀례 간사는 어렸을 때부터 절과 인연이 깊었다.

"할머니가 자식들 잘 되라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성장하면서 절에 가서 절만 하는 것이 무슨 종교인가 싶어 한때는 법당에 가도 삼배 이상은 하지 않은 때도 있었지요. 언젠가부터 나도 할머니, 어머니처럼 법당에 가면



'복덩이 보살' 의 보현행 광주불교의 힘

종단내외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레 문귀례 간사의 일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전혀 귀찮거나 싫은 내색이 없다. 문 간사는 이미 원각사 청년회와 정토회에서 꾸준히 신행활동을 해온 불자이다.

중학생 아들을 둔 주부이기도 한 문귀례 간사는 부처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불교인은 자신이 절에 다녀도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소극적이지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108배를 하고 있더군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던 문 간사는 부처님 인연을 따라 이제는 불교단체를 종횡무진 달리며 자원봉사 등으로 보현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문귀례 간사는 자신도 모르게 광주지역 원력보살로 불자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 있었다.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불교도대회에서 목청껏 외치는 문귀례 간사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의 당당한 모습을 발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 북 지 사 (063)910-5199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0월 2일 목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공생선원 개원6주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큰스님 초청법회

■ 일시 : 2008년 9월 28일 일요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공생선원

공생선원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스님을 모시고 특별 초청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 02)900-2448

상륜보주, 만물생성의 근원 강력한 영기로 표현

3. 적멸보궁의 외면 세계

이미 앞서 기단부와 공포를 살펴보았으므로 상륜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건축 전체 도상의 상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호의 가로지르는 무늬 띠는 불단의 수많은 영기문과 똑 같습니다. 심지어 쇠 장식에도 영기문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꽃살문의 꽃무늬들도 모두 영기문 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기화(靈氣化), 즉 영화(靈化)하여 건축을 현실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만들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형상에 빗대어 설명하므로, 그만 본질을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동찰간의 상륜부를 살펴볼까요. 찰간이란 탑의 중심에 있는 초석인 심초(心礎) 위에서 지붕까지 연결된 높은 기둥을 말하며 그 위에 상륜부(相輪部)라는 구조가 만들어져 건축을 매듭짓습니다. 이 지붕은 정자각(丁字閣)을 이루는데, 이는 왕릉의 정자각 건물에서 온 것입니다. 금강계단의 탑 안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어서 탑은 무덤의 성격을 지니어서, 왕릉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멸보궁을 정자각으로 설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멸보궁에는 그런 높은 중심 기둥은 없지만 정자각을 닮아서 세 용마루가 만나는 꼭지 점이 있으며 그 위에 1미터 80센티 높이의 상륜이 올라가는데 중간의 보주의 직경은 70센티 가량 됩니다. 처음에 그 상륜부의 사진이나 도면을 보니 전혀 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도 1-1) 일주일 동안 내 곁에 두면서 살폈더니 하나씩 눈에 도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륜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도 1-2). 맨 밑에 대좌가 있고, 그 위에 노란 연꽃이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보주가 화생합니다. 그 보주의 사방 네 군데에 빨간 범자(梵字)라는 성스러운 글자가 탄생하며, 범자로부터 노란 꽃잎 같은 것들이 발산하고 다시 위아래로부터 큰 제3영기 싹이 발산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녹색으로 칠한 제3영기 싹 덩굴무늬 영기문이 발산하며 다시 붉은 색으로 칠한 구불구불한 영기문(고구려와 신라의 관(冠)장식에 많이 보임)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성음(聖音)이 절대적 진리를 상징하므로 여러 강력한 영기문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산개라는 지붕이 있으며 네 모서리로부터 봉황모양 영기가 힘차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다시 보주가 화생하고 놀랍게도 길게 뻗친 제3영기 싹에서 탄생합니다. 그 보주로부터 다시 네 개의 범자가 탄생합니다. 다시 그 위로 긴 찰주가 올라가며 맨 위에서 다시 제3 영기 싹 모양으로 보주가 화생하면서 상륜을 마무리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주는 구형으로 나타내지만 조형상 필요하면 타원체(?圓體)로도 표현합니다. 보주 역시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가장 강력한 영기입니다. 이상의 영기문들의 집적(集積)인 상륜부를 다시 선(線)으로 추상해보았습니다.(도 1-3)

이처럼 이 상륜부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영기화생의 표현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탑이나 석탑의 상륜부도 영기화생하는 불탑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도사나 흥국사에 있는 팔상탱이라는 석가의 일생을 그린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도 2-1) 네 용마루가 만나는 곳에서 높은 상륜부 같은 것이 솟아 있는데 그것은 영기로 충만한 건물에서 발산하는 영기입니다. 그 무늬를 분석해 보면 모두가 영기문임에서 알 수 있습니다.(도 2-2) 결국 보주의 영기화생의 도상을 복잡하게 전개시킨 것입니다.

청동 상륜부에 온갖 영기문들 밀집시켜
적멸보궁의 절대 공간서 발산 '형상화'

이제 건축 전체를 다시 볼까요. 영화된 기단에서 적멸보궁이 화생하고 다시 강력한 영기가 상륜의 형태로 발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도 3)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건축에는 수많은 형태가 다른 제3영기 싹의 모티브가 일관 있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단에서 발산하는 사방계단의 소매돌이 제3영기 싹이요, 내부 천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늬, 법당 안에 있는 불탁의 용 입에서 나오는 것, 향로의 범자에서 발산하는 무늬와 봉황의 입에서 나오는 것, 범종의 보살이 받들고 있고 보살의 보관 양쪽에서 발산하는 것, 상륜부의 보주를 탄생하게 하는 수많은 형태가 다른 무늬들, 이들 모두가 '제3영기 싹 모양 영기문'들의 다양한 영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건축에 그 무늬를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영기로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 찬, 비로자나의 빛(光明)이 가득 찬 절대적 진리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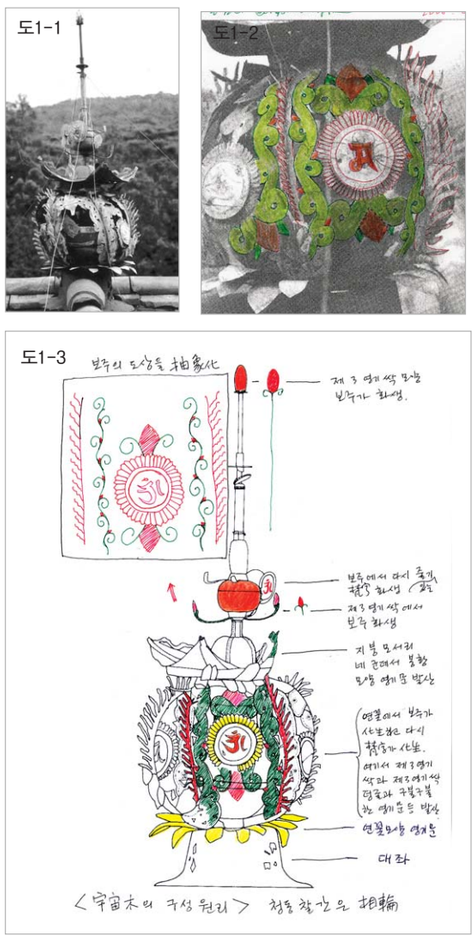
이미 앞에서 제3영기 싹에서 봉황이 탄생하는 도상을 황남대총 은잔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예를 더 들어볼까요. 중국 서한(西漢)시대 고분벽화의 용 그림을 보면 몸 여기저기서 제3영기 싹이 나오고 있지만, 실은 그 영기에서 몸의 각각 부분이 화생하는 광경입니다.(도 4) 또 우리나라 수원 화성 의궤에 보이는 도상을 보면, 용마루 양쪽에 용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용마루가 화생하여 나오고 있는데 그 몸이 제3영기 싹입니다!(도 5) 이처럼 제3영기 싹은 만물생성의 근원을 표현하는 도상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무늬가 비교적 아름다워서 건축에 다양하게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3영기 싹을 중심으로 영기문이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도 6) 이 표현원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 건축의 비밀을 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정 상 통도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금강계단(金剛戒壇)의 역시 장대한 영기화생에 대한 강의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신라가 정치적으로 가장 고비에 닥쳤을 때 불교의 화엄사상을 왕권 회복에 결부시키려 하며 경주의 중심에 황룡사 9층탑를, 양산에는 통도사 금강계단을 각각 645년과 646년에 짓는 대역사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그 중심에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두 사원은 그 당시 정치적 종교적 두 구심점(求心點)이었습니다. 그 율맥(律脈)은 맥맥이 흘러 임난 때 완전히 소실된 것을 1644년에 대대적으로 중건하며 그 이후 많은 불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모든 조형에 삼국시대 이래의 제3영기 싹 영기무늬가 곳곳에 숨겨져 있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적멸보궁에는 천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위대한 건축입니다. 우리는 조형미술을 통하여 적멸이 무엇인가를 접근해 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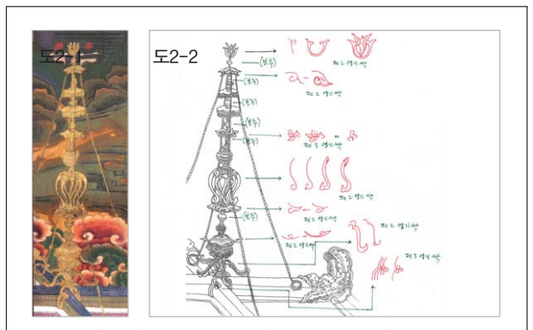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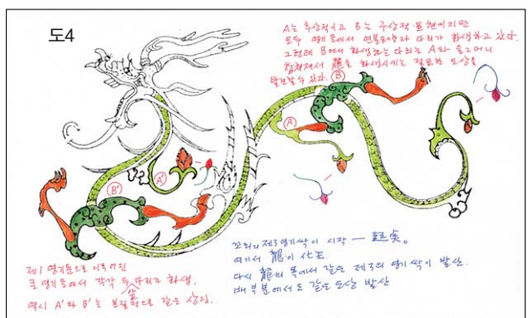
지난 697호 본 란의 제목 '공포·향토·절정 모두…'는 '공포·향로·천정 모두…'로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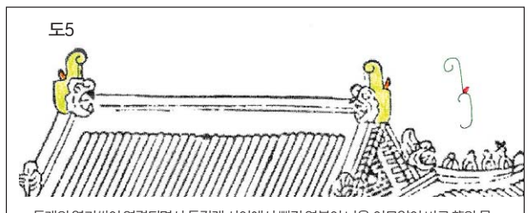
<1-1>청동찰간
<1-2>채색분석
<1-3>상륜부 채색분석. 상륜의 표현 원리=대좌-연꽃-보주화생-범자화생-제3영기 싹과 그 덩굴과 구불구불한 영기문 발산-비중에서 봉황모양 영기문 발산-제3영기 싹 발산하고 다시 보주화생-범자화생 최종적으로 제3영기 싹 모양 보주 화생.



<2-1>서울 흥국사 팔상탱의 네 용마루가 만나는 곳에서 발산하는 영기문 상륜부.
<2-2>서울 흥국사 팔상탱의 네 용마루가 만나는 곳에서 발산하는 영기문 상륜부의 영기문 분석.



<4>용이 제3영기에서 화생하고 있는 중국 축도상-서한(西漢) 하남성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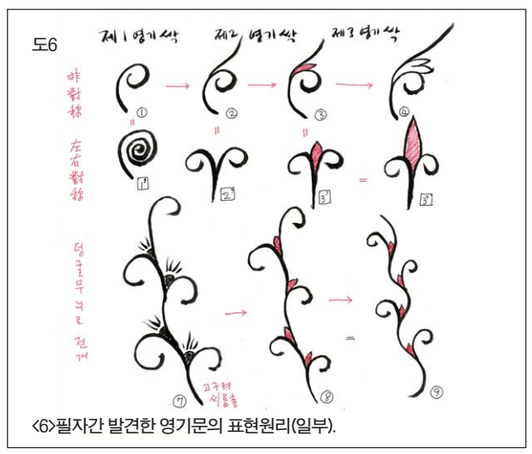


두개의 영기싹이 연결되면서 두갈래 사이에서 빨간 연봉이 나옴:이모양이 바로 龍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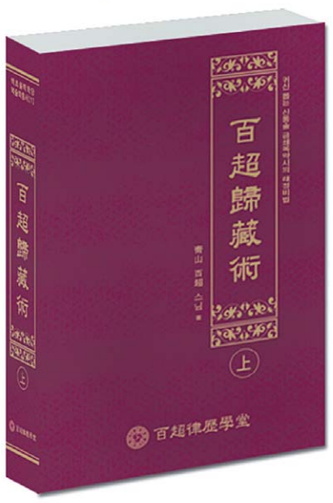
<5>용마루 양쪽의 용의 몸이 제3영기 싹으로 표현됨.



<3>영화된 기단에서 적멸보궁이 탄생하고 다시 거기서 상륜모양이 영기 발산.



<6>필자간 발견한 영기문의 표현원리(일부).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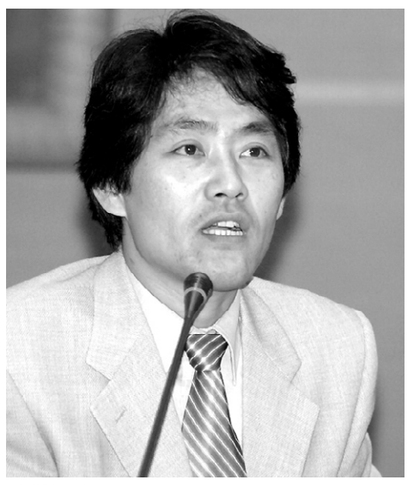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279,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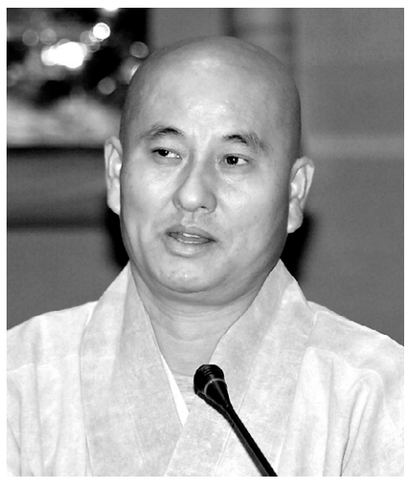

“살 · 활 적재적소 처방해야 진정한 간화선 지도자”

발 표 : 박재현(서울불교대학원대학 선사상)
논 평 :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
일 시 : 2008년 9월 19일
장 소 :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최 :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간화선의 핵심은 화두 참구와 병통의 극복에 있다. 역사적으로 지적돼온 간화선의 문제를 검토하고 현대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주최로 제7회를 맞이한 간화선 세미나는 올 여름내 간화선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점검했다. 간화선 실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혼란한 세상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바로 아는데 주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는 ‘화두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동아시아 불교수행의 문제의식과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 수행 제자의 역할과 공안(公案) 등을 논제로 다뤘다.

토론자로 참석한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은 논자의 논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논문의 본론이 간화선의 공안보다 ‘조사선의 기용과 살활’에 더 부합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불교의 심성론 내지 인간관을 성악설에 기초한 논자의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논자가 거론한 백파 스님의 <선문수경>이 초의 선사에 의해 많은 부분 비판받았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수행이 불교사상과 수행의 축적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안의 의심이야말로 붓다의 출가 동기가 아니었던가”라고 말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할 간화선의 과제를 제안했다. 박재현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했다.


박재현 교수.


월암 스님.

‘무명중생’ 성악코드에서 ‘본래성불’ 성선코드로 변모
화두수행은 대안 수행법 … 가상의 문제로 실상에 다가서

무명중생에서 본래성불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태생적으로 사회성과 역사성이 취약하다. 중국으로 전래된 초기는 물론이고 화엄학과 천태학이 번성했던 교학불교시대와 선불교시대까지도 불교도들에게 부채로 남은 문제였다. 교학불교시대의 핵심 과제는 불경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함축된 해석학 작업으로 이 문제를 보강하는 것이었다. 중국철학 전통의 성선과 성악은 단순히 심성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확대됐는데 법장과 종밀의 <화엄오교장>과 <원인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의 사유전통에 의하면 인간은 오직 윤회 전생하는 무명의 중생일 뿐이다. 이런 참담적 존재 상황을 중국어법으로 표현하면 ‘성악’이다. 윤리 도덕적 개념에서 확대해 심성의 선천적 문제로 보면 인도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기초했다고 해도 좋다.

중국 출가승들은 붓다의 근본교설인 인천교(人天敎)와 소승계열의 불교이론, 유식사상과 중관사상으로 대표되는 인도 대승불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불요의(不了義)로 칭했다. 여래장과 불성사상만을 분리해 요의(了義)로 천명했다. 이것은 성선(性善)에 기초한 불교 이론을 적극 발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로써 불교는 무명중생이라는 성악 코드에서 본래성불이라는 성선의 코드로 바뀌었다.

지관 그리고 화두

선불교가 등장하기 이전, 불교 수행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을까? 천태학에서는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결국 지(止) · 관(觀)으로 단언했다. 지관수행은 기본적으로 의식을 갈무리 하는데서 출발해 분석적 사유 과정과 반비례한다.

지관수행은 분석지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 중점을 둔 수행법이다. 분석지는 대상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을 낳는다. 그 오염원은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번뇌의 발생을 막는 첩경이라는 것이 지관수행자들의 세계관이고 자아관이다. 분석지가 올바른 인식작용을 방해해 대상을 왜곡하고 그것이 고(苦)의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봤으니 당연한 대책이다. 문제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분석지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데에 있다. 오염원이 확장되고 심화된다면, 지관을 통한 자정(自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수행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다녔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렇다면 북새통 세상 속에서 수행은 끝내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화두수행은 중국 불교도들이 창안한 대안 수행법이었다. 화두 들기는 화두라는 가상의 문제의식을 통해 의식의 자재(自在) 혹은 자유(自由)를 구현해 실상에 다가서는 수행법이다. 화두수행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것은 망령된 의식이 아니라 화두였다. 지관수행은 의식의 흐름이 본질적으로 불결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화두수행은 의식을 규정하지도 그것에 주목하지도 않는다.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 있는 한, 인간은 뜬금없는 의식에 끌려 실종되지 않는 것이다. 불순한 의식은 애당초 없었고 모든 의식은 기어코 온전한 것이다.

살활(殺活)과 기용(機用)의 교육론

간화선 수행에는 길이 없고, 지도(地圖)도 없다. 수행에서 스승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이다. 경험이 미숙한 주자(走者)들이 목표하는 시간대에 전 코스를 만족스럽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가 한다. 선불교의 교육은 깨침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직접 겨냥한다. 깨침은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라는 것이 선불교의 혁명적인 발상이다. 선(禪)은 독각(獨覺)을 지극히 경계한다. 독각은 대승불교 발생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선에서 심하게 문제 삼았다. 교육, 즉 스승과 제자라는 교육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깨침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깨침의 방식이나 과정 혹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은 살활(殺活)과 기용(機用)이다. 살과 활은 수행의 점점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죽이고 살린다는 말이 섬뜩하지만 생사대사를 목전에 둔 일이기에 절실하다. 제자의 상황에 따라 스승은 살이나 활 혹은 살활을 동시에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살은 부정적인 방식의 지도법이다. 엇나가거나 자만에 빠져 있는 제자에게 갑작스레 지청구나 면박을 주어 주눅 들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처방은 당연히 순간적으로 심한 모욕감과 반항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수행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수행자를 이끄는데 탁월하다. 제자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도과(道果)를 스승이 은연중에 노출하는 방식 역시 살이다. 이러한 처방은 간혹 소심한 수행자가 수행자체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행과정에서 지나친 의욕과 자신감에 차 있는 수행자에게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처방이다.

활은 긍정적인 방식의 지도법이다. 이것은 제자를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우는 내용이 기조를 이룬다. 수행에 진척이 없어 답답해하는 제자에게 격려하는 방식이다. 소심하고 완벽증에 빠진 수행자를 지도하는데 유용하다. 스승이 직접 낮은 단계의 도과를 은연중에 노출해 제자가 ‘저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다.

조선 말 백파긍선(白坡亘璇 · 1767~1852)이 모든 선적(禪籍)을 주의 깊게 분석한 <선문수경>에는 살활을 삼처전심(三處傳心)으로 보았다. 열반한 부처가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밀어 살과 활을 동시에 함께 보였다는 이치다. 부처는 가섭에게만 부촉했으니 그에게는 활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기척도 없었으니 그들에게는 살이라는 것이다. 백파는 기용(機用)에 대해서도 여래선에는 없고 오직 조사선에만 해당된다고 보았다. 기용은 살이 아닌 활 지도법으로 살활과 함께 대기원응(大機圓應)과 대용직절(大用直截)과 기용제시(機用齊施)를 요체로 한다. 기는 기틀이요 용은 기틀이 빚어내는 작용이다. 기틀이 제 틀만을 고수한다면 빚어진 것들은 온전치 못하거나 끝내 빚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틀은 소기(小機)일 것이어서 끝내 재료를 못 쓰게 만드는 살(殺)에 머무르고 만다. 마음 기틀이 촘촘할수록 대용은 더욱 어긋난다(心機愈密而大用愈乖)하지 않았던가.

살활제시(殺活齊示)의 공안

살과 활의 처방을 얼마나 적절히 구사하는지 살펴보면 간화선 수행지도자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선 수행은 수행지도자가 자기중심을 잡고 상대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수행의 출발이고 전부다. 지나친 자신감이나 소극적 자포자기의 마음 모두 수행을 지연하거나 멈추게 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해롭다. 그러므로 살과 활의 처방을 적재적소에서 기민히 사용해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지도의 핵심이다. 살과 활은 선수행이 중도(中道)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줄탁동시(啐啄同時) 교육론과 교육법의 실제야말로 살활의 공안인 것이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간화선 화두의 기능과 역할을 논한 학술대회가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살아지는 걸까?

【 내 인생은 내 뜻대로 】


수선재 엮음 / 236쪽 / 값 10,800원

명상학교 수선재의 스승인 문화영 님이 들려주는 “쉬운 깨달음” 이야기.
깨달음은 쉽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제껏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깨달음’이란 세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네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심심산중에서 면벽 수도하는 스님에게나 해당되는 용어라는 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도심 속 명상학교를 표방하는 수선재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밥 먹었니?”라는 말처럼 친근한 용어이다. 회사원, 교사, 주부, 자영업자 등 보통 사람들이 “나도 한번 깨달아 볼까” 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명상으로 건강, 마음의 편안함, 심력(心力, 마음의 힘)을 길러서 작은 일부터 아주 큰일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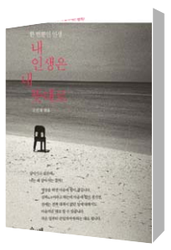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 내의 자종파 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라옵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年 10月 중
❀ 사무처 : (055)333-7678
(010-5521-7677)

佛記 2552年 6月 20日
창종준비위원 覺性외 10人 합장

불서읽기 캠페인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명상통해 아름다운 존재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수선재 엮음 | 수선재 펴냄 | 1만800원

살아가고 싶은데 왜 살아지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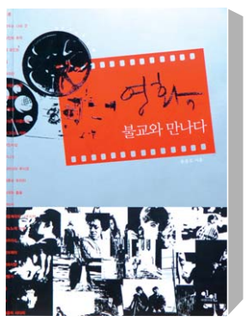
인생의 의미를 탐미하다보면 의연히 떠오르는 생각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묻는 이들에게 한 권의 책 <내 인생은 내 뜻대로>를 권한다. 과연 쉬운 깨달음이 있을까? 도심 속 명상학교를 표방하는 수선재에서 그 해답을 제안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명상'에 기반을 둔다. 명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며 마음의 힘을 길러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곧 수선재의 깨달음이다.

수선재 명상 수련가 문화영이 제안하는 일곱 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계에 이른다. 삶의 목표를 잃은 이들에게 숨겨진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길을 일러주는 가이드북이다.

가연숙 기자

영화가 불교를 만나 희망을 이야기하다

영화, 불교와 만나다 유응오 지음 | 아름다운인연 펴냄 | 1만2000원



카라멜 향기 가득한 팝콘을 들고 푹신한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가운 스크린에 모든 감각을 의지한다. 변방에 머무는 다양한 군상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꽃같은 시절을 펼쳐 보인다. 2시간 남짓한 현세의 시간에 농축된 이들의 파노라마에 자아를 투영해 본다. 팔만 사천 가지 무진한 인생사 또 다른 내가 그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동시에 내가 숨 쉬는 이 시대를 읽어낸다. 이렇듯 영화는 언제부턴가 삶과 동의어가 됐다. 그것은 영화가 바로 인간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책 <영화, 불교와 만나다>는 다양한 인간과 삶을 불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채롭게 비추며 대담한다.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변함없는 '영화의 사명'이 있다.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죽음이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인공이 선택한 최선의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꿈의 공장'에 비유한다.

무지의 캔버스에 풍경을 담듯 회화는 사진이란 장르로 진화해 세상의 순간순간을 기록해 왔다. 뒤를 이어 어둠상자 안에 빛을 나열하는 문명의 이기와 조우하며 비로소 영화는 탄생됐다. 빛과 잔상의 예술이 펼치는 영화는 시대의 이념과 정치 · 경제 그리고 수많은 작가의 고뇌와 정열을 고스란히 담으며 흡사 마르지 않고 샘솟는 기나긴 강처럼 200여년의 시간을 유유히 때론 격동적으로 흘러왔다.

"당신은 어떤 것이라도 영화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표현된 모든 것을 변호해야 한다." 프랑스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1930~)의 말이다. 역설적이게도 고다르의 말이 이 한 권의 책에 주목하게 한다. 감독이 미처 의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자가당착적인 진술로 발견해 가는 저자의 사유방식 때문이다. 불교라는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득 차오르는 달을 바라보는 저자 나름의 방식이 머뭇거림 없다. 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별된 영화 52편은 불교 소재의 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영화와 대중영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영화, 불교와 만나다>가 영화와 불교가 만나는 접점의 축으로 삼는 것은 '갈등'이다. 감독의 마음을 대변한 카메라의 렌즈가 포착한 세상을 무대로 인물은 사건의 기승전결을 밟아간다. <화엄경>의 '온 세상이 오직 마음뿐이니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도 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을 확인하듯 조곤조곤 인물을 좇는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인용하며 '현상으로서의 존재는 이미 어떠한 개시의 조건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의 개시가 된 것이며 하나의 나타남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저자는 영화감독이 그려낸 풍경의 잔상을 불교와 철학 심지어는 문학과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적 기반으로 파헤쳐간다.

저자는 영화와 불교를 한자리에 놓고 '성찰'이라는 주제로 화합한다. 주제별로 나누어 그 속에서 연기사상 · 유식학 · 화엄학 · 여래장 사상 · 선(禪) 불교를 용해하며 최종적으로 "영화란 무엇인가?"를 되돌려 자문한다. 영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그 틀이 진화된다 하더라도 저자가 변함없기를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과 인류를 향한 연민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라



경쟁으로부터 편안해지는 법
존 하팩스 지음 | 이소영 옮김
토네이도 펴냄 | 1만1800원

마음을 집어삼킨 현실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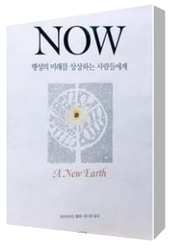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즐기며 완주하는 처세술을 담은 <경쟁으로부터 편안해지는 법>이다.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발휘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살며 인생의 승자가 되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지침서다.

결국 즐겁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숨 가쁘게 불안한 압박감으로 앞서나가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를 때다. 그리고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발견하라 한다. 행복의 비결이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경쟁으로부터 편안해지는 50가지 멘토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비로소 알게 한다.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끝없는 경쟁에 쫓기며 속도와 효율만을 앞세우다 영혼을 잃어버린 현대인을 위로한다.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열정으로 재충전 하고픈 현대인을 위한 유쾌한 필독서이다.

가연숙 기자

깨어나라 그리고 비상하라



NOW-행성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 류시화 옮김
조화로운삶 펴냄 | 1만5000원

21세기 현대의 영향력 있는 영적 교사로 추앙받는 에크하르트 톨레(Eckhart Tolle). <NOW-행성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현재 상태 즉 자신의 생각과 자아(ego)를 자신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어떻게 분노나 질투, 불행에 이르게 하는 장애를 만들어 왔는지 그 위협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붓다는 어느 날 꽃 한 송이를 들어 그것을 응시하며 '침묵의 법문'을 전한다. 수행승 마하가섭이 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니 선(禪)의 기원인 '염화미소'가 되었다. 찰나의 순간, 꽃은 식물의 깨달음인 것이다. 이로써 저자는 하나의 화두를 들어 보인다. "인류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물질주의와 물질적 존재가 가진 중력의 잡아당김을 뿌리치고 운명으로부터 비상하라"고 일깨운다.

내 안의 '인류'로부터 자유를 발견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지구에 현존하는 폭력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깨달은 인류의 출현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이며 행성의 미래라고 전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침서이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6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도법	불광출판사
7	인과경	현담	선
8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9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뜰	원철
10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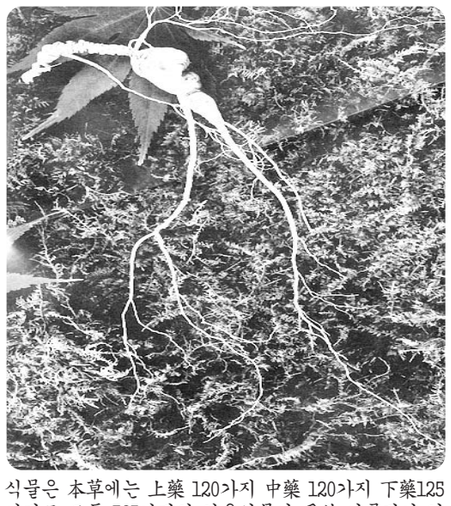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놀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譯者, 책을 말하다

깨달음의 차례 '차곡차곡' 설명



이 위대한 논(論)의 원저자는 여래께서 예언의 말씀을 미리 남기신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영웅 중에 한분이신 롭상닥바 쫑카파 대사다. 이 분의 위대함은 이 분께서 행하신 행적과 사업과 이 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논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 넓게 설한 것이 여기에 있다
롭상닥바 쫑카파 지음|도향 옮김|하늘북 펴냄|3만2000원

#깊은 견해의 전승과 크고 넓은 행의 전승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라는 전통은 인도의 성지에서 시작된 석가세존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여래의 지혜바라밀의 경에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의 전통이 빠짐없이 설해져있다. 어떤 식으로 설해져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보이신 견해의 차례와, 그 뒤에 도의 차제를 보이신 넓은 행의 차제가 있고, 그 위에 밀교의 차제가 있다. 이 밀교 또한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래께서 말씀하신 밀교를 밀교의 가피의 전승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의 전승에는 깊은 견해의 전승과 크고 넓은 행의 전승과 가피의 전승 셋이 있다. 즉 깊은 견해의 전승은 석가세존에서부터 문수보살에게로 전해져서 용수 보살과 월칭으로 내려 왔고, 크고 넓은 행의 전승은 석가세존에서부터 미륵보살에게로 전해져서 무착 보살과 사자현 보살로 내려왔다. 가피의 전승은 밀교의 삼도(三道)들이다. 이렇게 한 줄기씩 각각으로 흐르던 이들 전승들은 성스런 나란다승원의 대학장이셨던 아티샤 존자님에게로 모두 내려왔고, 아티샤 존자님께서는 티벳으로 가서 이들 전승 셋을 바탕으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뒤에 쫑카파 대사께서 그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넓게 해석해서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 대, 중, 소>를 지으셨다. 그렇기에 지혜바라밀의 경의 가르침인 보살의 방편과 지혜의 실천 모두가 빠짐없이 석가세존에서부터 인도 나란다에로, 나란다에서 티벳으로 그리고 지금 이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로 빠짐없이 전해져 와 있다.

#소장부에서 대장부로 나아가는 길

<보리도에 이르는 차제>는 실천적인 면으로는 처음 선지식을 의지하는 방식에서부터 보리도에 이르기까지의 차제가 모두 모여져 있다. 이것 또한 한 유정 중생이 어떻게 실천수행을 하는가 하는 방식이다. 장부셋[丈夫三]의 차례에서 그 자신의 마음의 힘과 능력에 부합해서 맞게 하는 것이다. 즉 처음 소장부(小丈夫)의 핵심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뒤에 마음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중등장부라고 부르고, 그 뒤 마음에 용기와 능력과 힘이 크게 생겼다면 대장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비유하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공부방법과도 같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과 대학으로 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장부셋'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 부류의 어떤 유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한 유정이 여래의 지위에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에 한 유정 자체 그 스스로가 소장부(小丈夫)이고, 중등장부(中等丈夫)로와 대장부(大丈夫)의 도(道)로 가는 것이다.

그 뒤 대승의 마음인 보리심을 일으킨 뒤에는 보리를 이루는 방편인 육바라밀을 행하고 바라밀행을 이루면 밀교의 수행 차제를 더해서 밀교의 관정과 밀교의 선정 등 부처로 나아가는 차례, 이들을 틀리지 않고 그 순서가 뒤섞이지 않게 행과 견해의 모든 불법 일체를 갖춘 도에 이르는 차제, 석가세존에서부터 그 전승과 전통이 끊어짐이 없이 전해온 가르침이 여기 이 논의 실천내용이다. 또 이 논은 아래 넷을 목차로 해서 모두 설해지게 된다.

#모든 불법을 이해하고 쉽게 얻는 힘

첫째, 논에는 모든 불법이 상반됨이 없이 이해되는 위대함이 있다. 즉 소승에서부터 대승, 보살승과 바라밀과 바라밀행과 바라밀 끝에 들인 지관(止觀)과 밀승인 금강승에 이르기까지 한 유정이 부처 이루기까지의 차례를 안배하신 여래의 가르침을 뒤바뀌지 않게 차례 그 같이 모아서 이끌었기에, 이 논에는 모든 불법이 상반됨이 없이 이해되는 위대함이 있다.

둘째, 논에는 모든 경전이 요지(要旨)의 가르침(요지의 가르침은 경과 또 경전의 내용과 일치는 대학자들께서 허락을 얻어 저술하신 論과 疎를 말한다)으로 드러나는 위대함이 있다. 즉 스승을 모시는 방법에서부터 위파사나[觀]까지 경·논에 있는 도(道)의 모든 핵심을 갖추고, 간추려서 이들 모두에 지(止)를 수행(修行)해야 하는 것들에는 지(止)를 수행(修行)하게 하고, 분석해서 수행(修行)해야 하는 것들에는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妙觀察智]로써 분석하고, 실천하는 차례를 모아서 이끌었기에 모든 경전이 요지의 가르침으로 드러나는 위대함이 있다.

셋째, 논에는 승리자의 사상을 쉽고 편하게 얻는 위대함이 있다. 즉 경·논 등의 위대한 경·논들이 요지의 가르침의 최상이라도 완전히 익히지 않은 초학(初學) 중생은 올바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머물러도 그 뜻을 얻을 수 없고, 설사 얻게 되더라도 아주 긴 시간과 매우 큰 어려움에 의지해야 하지만 곧 가르침 여기에는 경과 논·소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베풀었기에 여래의 사상을 쉽고 편하게 얻게 되는 위대함이 있다.

넷째, 논에는 큰 죄행이 저절로 막아져 가는 위대함이다. 즉 앞의 위대함 셋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법을 비난하는 등의 큰 죄행이 저절로 막아져 가기에 큰 죄행이 저절로 막아져가는 위대함이 있다.

#티베트 글 직접 번역 탐독하면 친숙해져

그렇기에 이 논은 한쪽의 종파로 치우쳐 내려온 가르침이 아닌 일체 모든 불법이 정통으로 전해온 근본이고, 불보살께서 증명하시고 인(印)을 찍으신 것이기에 누가 읽게 되어도 크게 가피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에 이 논을 다른 말로 '논 중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울러 이 논은 영어나 한문본을 번역한 것이 아닌 티베트 글을 번역한 것이기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설하는 방식이 처음 읽는 이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오히려 티벳 글은 우리와 같은 어족의 문화권이기에 한 두 차례정도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면 금방 친숙해지리라고 생각한다. 또 혹시 한문과 대조해서 볼 기회가 있다면 한문이 가지고 있는 장단을 볼 수가 있어서 더 한층 깊고 넓게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읽는다면 분명히 이익이 클 것이라 생각해서 간략히 소개했다.

도향(남인도 티베트 사원에서 정진 중)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보조지눌 지음|김달진 옮김
동화출판사 펴냄|1만8000원

지금 불교계에 필요한 결사는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한 시대의 사조(思潮)도 풍습도 결국 변화를 피할 수 없고 종말을 향해 가지 않을 수 없다. 불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세워진 고려도 멸망의 길을 피하지 못했다. 고려시대의 불교도 한 왕조의 몰락에 깊이 얽혀있었다. 공부하는 풍토가 변하고 시절 인심이 변하는 가운데 고려불교의 정체성도 멍울처럼 흐릿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몰락의 시절엔 남 보다 일찍 몰락을 예감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의인도 나온다. 고려불교의 말기적 징후 속에서 피어난 의로운 꽃한송이, 보조지눌 스님이다. 지눌 스님의 결사운동은 한 시대의 종교와 풍속과 국운을 부여잡은 몸부림이었다.

그 몸부림을 독려하는 지눌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알알이 스며든 글들.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계초심학인문'까지. 이 금강석 같은 글들은 해 저무는 고려조의 불교계에 불성을 발현하여 세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친 승단이 건재했음을 보여주고 남는다.

지눌 스님이 주창하고 이끈 결사운동의 저력이 고스란히 담긴 글은 '권수정혜결사문'이다. 앞부분부터 한 대목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날의 불교계 현실, 시국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온 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지눌 스님의 글을 읽으며 수시로 물어 보라. '지금 불교계에 필요한 결사는 무엇일까'를.

"우리들의 소행을 아침저녁으로 돌이켜 보면 어떤가? 불법(佛法)에 핑계하여 '나'다 '남'이다를 구별하여 이양(利養)의 길에서 허덕이고 풍진의 가운데 골몰하여 도덕은 닦지 않고 의식(衣食)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아아, 삼계를 떠나려 하면서도 속세를 벗어난 수행이 없고 한갓 사내의 몸이 되었을 뿐이요 장부의 뜻이 없어 위로는 도를 닦는데 어긋나고 밑으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며 중간으로는 네 가지 은혜를 저버렸으니 진실로 부끄럽다."

지눌 스님의 부끄러움이 오늘날 우리 불교계에는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이미 참회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지눌 스님의 글들에 눈길이 가고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울 수 있 것은 선지식의 간절한 염려가 8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귓전을 때리기 때문이다.

지눌 스님이 주창하고 이끈 결사운동의 저력 담겨
선지식의 간절한 염려가 오랜 시간을 넘어 전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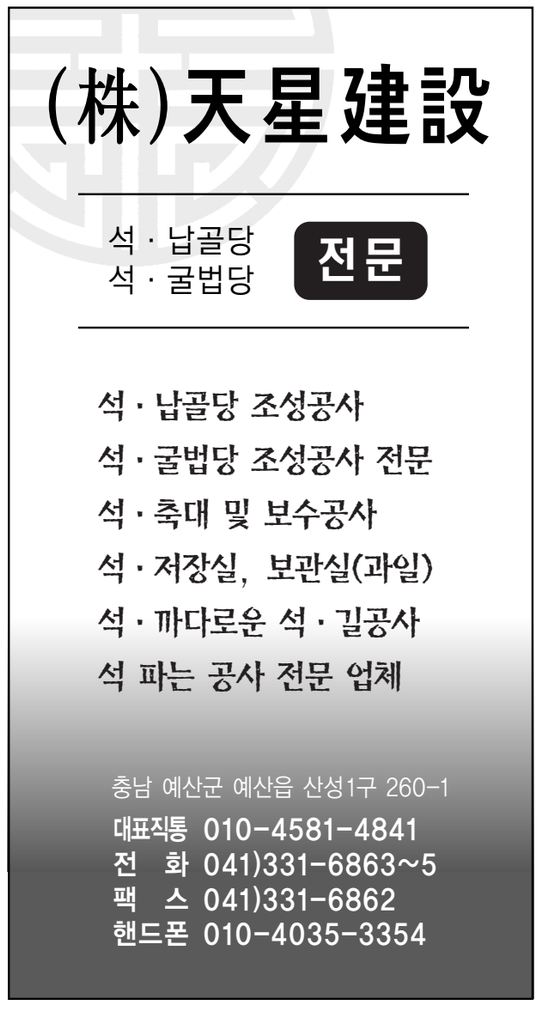
동화출판사가 새롭게 기획한 '한국의 사상대전집' 시리즈의 기치도 '고전에서 미래를 읽는다'이다. 옛 선지식의 글을 통해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탐색해 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다.

지눌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길어 올리는 길, 김달진(1907~1989)의 안내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다. 금강산 유점사 등에서 입산 수도를 했던 큰 학자이며 시인인 김달진이 느낀 지눌 스님의 간절지심이 오늘날 이 한권의 책으로 다시 세상의 문을 두드린다.

임연태 기자









정법 바로 보는 눈, 깨달음 기반

오늘의 禪語 ㊱ 정법안장

선종의 뿌리 '염화미소'에서 시작돼
선의 바른 안목, 지혜눈이 열려야 가능

'정법안장(正法眼藏)'은 '정법의 눈을 간직하고 있음' '바른 법안을 간직하고 있음'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보다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둘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 셋째, 정법(진리)을 볼 수 있는 바른 안목(正法眼). 넷째, 불교의 진리를 완전히 체득해 올바른 가르침(正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등.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날 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두 번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한 '정법(진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안목)'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와 정법(진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란 어떤 것일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존재의 실상(존재의 귀결처)에 대한 파악입니다. 즉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무아이며, 인연의 법칙에 의하여 생성 소멸하는 존재, 즉 '공(空)'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법(진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란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으로, 즉 '일체는 모두 다 공한 존재(一切皆空)'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법(진리)이 무엇인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실상은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안목을 '정법안(正法眼)' 또는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반야지혜(般若智慧)'라고 합니다.

'정법안장'이 처음 등장하는 경전은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의문 나는 점을 물었다고 하는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모아 놓고 설법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상에 올라가 한참 침묵하고 계시다가 꽃 하나를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습니다. 모든 대중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모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가섭존자가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을 향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께서 꽃을 든 진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제자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열반묘심'은 '깨달음을 얻은 마음의 경지는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의 심오한 이치는 언어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것은 바로 선(禪)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拈華微笑,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자 마하가섭이 미소를 짓다)'의 고사로서 다른 말로는 '염화시중(拈華示衆,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이란 그 의미가 둘째의 해석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범천왕문불결의경>에 있는 말인데 이 경 자체가 위경(僞經, 후대에 만든 경전)이므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염화미소가 시사하는 바는 선(禪)이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진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학보다 우월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픽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종(禪宗)의 뿌리는 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안목이 없으면 그는 눈을 뜨고 있어도 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안목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사유가 깊어야만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참선수행도 마찬가지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이 없으면 실수를 반복하고 했던 일을 또 고치는 이중 삼중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리를 해석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탐구하는 일도 안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안목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도달한 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선의 바른 안목 즉 '정법안'은 지혜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법안장(正法眼藏)'을 해석할 때 이 네 자를 어떻게 끊고 붙여야 할지 좀 고민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선 '정법(正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른 진리'가 되고, '정법안(正法眼)'이라고 하면 바른 법안으로서 '정법(진리)을 볼 수 있는 올바른 눈(眼)'이 됩니다. 그리고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 하면 '정법(진리)을 볼 수 있는 올바른 눈(眼)을 간직(藏)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법안(法眼)' '혜안(慧眼)' '불안(佛眼)'과 동의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경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참 독경

경전 읽고 외우는 간경 · 독경 훌륭한 수행방편
10세부터 '관음경' 줄줄 … "심등은 어디 있나?"

향련

신라시대 서라벌에 남편 박신(朴信)과 부인 설씨(薛氏)가 왕성 밖에서 조그마한 상점인 연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십 초반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애 태우던 이 부부는 어느 날 관음사에서 백일기도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눈길에 쓰러진 걸인행색의 노파를 구해주었다.

사십에 과부가 되고 오십에 두 눈 마저 멀게 된 이 노파는 떠돌이 생활 가운데서도 <관음경>(<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항상 외워서, 거꾸로도 외울 정도로 통달한 상태였다. 박씨 부부는 의지할 데 없는 노파를 양어머니로 모시고 살면서 <관음경>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고, 날마다 밤이면 셋이서 <관음경>을 외우며 뜻을 새겼다.

그렇게 삼년이 흐른 어느 봄날, 노파는 설씨부인에게 "주인댁 뱃속에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아침 자기 방에서 <관음경>을 앞에 놓고 요위에 단정히 좌선자세로 앉아 숨을 거두었다.

노파가 죽고 나서부터 설씨의 몸에 태기가 왔다. 부부는 열달만에 천금과 같은 딸을 얻었고, 이름을 향련(香蓮)이라고 지었다. 향련은 커갈수록 선녀와 같은 미모와 총기를 보였다. <관음경>을 외우는 것은 물론이요, 열살 때부터는 대장경을 혼자서 읽고 이해했다. 글방의 선생이 놀랐고, 효심이 깊어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어느 날, 길에서 향련이 대각 선사를 만나 선문답을 펼쳤다.

"법화경에 '용녀성도(龍女成道)'이야기에 의하면, 용녀는 8세 때 부처님께 보주(寶珠)를 바치고 득도하였다는데, 저는 지금 열 살 나이로서 보주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대각 선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것을 물으려면 선방으로 오너라."

"승속(僧俗), 산천이 도량 아닌 곳이 없사오니 제 질문에 어서 대답해주세요."

어물어물하는 대각 선사를 본 향련은 날카롭게 할(喝)을 하고, 선사가 수하고 있는 가사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한 번은 향련의 나이 열 여섯, 사월 초파일 때 일이었다. 절에 올라가니 한 스님이 신도들에게 등(燈) 시주를 청하고 있었다. 향련은 그 스님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스님, 이 절에 장식한 무수한 등에서 어떤 등이 제일 밝나요?"

"불전에 걸어 놓은 비싸고 큰 등이 제일 밝지."

"불등(佛燈)은 많은데 심등(心燈)은 어디 있나요?"

"……."

향련은 그 스님의 머리를 주먹으로 두 대 갈겼다.

뜻밖의 봉변에 스님이 화를 내는데, 이를 지켜본 대각 선사는 미소지을 뿐이었다.

향련의 나이 열일곱이 되던 해 양친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향련은 양친을 위해 불전에 지성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그후 아름다운 향련에게 지체 높은 집에서 혼담이 무수히 들어왔지만, 그녀는 결혼에 뜻이 없었다.

어느 화창한 봄 날, 향련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방안에서 <관음경>을 앞에 놓고 단정한 좌선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향련의 치마폭에는 게송이 적혀 있었다.

"나는 본래 속세 떠난 임천(林泉)의 벗이었는데/ 인연 따라 홍진(紅塵)을 밟았네/ 이제 속세에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십일면관음보살로 돌아가려네."

향련의 시신은 대각 선사가 정중히 거두어 다비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한 줄기 서광(瑞光)이 하늘을 찌를듯 하더니, 그 빛줄기는 관음사 쪽으로 사라졌다. 향련의 몸에서는 오색의 사리가 무수히 쏟아졌다.

이상은 <관음경>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일심으로 경전을 읽고 외우는 간경(看經)과 독경(讀經) 역시 훌륭한 수행방편임을 보여준다.

육조 선사는 제자 법달이 문구 외우는데만 급급해 헐떡거릴 뿐 번뇌망상의 분별심을 쉬지 못함을 보고, "참 독경이란 경의 뜻이 마음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것을 보살"이라 하였다. 지식을 좇아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게송 하나라도 깊이 새기고 몸소 실천해 깊은 뜻을 스스로 체득해야 참다운 수행이라 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능엄경'=**합천 해인사가 9월 27일 오후 2시 보경당에서 제18회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능엄경>에 대해 지안 스님(은해사 승각대학원장)이 법사로 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며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한다. (055)934-3000

●**백고좌법회 회향 산사음악회=**대구 법왕사가 9월 29일 오후 7시 대광장에서 백고좌법회회향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범능 스님,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대구시립합창단 수석테너 정무시, 카페음악 김난영씨 등이 출연한다. 이어 30일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해인사 율주이신 종진 스님을 모시고 제18회 보살계 수지대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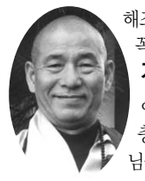
●**선운문화제=**고창 선운사가 9월 27~28일 제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27일 오전 10시 '보은염이운행사'를 시작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영산대재' '전통다례시연 및 시음회' '산사음악회'가 연이어 열린다. 28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는 선운사의 역사와 고승대덕의 행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063)561-1422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패철 보는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좋수지리 아카데미 제작
나경 사용법
전용 원지음
연습용 19층 갈라 나경 도해 삽입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본문 전체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서울 중구 광희 2가 303-15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대폭 할인 서비스 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기간 :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 (1개월)
"이름 대사전"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할 수 있음.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림. 정가 : 50,000 ⇨ 4만원(각권)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한글 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 · 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제4권 : 장의편 12,000원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아픔도 기쁨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고려대장경을 모셔 놓은 장경판전 앞에 섰다. 살틈에 눈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팔만여장이나 되는 경판이 판가(板架)에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 눈에 들어온다. 팔만여장의 경판들은 삼년동안 바닷물에 담가두었던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이 일배(一拜)하고 경판에 글자 한자 새기고 또 일배하고 한자씩 새겨나가기를 반복하여 새겨진 글자의 수가 오천이백만자에 이르며, 걸린 세월은 무려 십육년이나 된다. 그들의 정성이 하늘과 땅에 맞닿았고 그들의 염원이 하늘과 땅에 사무쳐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던 나라를 구한 것이다. 13세기에 제작된 고려대장경은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장경판전 옆 2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 머무시면서 오직 판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스님 한 분이 계시니 바로 관후 스님이다. 관후 스님은 자신의 법명대신 직책인 ‘장주스님’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다른 이들도 또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장주스님은 여덟 살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갑사로 간 것이 바로 출가의 길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부모를 일찍 여읜 박복한 손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행상으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가는 할머니로서는 무엇 하나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다. ‘손자를 절에 팔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주지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갑사에 맡겼다. 낯선 곳에 혼자 두고 간 할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워 어린 손자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속가 집을 떠나 갑사로 왔지만 배고픔은 여전했다. 그래도 갑사에서 열일곱까지 십년 가까이 행자생활을 했으니, 스님의 심전(心田)이 어지간히도 무던했나 보다.

갑사에는 장주스님을 포함한 동자승이 아홉 명 있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죽을 쑤어 먹고 점심 한 끼만 밥을 먹었다. “죽을 푸고 난 솥에 아홉 명이 달라붙어 손가락으로 훑어먹다 보면 솥을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해졌다”고 그 시절을 회상하는 스님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나는 그때 이미 중노릇 다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때 중노릇을 잘한 까닭에 내가 이렇게 장경판전을 지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완물상지(玩物喪志)라, 이젠 시절이 바뀌어 물질이 인간을 희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 장주스님은 무엇 하나 귀한 줄 모르고 풍족하게 사는 요즈음의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좀 되라고 색이 바래고 낡은 가사장삼을 입고 있다. 여기 저기 누덕누덕 기운 장주스님의 가사장삼을 보니 부처님 당시의 일화 한편이 떠오른다.

우전왕의 왕비가 500벌의 가사를 아난존자에게 보시했다. 그때 왕은 아난존자에게 “이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물었다. 아난존자가 “여러 스님께 나누어 드릴 것”이라 답하자, 왕은 “그러면 그 입던 옷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또 다시 물었다. 그에 대한 아난존자의 대답은 이러하다. “입던 헌 옷으로 이불덮개를 만들고, 헌 이불덮개로는 베갯잇을 만들 것이며, 헌 베갯잇은 방석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며, 헌 방석은 발수건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헌 발수건은 걸레로 만들 것이며, 헌 걸레는 잘게 썰어 진흙과 섞어서 벽을 바르는데 쓰겠습니다.”

> 인욕 바라밀 배우려면 탁발만한 것이 없어
> 역사 공부 소홀히 하는 학생 보면 안타까워
> 출가자는 검박하게 살아야 대중의 빚 갚는 것

선지식을 찾아서 관후

출가자들은 보시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검박한 생활을 해야만이 대중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것이 장주스님의 생각이다. 누구보다도 탁발을 많이 했던 스님은 “탁발을 해보아야 입안에 들어가는 쌀 한 톨 과일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으며, 인욕바라밀을 배우고 증진시키는 방편으로는 탁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

1986년 해인사 장경판전 장주 소임을 맡았다. 그 세월을 헤아려보니 스무 해도 훨씬 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처님 전에 새벽 예불과 함께 백팔참회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 예불 후 장경판전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일과를 마무리 한다. 장경판전을 지키는 소임이 어떤 소임보다도 그 책임이 지중한 것임을 알기에 장경판전의 열쇠가 스님의 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장경판전을 열 일이 있으면 직접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 모셔진 경판이 팔만장이나 되지만, 한 글자도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 없이 완벽해요. 그리고 경판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아요. 경판을 보면 환희심이 절로 나지. 판전을 지을 때 땅 밑에 숯과 소금을 몇 층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벌레가 꾀지 않고 습기가 차지 않아요.”

판전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통풍도 잘 되고, 실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등 지금 현대 과학을 총 동원하여 새로 짓는다 해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한다. 장경판전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시는 스님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어느덧 자부심으로 가득 차있다.

“일본학생들도 이곳을 많이 방문해요. 일본학생들은 가이드나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수첩에 일일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지도 않고 장난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라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전 한국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학교 공부만을 제일로 치고 이런 문화재나 역사 공부는 소홀히 하니 큰일 아닙니까?”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7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지만, 목재의 최대 수명이 천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장주스님은 요즈음 걱정이다. 지금은 법보전 등 일부는 오픈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발자국과 훈김조차도 목판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에 앞으로는 장경판전 전체를 폐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장주스님은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아직 회복이 끝나지 않았는지 침침하게 보인다면서 육신의 노쇠함이야말로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한다. 육신의 노쇠야 그닥 중요하지 않는데, 금생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단다.

“세상의 온갖 호사스런 부귀영화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슬픔도 언젠가는 끝이 있으며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도 같아요. 그러니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머물지 않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때가 바로 공부할 때임을 알아차려야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장주스님은 “그래도 전생에 반푼어치의 복이라도 지었기에 불제자로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활짝 웃으신다. 거기다 또 반푼어치의 복을 보탠다면 수십 년을 장경판전의 장주소임을 맡은 것이라 하니 관후스님은 하늘의 소명을 받잡고 온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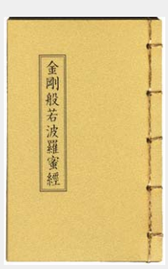




관후 스님 (해인사 장경판전 장주)

갑사에서 혜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86년 해인사 장경판전 장주 소임을 맡아 오늘날까지 이십년 넘게 해오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불상량 소장의식 영가사용 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6 가지소박이김치

가지는 옛날부터 세계각지에서 가꾸는 야채 중 하나로 품종 또한 다양하다. 훌륭한 채소일 뿐 아니라 약품으로도 널리 쓰이는 가지는 성질은 차가우며 지혈과 소종(消腫) 작용을 한다.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이 가지 삶은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압을 완화하고 해독 작용에 탁월해 아픔을 멎게 한다.

또한 가지는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가지 삶은 물 혈압 완화 · 부종 · 해독 · 이뇨작용 탁월

영양가 낮지만 식탁의 벗으로 애용된 이유 '고운 빛깔'

통증을 멈추고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며 이뇨작용 등에 효과 높다. 오장의 기능이 쇠약하거나 구강 내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좋다. 생가지를 잘라 얼굴에 자주 문지르면 주근깨도 엷어진다. 마른 가지 잎을 갈아 따뜻한 술이나 소금물에 희석해 마시면 빈혈을 치료한다.

가지 줄기는 검은빛 도는 짙은 보라색으로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다. 길이 15~35cm로 잎자루가 있고 끝은 뾰족하다. 꽃은 6~9월에 피며 줄기와 가지의 마디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 여러 송이 연보라색 꽃이 달리고 꽃받침은 자줏빛이다. 열매 모양도 달걀 · 공 · 긴 모양 등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주로 긴 형태의 가지를 재배한다. 보통 길이는 30㎝고 굵기는 3.5㎝정도 크기다.

영양학적으로는 보잘 것 없어 과채류 가운데 가지의 영양가가 가장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에서 식탁의 벗으로 애용된 까닭은 가지 고유의 고운 빛깔에 있다. 식품의 가치란 꼭 영양가만 갖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지는 영양분이 적은 식품이지만 기름 흡수를 잘해 튀김에 알맞은 채소다. 식욕이 떨어졌을 때 튀김으로 요리하면 칼로리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다.

산촌 (02)735-0312



가지소박이김치 재료 : 가지, 미나리, 무, 당근, 찹쌀가루,

만드는 법

① 가지는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어 사각으로 칼집 낸 후 소금물에 절인다.
② 미나리는 줄기만 다듬어 5㎝로 썰고 무와 당근도 같은 길이로 채 썬다.
③ 미나리 · 무 · 당근을 소금 간해 생강즙과 통깨를 넣어 간을 맞추고 살살 무친다.
④ 소금물에 숨죽은 가지를 꺼내 한번 행구고 야채소를 칼집 내 가지사이에 넣는다.
⑤ 아주 묽게 죽 쑨 찹쌀가루로 간을 맞춰 완전히 식힌 다음 가지를 깊은 그릇에 담아 식혀 찹쌀 물을 부어 삭혀 먹는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10

당뇨 치료 뛰어난 뽕잎차 중국에도 알려

남산 칠불선원 가까이 있는 이들은 불사와 탑 복원도 된다고 하니 한번쯤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천년 향을 가진 신라의 탑과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의 향을 동시에 느낄 남산 칠불선원은 경주에 수행 문화가 정착하는데 일등 공신이 될 것이다.

남산 칠불선원과의 인연은 뽕잎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행하는 이들은 언제나 건강에 어려움이 따른다. 불도에 정진하다 보니 제 몸 살필 겨를이 없다. 해서 뽕잎차를 들고 남산 칠불선원을 찾아 공양을 했다.

녹차를 주로 마시는 스님들이 처음 뽕잎차를 맛보고 모두들 극찬해 몸 둘 바를 모르기도 했다. 녹차를 주로 마시던 스님들이 녹차보다 좋다며 뽕잎차를 찾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피었다. 철마다 스님들이 뽕잎차를 마실 수 있게 금강선원에서 대중공양을 올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후 남산 칠불선원을 찾을 때면 뽕잎차를 들고 나선다.

선방에서 인연된 서강 스님과 작년 중국 상해의 태안사를 찾았다. 서강 스님과 환희심 보살 인연으로 찾은 태안사는 타국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이 불심으로 모여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곳이다. 한국인들이 많은 상해에 태안사라는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부처님 제자로 불도를 닦는 나도 작년 그곳을 찾아 서강 스님과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서강 스님은 해제 때마다 태안사를 찾아 법회를 열고 그곳 교민들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했다. 그러던 차에 작년 봄 태안사를 찾은 이후 오늘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금강선원에서 제다한 뽕잎차는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서도 호평받고 있다.

평소 당뇨로 고생하던 서강 스님에게 뽕잎차를 드린 적이 있다. 뽕잎차가 당뇨에 좋다는 <동의보감> 내용이 떠올라 걱정 어린 마음을 담아 드렸다. 그때 뽕잎차를 맛본 서강 스님이 한결 몸이 좋아졌다 칭찬했는데, 상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나보다.

태안사 신도들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차를 상해에서도 마시고 싶다"고 성원해 올해는 태안사에 뽕잎차도 가져갔다.

해외에서도 포교하게 돼 기뻤다. 더 기쁜 것은 태안사가 올해 확장 이전 개원을 한다는 소식이다. 올해는 통도사 극락암에서 수행 중인 서강 스님을 대신해 동화사 한주로 계시는 원혜 스님과 함께 태안사를 찾았다. (055)931-9590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③ 홧병2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명상& 마음치유 연구소

'자비명상' 통해 자애로운 충만 발견하기

화내는 횟수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 행복과 자비

필자는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라 믿는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여건이나 교육 또는 사상과 무관하다.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충족감을 원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비'다.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 그들과 다시 하나 되게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듯, 그들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기가 훨씬 쉬워진다.

 # 시원한 쿨(cool)과 따뜻한 웜(warm)

요즘은 쿨한 것을 최고로 여긴다. 쿨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 즉 마음가짐과 한 생각을 웜(따뜻함)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쿨함은 자르고 정리하고 심플하게 만들지만, 포용하고 감싸 안고 넉넉하게 채워주지 못한다.

 # 자비(慈悲)란?

자(慈, metta)는 '남을 기쁘고 안락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비(悲, karuna)는 '남의 고통과 슬픔을 없애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사랑할 자에는 어머니와 자식의 의미까지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한없는 은혜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의 대표적 상징이다.

무엇보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 충만할 어머니가 '홧병'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면서도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지 가히 미루어 짐작된다.

서양에는 '홧병'이라는 진단명이 없다. 미국 정신의학회서는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학적 질병 개념으로서 '홧병'을 공인했다. 홧병은 화가 나도 표현하기보다 대개 '체념'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거쳐 '한(恨)'으로 뿌리내리는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 구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다.

어머니들이 가진 무한한 사랑의 샘을 무한정 자식과 남편에게 쏟아 붓다보면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기 일쑤다. 실망은 억압된 분노를 부르고 한계에 이르면 우울증 등 증세를 보인다. 결국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몸의 열기가 불안 · 한숨 등으로 표출되면서 홧병 증세가 나타난다.

 # 홧병의 최고 치료약 '자비명상'

이런 고통을 이겨낼 가장 좋은 치료약이 있다. 바로 자비심이다. 자비심을 풍요롭게 하며, 따뜻한 웜(warm)의 포용력을 증진시키고, 화의 근본 에너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비명상'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일단 본인을 위해 <청정도론>에서 언급한 다음의 발원문을 기도한다.

 # 자비 충만을 위한 발원문

나를 괴롭히는 원한이 없기를,
나를 괴롭히는 악의가 없기를,
나를 괴롭히는 근심이 없기를,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없기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를.

이 기도문을 1. 나를 향해 2. 내가 존경하는 이를 위해 3. 내가 좋아하는 이를 위해 4. 나와 무관한 생명을 위해 5.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를 위해, 순서에 맞춰 명상한다.

이 기도문을 수시로 반복하고 염원하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화가 줄고, 문득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수도 있고, 따뜻하고 자애로운 감정이 충만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02)576-7575 (계속)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대담-제1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이승훈 시인

“시쓰는 행위 자체가 禪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시와세계사가 선시의 새로운 해석과 현대선시 부흥을 기치로 걸고 공동 제정한 ‘이상시문학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이승훈 시인(한양대명예교수)이 선정됐다. ‘이상시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상(賞)의 제정을 선포한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 8월 26일 코리아나호텔의 한 식당에서 최종심사를 해 선정자를 확정했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이승훈 시인에게 수상소감과 이상(李箱) 시의 계승 문제 등을 물었다.



Q 첫 수상자라는 것이 영광과 부담을 함께 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A 그동안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상시문학상’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상입니다. 내가 이상의 시를 처음 만난 것은 고교 시절이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이상의 ‘아침‘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읽은 시들은 김소월, 청록파 등의 시였고 이상의 시는 이런 시들과는 다른 세계를 다른 형식으로 노래하고 특히 그가 ‘아침’에서 노래한 식민지 시대 병든 청춘의 내면은 당시 어둡던 가정환경과 우울한 사춘기의 저의 내면과 통했기 때문이죠. 폐결핵에 시달리는 황폐한 내면을 노래하는 이 시의 후반에는 ‘코 없는 밤’은 다시 오지 않을 듯이 아침 햇살이 비친다는 시행이 나오고 이 ‘코 없는 밤’은 그 후 내 시의 화두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은 내 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면을 노래한 그의 시는 한 마디로 자아 탐구의 세계이고 이게 현대성과 통합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한 세계 역시 자연 찬미나 현실 비판이 아니라 자아 찾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의 시가 보여주는 실험성, 전위성, 아방가르드 정신입니다. 아방가르드는 전통적 미학을 부정하고 언제나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고 나 역시 45년 동안 그런 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이름으로 받는 상은 의미가 크고 영광입니다.

Q 선생님께서는 올해로 등단 45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간 쉼 없이 시를 쓰고 연구해 왔는데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나는 고교 시절에 서정시를 끝내고 등단 후 특히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자아 찾기가 화두였죠. 따라서 나에게 시는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자아 찾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동기로 하죠. 그런 점에서 나의 경우 시는 자아를 찾아가는 도구였습니다. 45년 동안 이런 자아 찾기는 초기엔 자아 찾기, 중기엔 자아 소멸, 후기엔 자아 不二로 발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간 셈이고 후기에 깨달은 건 나는 없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중도, 불이(不二)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나는 시를 쓴 게 아니고 시를 쓰면서 자아가 소멸하는 과정, 아니 자아 불이와 만난 셈입니다. 결국 시쓰기는 마음을 비우는 행위이고 그런 점에서 수행이고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아도 없고 대상도 없고 언어도 없는 시쓰기, 자칭 ‘영도의 시쓰기’를 생각하고 시론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쓰기는 목적도 방향도 의도도 무슨 의미도 없이 그저 쓰는 행위만 있는 시쓰기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 자아 해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한 마디로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놀고 그런 무아의 세계가 선과 통합니다. 시는 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선이 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45년 동안 시를 쓰며 깨달은 건 시는 없다는 생각이고 시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문단의 흐름은 서정시가 주류지만, 실험적인 시들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문학이 연구가 아닌 창작의 계승 차원에서는 그다지 활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인, 교수, 이론가로서 내가 관심을 둔 분야는 한국 현대시, 특히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시의 문제였고 그런 문제를 다룬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예컨대 ‘모더니즘시론’, ‘포스트모더니즘시론’, ‘한국모더니즘시사’. ‘한국현대시론사’, ‘현대시의 종말과 미학’ 등의 저서가 그렇죠. 이상이 보여주는 세계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아방가르드 정신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 현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모더니즘은 온건하고 아방가르드는 과격합니다. 전자가 제도권 문화를 수용하면서 반전통적인 미학을 추구한다면 후자는 제도권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죠. 모더니즘이 시와 일상을 분리하고 시적 특수성을 강조한다면 아방가르드는 시와 일상의 경계를 해체합니다. 문예사조적인 면에서 아방가르드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를 발전시킵니다.

나는 언젠가 이상시의 계보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그때의 내용을 참고하면 1930년대의 이상은 1950년대의 김춘수, 김수영, 조향 등으로 계승되고 1960년대의 김영태, 이승훈, 오규원 등으로 계승되고 1980년대의 이성복, 황지우, 박남철, 최승호 등으로 계승되고 1990년대의 송찬호, 김언희, 박상순, 박찬일 등으로 계승되고 21세기 신인들은 대체로 문제 의식이 있는 시인들은 이상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합니다. 특히 선시(禪詩) 계열에 드는 조오현 스님, 송준영 같은 시인들은 선과 아방가르드의 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고 역사는 차이이고 따라서 이상시의 계보 역시 이런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전통 서정시가 주류인 우리 시단에선 이런 시인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시는 언제나 외로운 소수가 하는 작업입니다.

Q 이상의 시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이상의 시는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는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의미에 절망하고 삶에 절망하고 이런 절망이 풍자와 유머와 유희의 세계를 낳습니다. 한 마디로 절망의 유희죠. 사실 현대시는 무슨 도덕적 진리나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의 미세한 구석을 보여주고 이런 보여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리와 만납니다. 그런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예술이 그렇죠. 우리 시인들은 너무 말이 많은 게 탈입니다.

Q 아방가르드 문학의 계승과 현대 선시의 계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계승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시인들의 의식의 문제이고 아방가르드와 현대 선시의 문제는 21 세기 우리 시의 화두입니다.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한 취지가 아방가르드와 선의 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선시 혹은 선적인 취향의 시들이 보여주는 한계는 이른바 현대성이 없다는 점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 선승들이 노해한 투로 꽃이니 나무니 고요니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상투적인 시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디로 삶의 냄새가 없는 죽은 시들입니다. 물론 나는 선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방가르드가 위대한 반칙의 세계라면 선 역시 위대한 반칙의 세계, 곧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 질서, 법, 규칙을 깨는 세계이고 이런 반칙의 세계가 깨달음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시는 이런 반칙을 모르고 대체로 규칙, 정형, 주류를 추종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가 말했듯이 예술은 축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반칙의 위치에서 득점하기 때문이죠.

나는 최근에 무산 오현 스님의 시집을 다시 읽고 ‘조오현 시조의 실험성’ (시와 세계, 2008, 여름호)이라는 제목으로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읽은 바로는 오현 스님의 시는, 특히 산문시는 비단과 칼, 시와 선의 경계가 해체되는 세계이고 나아가 일상의 세계도 해체됩니다. 한 마디로 선이 녹아 시가 되는 경지죠. 이런 시는 선의 도구가 아니고 한편 선이 시의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이 오현 스님의 실험성, 전위성, 아바가르드 정신입니다. 현대 선시의 현대성은 이런 전위성과 선불교의 중도, 불이 사상의 회통을 요구합니다.

Q 지난해 한양대학교에서 정년 퇴직 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A 교수라는 직업이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강의 억압, 연구 억압, 행정적 잡무 등 나처럼 소심한 인간에겐 억압이 심했어요. 은퇴 후 좋은 건 이런 억압에서 벗어난 점이죠. 이젠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싶어요. 노는 게 최고죠. 시는 결국은 언어 유희고 유희는 일상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 해방의 공간입니다. 인간은 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어린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놀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해질 무렵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TV 보며 맥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난 사실 허무주의자이고 그동안 살면서 무슨 목표나 계획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하루를 그럭저럭 견딘 거죠. 그동안 저서를 57권 정도 냈으나 사실 나도 몇 권인지 모르겠고 그것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쓴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외롭고 불안하고 허무해서 그때그때 끄적인 것들입니다. 올 여름 백담사를 찾은 일이 있는데 일주문 이름이 ‘무금문(無今門)’이어요. 불가에선 지금, 현재도 없는데 무슨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도 이성의 조작이고 집착이고 허망한 짓이죠. 그냥 살고 시는 나오는 대로 씁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울퉁보살 불퉁거사 <16>

구성 : 김흥인



자기 허물을 모르는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안에 앉아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의 흉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허물이 있다. 성을 잘 내고, 일을 경솔히 하는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이 말을 듣던 그 사람이 성을 내며 방에 들어가 흉보던 이를 움켜잡고는 "이 나쁜 사람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 옆의 사람이 "왜 때리냐"고 물으니 대답하길 "내가 언제 성을 잘 내며 경솔하다고 나를 흉보는가. 그래서 때렸다." 옆사람이 말했다. "네가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바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가."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 거칠고 방일하다가 남의 꾸지람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증거를 끌어와 스스로 깨끗하다고 변명한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여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옛 팔화의 세계

부처님께서 법의 미래를 설하시다

여래현기(如來懸記)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여래현기(如來懸記)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불암사판 석씨원류 삽화의 한 장면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불법의 미래에 관해 설법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구경>에 이르시길 세존이 열반에 들기에 즈음해 아난에게 말했다. '내가 열반의 세계로 옮겨가서 말법시대가 되면 내 제자들이 부처의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이양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의 법 가운데서 여러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거룩하게 몸의 계율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다시 분노하고 말다툼하며 남의 것을 빼앗기를 도모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묘하고 좋은 온갖 의복과 방사와 부구(敷具; 방석)들에 빠져 거기에 집착하며 여러 악한 도당들이 함께 서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설사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해도 다시 서로 허물고 욕해 잠깐 사이 모두 계율을 허물고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천 · 룡 등 팔부대중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오뇌에 싸여 모두 멀리 떠나게 될 것이고, 대신과 장자들도 삼보가 있는 곳에서 청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삼보를 능욕하고 가볍게 보고 허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법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여러 비구들이 악업을 짓는 일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대신과 장자들은 더욱 삼보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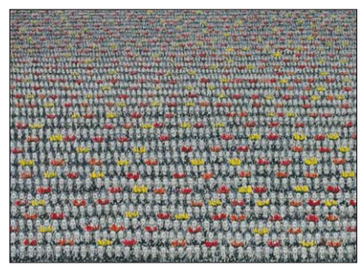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설법하신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불교 현실과 너무 꼭 맞아 온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책이 만들어져 유포됐던 몇 백 년 전에도 이 글을 읽고 많은 불자들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쇠퇴해 가는 불교를 일으키려는 원력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지 않았을까?

부처님은 이런 말법의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법했다.

"그러나 삼보의 여세가 아직은 완전히 멸하지 않은 까닭에 그때에 가서 다시 욕심이 적고 만족한 것을 아는 비구가 있어 금계를 호지하며 수행하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면서 많이 듣는 것을 사랑하고 즐기며 부처의 삼장교법을 받아 간직하여 널리 사부대중을 위해 분별해서 설법을 베풀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안락하게 한다면 국왕과 대신, 장자, 거사, 선남자, 선여인의 신도들도 정법을 사랑하고 아껴서 삼보가 있는 곳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 불법을 찬탄하고 지키고 세워서 뒤돌아보고 못 잊어 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알지어다! 이것은 모두가 불가사의한 모든 보살들의 본지의 원력으로 그 결과가 이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며, 여래의 위없는 정법을 지켜 모든 유정들에게 크게 풍요한 이익을 주게 된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法花

휴유암 뒤뜰 밤나무가지
평상 위에 몸을 눕히니 가지가지 길이로다
가지 가지 나는 가지 하늘로 가지 땅으로 가지
밤나무 하나로 천지를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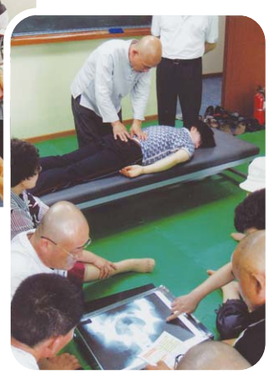
대구 부산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로프락터 양성







원장 우혜안 스님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장 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대구공개강좌 • 2008년 10월 4일 ~ 10월 5일(토,일요일)

전생 · 빙의 · 자기최면 · 치료최면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과정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 자기최면 / 타인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을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금주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특기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현대불교 제 698호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적멸보궁 탱화
보통부적 100장
달마도 50장과 같은 효과
●주문 : 10만원부터100만원까지
이동식 화분납골묘 설치
수도권 1구 50만원 / 장거리 2구
110만원 나무 선택(특허출원)
465-02-403194 이종남 (농협)
불교신협 080-510-2202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역학 무병건강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1.구궁 당 주역/간단 비법 전수
2.난치병(스트레스, 비만, 혈압, 당뇨, 암..)
근본치유 예방, 무병 건강 양생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인촌 신불정사 무구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각종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신병퇴치빙의퇴마전문
신병과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
퇴마상담. 출장가능
스스로 신병
빙의 퇴치법 치료함
도성암 도통 합장
010-7443-3060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흥망성쇠 성질감정 조절지도 훈련
풍수명당. 시험합격 기도터 성지
운의 흐름 개운시기 전생 우울증세
장단기 수행지도 단체 개인 훈련
불교강좌. 출가희망자 선발 공양주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노 비구로서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제반의
식에는 지장 없음.
여법하게 사는 분으로
손길이 필요한 분
연락 요망
011-9429-5786

조계종 산자수려한 조용하고
영험있는 내원암에 인연있는
40~50대의 신심있는 공양주
구하며 또한 운영관리하며
수행할 비구니와 그리고
출가할 보살을 환영함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기도스님
모십니다
▷의정부 불암사
031)842-7684
011-353-7684

황토사찰에서
행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불사 같이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법랍 25년,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명리학,침구학,최면학)성업중
부산 경남에서 하고자 함
010-2945-7704

절에서 거주하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45세 ~ 60세)
▷부산 금정구
051)508-45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보광사
010-5353-415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진해 임광사
055)551-366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산속 암자
054)772-4133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산사에서 천일기도
발원스님과
공양주 부부
모십니다
011-696-85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188-5103

노전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3549-6502

부전스님
(비구, 비구니)
모십니다
010-9129-1793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체공 경험 보살 우대)
011-493-1121

서울근교 산중
암자에서 조용히
기도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4492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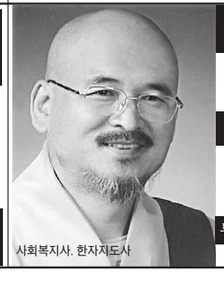
사람을 찾습니다

■ 너무 급합니다 .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크고 막중하여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이 되어야 수습이 됩니다 .
지금쯤은 아마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기위해 행자스님정과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
법의스님을 보신분이나 행적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법의스님의 막내동생에게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6688-6446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 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 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 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 학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환영
부설 :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夢" 막힐 을,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대 가 람) 안 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자연석 높이 15 M,가로 50M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기타건물 400평(6동)
● 대지 2500평, 임야 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 유곡, 주변 직벽암반 경관 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 가능(12M 도접)
● 가액 : 6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3개,주방1개,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임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010-6582-25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절충
011-9725-3196
011-9108-5589

최고의 참선도량
● 위치 : 산청 지리산 해발700미터
웅장한 일자혈 전망
● 계곡, 소나무, 기암의 임야
15000평 대지1000여평 등
● 양도가 : 5억원.
사진등 자세한것은 아래카페참조
cafe.naver.com/neobuddhism
011-312-2936
010-8652-8508
(정진 중이니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 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법당 20평, 방1, 공양간1
● 삼존불, 후불탱화 등
완벽하게 모셔져 있음
● 보증금1,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약 1,000만원
● 사정상 급 양도
010-2291-5558
051)503-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돈의면
● 대지 450평(등기필)
● 기와법당 20평(2층)
● 요사채 40평, 창고 15평
옥외 화장실 6평
● 6층 석탑(제주 돌)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 방문시 절충가능)
010-3791-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대지 200여평, 전 320평, 합 535평
● 임법당, 삼존불 등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도량신축가능
마당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 2억 5천(절충가)
전, 월세 가능
041)553-2108
011-794-4042

사찰및 요양원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국도에서 200m
도로는 포장 되있음.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8,479평
농림지역 38,294평
총 56,773평
● 단감나무 200주, 가건물 40평
지하수 200m
● 가액 : 5억 5천만원(급매)
017-570-1600

사찰 터 안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260평
● 법당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 완공, 창고,산신각
● 가액 : 1억
(현재 1억5천만원 공사비 들었음)
010-3553-7897

포교원 및 불교문화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1호선 구일역 5분거리
● 평수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살림집 40평 (옥상 150평)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 도심포교 및 각종 불교문화
사업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억원 월120만원
시설비 1억 8천 (보시 절충)
02)853-6010
011-9405-8186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대지 75평
● 목조한옥 30평
● 세면장, 화장실 별도
● 사용가능한대지 150평
● 가액 : 1억(절충가능)
010-7446-0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동사무소 옆
(팔도시장)
● 건평:45평
● 즉시 법회 가능하며 살림할수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품비 700만원
(불상, 탱화, 살림집기 일절)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릉 2리 395번지 용담사
● 옛날 구옥 2채, 산신각,
미륵전, 와불, 삼존불
● 평수 : 400여평 도지 쌀한가마
● 가액 : 2000만원(건물만)
031)642-8345
016-9800-834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 용인시내 중심지
● 임법당, 약사불
● 년 500만원 선불
010-2414-49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재구
연산동 이마트 옆 2층
● 평수 :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됨
010-5211-96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군포 안양 지역
● 평수 83평. 방4, 욕실, 주방,
냉난방완비, 모든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월 13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0-6271-995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8507-99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경동시장
● 평수 : 25평, 시설완벽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만원
● 유동인구 엄청많음
● 명리,역학 완벽한자 환영. 무속인도 가능
017-568-223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신축건물
● 대지 780평, 법당 25평
요사채 45평, 지장전 25평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4억 5천만원.
전세나 월세가능
011-339-194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 연립주택 90,94평방미터
6년째 성업중
스님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9,000만원(시설비 포함)
011-830-894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요사채 30평(슬라브건물)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 2억 6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일산동
● 평수 : 60평
● 5층 건물 중 4층
● 시설비 1500만원
보증금 3천만원/월100만원
● 최고급 시설, 즉시법회가능
● 바다가 보이며 전망이 아주 좋음
054)371-4657
011-527-70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밀집지역)
● 4층 건물 중 2층(80평)
● 법당 40평, 요사채 40평
● 시설완벽하며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 동네 윗편 주용한 명당터
● 대지 209평, 전 64평
● (현)조립식주택,차량마당까지진입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6-537-6134
010-2208-489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역삼동
아파트 대단지 앞
● 5층 건물 중 5층, 58평
시설 A급, 개원 3년 경과
● 보증금 2,000만원, 월220만원
(관리비 포함)
시설비 500만원(불상제외)
019-510-1456
054)842-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장 지하철역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약 20평
● 평수 15평, 법당,방1,주방,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18만원
시설비 7백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0-4032-8133

사 찰 안 내
수려한 경치와 청정계곡을 품고
명당에 자리잡은 사찰입니다
신심깊고 도량넓으신 스님께
사찰 양도 매매하고자 합니다
● 대지 5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6평
033)345-5597
011-771-559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755평, 법당 20평
요사채, 상하채 방4개
● 주차시설완비 큰창고
● 양도가 : 2억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011-393-00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6-339-16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 1, 2층 약 45평
요사채 : 1, 2층 약 50평
대지 : 약 175평, 단청필
마당까지 차량진입
시내버스 왕내
● 가액 : 2억 2천만원(대출가능)
010-6298-258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
4층 건물 중 4층
● 평수 45평, 시설 A급
● 시설비 1,700만원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
● 주차장 완비, 삼존불 완비
010-6416-5589
051)313-5589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7-373-5998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석포리
● 밭 3,200평. 백두대간 자락
● 포장 진입로. 약수 있음
● 가액 : 6천만원
* 토굴이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920-3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가장 대변 입구 2주공 앞
● 2층 건물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후 절충 가능
051)721-8359
010-4870-835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절충
011-9725-3196
011-9108-5589

사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 대지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48평)방5, 거실, 욕실, 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 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0-3382-7921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전철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6층 건물 중 2층, 약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400만원/월27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1-9356-3653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세 수려한 태백산령 형제봉 산하
● 부지 : 약 800여평 추가매입 가능
● 법당 : 목조삼포건물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 회관 : 1층 공양간 및 황토쑥뜸방 2층 사무실
● 요사채 : 1층 스라브건물 대중이 머무는 방 4칸
● 진입로 : 넓은 사찰단독 도로와 조경 된 주차장
● 식용수 : 지하 120미터, 60미터 2곳 지하 천연수
● 가액 : 오억팔천. 꼭 하실 분만 전화 주세요
연락처 010-2970-3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오전 약수탕
● 부지 : 총 3000평 이상(종교용지, 대지 500평)
● 시설 : 대웅전 춘양목으로 5포 7포집 25평,
요사채, 산신각, 서재, 누각등, 부엌,
최고급 단청마친지 6개월, 화장실 현대적
● 환경 : 호수 위에 위치하여 경치가 좋고 풍수완벽
● 가액 : 7억(절충가능), 총 불사비 15억 들었음
017-848-3330/051)335-3127

A급 법당 부산 포교당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거리 대로변 포교 최적지
● 면적 71평 5층건물중 3층
● 법당 40평(전체 단청, 운각, 각단, 고급원목, 엠프시설)
● 방2,해우소2, 공양간, 후원, 모든시설 최상급
● 시설비(대폭조절가능–공사비1억 4천만원)
보증금 월세 조절가능
051)554-6611

임 법 당
● 위치 : 양산시 통도사부근
● 대지 : 320평 2층건물1층. 요사채 35평,
방3, 거실, 공양간, 2층 법당 20평 친견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아미타 지장관음신중
● 텃밭있음. 절앞 버스정류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집기일체 양도, 시설비 2700만원
010-4640-474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삼방동
● 평수 53평 /3층건물 2층 전체, 법당 시설완벽
● 방2개/샤워실/화장실/공양간2개/창고
● 재래시장및 대단지아파트 입구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절충
연락처 011-590-2878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⑱<끝>

제법실상 알아야 삼제원융 분명해져

復次 若人能如是一切處中修行大乘 是人則於世間最勝最上無與等者 釋論偈中說

閑坐林樹間 寂然滅諸惡 澹泊得一心 斯樂非天樂 人求世間利 名衣好床褥 斯樂非安穩 求利無壓足 衲衣在空閑 動止心常一 自以智慧明 觀諸法實相 種種諸法中 皆以等觀入 解慧心寂然 三界無倫匹

어떤 사람이 일체 처소에서 이와 같이 대승정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이어서 그와 겨룰 자가 없다.

여기에서는 '대지도론'을 인용해서 이 문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숲속에 한가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악을 소멸하네
담박하게 증득한 일심
이 즐거움은 천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네
사람들은 세간의 이익과
좋은 옷과 좋은 침상을 추구하나
이 즐거움은 안온이 아니니
이익을 구하는데 만족이 없기 때문이네
누더기 옷으로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행동거지를 따라 마음이 항상 한결 같다네
스스로 지혜의 마음으로
제법실상의 이치를 관조하네
갖가지 제법을
모두 평등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깨달아
지혜의 마음이 고요하여
삼계에는 그를 짝할 이 없다네

'부차(復次)부터 무여등자(無與等者)까지의 문장은 지관법문을 지닌 사람은 그 공덕이 불가사의 하다는 것을 찬미하고 있다. 그 사람은 여래 가업의 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자비와 지혜의 두 가지 법으로서 중생들을 포섭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여 그를 세간 사람들은 같은 수준에서 평등하게 짝 할 수가 없다.

'숲속에 한가히 앉아' 부터 네 구절은 속제 가관에서 진제 공관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모든 선 공덕이 뛰어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가히 앉아 있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심란하게 시끄러운 것을 멀리 여의었다는 뜻이다.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멀리 여의고 세상 사람과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악을 소멸하네' 라는 구절은 모든 선 공덕을 일으키고 일체 번뇌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담박하게 증득한 일심' 은 마음이 한결같이 담연하다는 뜻이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흉내 내기 좋아하는 원숭이와 같고 의식은 날뛰는 말과 같아서 동분서주하며 하루 종일 번뇌와 함께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담박한 일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단정히 앉아서 제법실상의 이치를 생각해야만 이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몸과 손발이 편안하여 요동하지 않으며 마음까지도 항상 담박하여 산란심이 없어야만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중도 밖에 따로의 공과 가 없고
공과 가를 떠난 중도 따로없어

'이 즐거움은 천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네' 라는 것은 세간의 쾌락은 출세간의 쾌락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부처와 중생처럼 천양지차인 것을 말한다.

세간의 즐거움은 유루법이다. 이는 유위법으로서 생멸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끝내 무너진다. 하지만 출세간의 즐거움은 무루법이고 무위법이다. 무위는 불생불멸하여 끝내 파괴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유위법인 천상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행은 무상이며 생멸법이라는 점이다. 생멸이 소멸하고 나면 적멸의 즐거움이 있는데, 적멸의 즐거움은 인간세상이나 천상의 생멸의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속제 가법으로부터 진제 공관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이치에 대해 밝힌 것이다.

'사람들은 세간의 이익과' 구절부터 네 구절은 범부들이 어리석고 우치하여 진실을 미혹하고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잘못 인식하듯 허망을 실재로 여기는 것에 대해 밝혔다.

미혹하기 때문에 세간의 욕구를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탐구하면서 생각생각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또 출세의 길로 달리면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재리를 도모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세간의 오욕 육진경계 속에서 갖가지 계교를 부리면서 탐구하는 마음에 싫증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쾌락을 끝까지 다 맛보는 것으로써 목적을 삼기 때문에 쾌락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따라서 세간의 쾌락은 안온한 법이 아니다.

'누더기 옷으로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라는 구절부터 네 구절은 생사를 벗어날 길이 있고 열반에 오르는 문이 있어 고통의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히 안온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누더기 옷' 은 출가한 사람을 가리킨다. 즉 발심하고 출가하여 거친 옷을 입고 담백한 음식을 먹으며 바위굴이나 수풀아래 머물면서 종일토록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거지를 따라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은 지 수행에 속하고, 지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총명으로서 제법실상을 관찰하는 것은 관 수행에 해당된다.

제법은 의보와 정보를 말한다. 반야의 지혜를 일으켜 일체 의보와 정보인 제법을 관찰해 보면 법마다 실상이다. 실상은 차별상이 없다. 그 이유는 세간의 일체제법은 모두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 자체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범부가 집착한 유의 모습도 없고, 이승이 막혀있는 공의 모습도 없으며, 보살의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두 모습도 없고, 진제 속제를 떠난 중도의 모습도 없어 차별상이 없는데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실상이다.

'실상에는 따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진제인 공의 의미이고 '실상은 차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속제인 가의 의미이며 '실상은 상이 없으나 상으로 나타나지 않음도 없다'는 것은 중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갖가지 모든 법 가운데서 평등한 마음으로 관찰하여 공관을 수행할 경우 한 법이 공하면 일체법이 공하여 가 가운데서 동시에 공하며, 가를 닦을 경우 하나가 가이면 일체가 다 가여서 공 가운데 가가 동시적이며, 중을 닦을 경우 하나의 중이면 일체가 중이어서 공과 가가 중도와 함께 한다.

중도 밖에 따로의 공과 가가 없고 공과 가 외에 중도가 따로 없다. 이 셋 가운데 하나를 들으면 동시에 공가중 삼제를 갖추고 공가중 삼제를 따로 말한다 해도 하나의 이치여서 셋과 하나가 두 모습이 아니다. 그 때문에 이를 두고 '제법을 평등하게 관찰함'이라고 하며, 또 '공가중 삼제를 원만하게 관찰함'이라고 한다.

'지혜의 마음이 고요하여 삼계에는 그를 짝할 이 없다네' 라는 이 구절은 지관을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논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밝혔다.

여기에서 '지혜'는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이해한 지혜이다. 이 지혜로 세간을 분명하게 관조하여 갖가지 제법을 낱낱이 다 평등관으로써 관찰하여 낱낱의 제법이 즉공 즉가 즉중 아님이 없음을 명료하게 통달하는 것이다.

지혜로 관조하고 나면 일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마음이 담연하고 적정하여 일체 경계를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자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삼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와 짝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근본사상 총설

사제(四諦)와 십이인연(十二因緣)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론이 성립된 근거를 알려면 불교의 근본사상이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 중생들에게 설법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목전의 일상적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이론은 중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중아함경(中阿含經)' 권60에 수록된 '전유경(箭喩經)'을 살펴보면 부처님이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 세계의 유한성과 무한성, 사람이 죽은 뒤의 영혼문제 등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보이셨을까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라보셨다면 당연히 이고득락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을 추구해야만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당면문제인 현실의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우선 명료하게 밝히고, 그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 설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제의 이론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간의 일체 사물의 형성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실마리 없이 홀연히 찾아오지 않듯 삶의 고통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다음으로 십이인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춥고 배고픔에서 오는 괴로움만이 아닌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의 의미는 단순히 세간의 물욕에 의한 관능적인 쾌락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령 물욕만을 누리는 관능적인 즐거움이 진정한 쾌락이라면 세간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현실 그 자체가 극락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도를 밝힌 사람은 실상의 이치를 간파하고 그 실상인 모든 인연법을 깨달아 그 어떤 괴로움이 부딪쳐 온다 해도 태연자약하여 마음이 사물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초탈하여 우주의 변화와 하나의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인 열반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의 고락을 모두 초월하여 절대자재한 열반의 경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삼법인(三法印)을 설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제와 십이인연론과 삼법인은 불교의 삼대강령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직접 스스로 깨달은 경지이며 일생동안의 설법이 이 세 가지를 근본의지처로 하여 천태만상의 일대 장광설(長廣說)이 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근본사상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 698호
현대불교 buddhanews.com

사찰안내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
●대지 230평,
법당 완전 목조로 22평
요사채 1층 35평,2층 35평
●고급주택,수목이 우거짐
●양도 및 전세
010-4741-3446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5분거리
●대지 33평, 건물 2동 도로인접
●전망좋음, 집기일체 야도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포교당(급)안내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급한사정에 최저가로 인계
시설 설비 완비
●전세금, 비품비 포함
●1천 5백만원
051)752-5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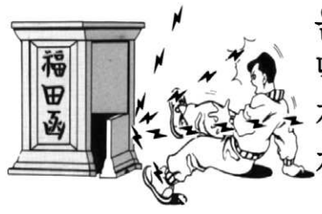
사찰안내
●위치 : 부산 금정구 두구동 근교
●대지 : 680제곱미터(약 210평)
●법당 : 30평
요사채 : 30평(+요사채 20평)
●시설 완벽, 연못, 고급나무,
야생화 등 정원최고, 교통최고
●매매가는 답사후 결정
055)744-4879
010-8223-4879

사찰(급)안내 계약후 불사하며, 분할도 가능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
●대지 : 약 8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25평, 삼존불, 방 7개, 대형주차장 약 400평
●노인요양원 및 영옥 사리불 안치 준비중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안고 2억 5천만원 인수
총액 4억 5천만원 중 진정하게 운영하실 분에게1억 찬조 보시함
053)471-3123 / 017-501-2315

명소 - 명산 - 명지
사찰 및 템플수련원
부지매각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후면
■면 적 : 144,154㎡ (43,606평 – 관리 12,000평)
■매 가 : 실 수요자와 직접상담
■참 고 : 동서고속도로 – 2009년 개통
목적용도 및 토지투자가치 최적
■위치-입지 : 100대명산 팔봉산후면 접함,동 – 남향
홍천강인접 – 홍천대명콘도 5분거리
동서고속도로 – 남춘천 IC – 7분거리

▼ 전경 및 이미지 조감도
대표전화 033)435-8060 / 011-377-3410
주인직접 - 중개업소사절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탈종공고

●사찰명 : 약사암
●법 명 : 도산(박영두)
●주 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116번지

●사찰명 : 용문사
●법 명 : 도오(이병오)
●주 소 : 경남 사천시 선구동
81-32번지

상기 사찰 및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영산재, 의식·음악·그림 등 불교문화콘텐츠 '결정체'



영산재(靈山齋)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불교의식이다. 불교의식의 백미로 손꼽히는 영산재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후 태고종을 중심으로 보존·전승돼 왔고,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산재보존회(총재 구해)와 옥천범음대학(학장 일운) 등이 9월 19일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에서 '불교예술과 영산재'를 주제로 개최한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는 영산재의 학술적 재조명을 통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세미나에는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 양은용 교수(원광대), 서한범 교수(단국대) 등 국내학자와 맥스 피터 바우만 교수(독일, 뷰르츠부르크대), 마쯔오 코이치 교수(일본역사민속박물관) 등 해외학자가 발표했다.

"영산재는 부처님의 영취산 법회를 그대로 재현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으로, 음악적 · 무용적 요소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 등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 영산재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



매년 단오날(음력 5월 5일)이나 현충일(양력 6월 6일) 마다 신촌 봉원사에서 시연중인 영산재 모습(위).

'영산회상' 감정절제 이상으로 삼는 높은 차원의 음악

영산재는 선종적인 식당작법과 진언등 밀교 요소 복합



홍윤식 교수.



서한범 교수.



맥스 바우만 교수.



마쯔오 코이치 교수.

불교예술은 신심 고양 위함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는 기조강연 '불교예술과 영산재'에서 불교적 아름다움이 영산재에서 어떻게 표출(상징)됐는가를 설명했다. 홍 명예교수는 "불교적 아름다움은 불교적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며, 불교예술은 불교적 아름다움이 불교의식을 통해 표출되는 예술양식"이라 말했다.

영산재는 한국불교신앙의 종합예술이다. 홍 명예교수는 "영산재 가운데 영산작법은 법화신앙에 근거했고, 영혼천도의식은 정토신앙에 근거했다. 식당작법은 선종의례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영산재의 미적 근원을 <아미타경> 등 정토교 경전에서 찾았다. "<아미타경>에서 보이는 극락(極樂)이 즐거움의 극치를 뜻하며 범부 중생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심미감을 느끼게 해 극락왕생의 신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홍 명예교수는 극락과 함께 <무량수경>을 전거로 불교적 아름다움을 해석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무량수불이 일체중생의 고통에 대비심을 일으켜 48대원을 세우고 그 정토를 장엄 성취한 것이 <무량수경>"이라며, 48대원을 통해 불교적 아름다움은 미추(美醜)를 포용한 아름다움이라 설명했다.

홍 명예교수는 불교예술을 ▲불교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예술적 가치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 ▲불교적 현상을 소재로 예술적 요구에서 창작된 것 ▲불교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같은 강도로 주장된 것으로 나눴다. 그는 "영산재가 불교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되 예술적 가치를 부수적으로 하거나, 불교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에 몰입해 그 세계를 체험하고 귀의해 표출하는 것이 불교예술"이며, "영산재도 절차상 성역화의 상징적 표현을 중첩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홍 명예교수는 "성역화의 상징적 표현을 위해 의식문 낭송, 의식공간 장엄 · 신체적 표현, 절정에 이르기 위한 긴장관계 구성 등이 사용된다"며, 영산재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영산회상은 국악 연구의 보고

서한범 교수(단국대)는 '영산회상의 음악적 가치'에서 영산회상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폈다. 서 교수는 "영산회상은 연주형태에 따라 ▲현악영산회상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현악영산회상은 거문고, 가야금 등 현악기가 중심으로 편성돼 붙여진 이름이다. 현악기 중에서도 거문고 중심으로 '거문고 회상'으로도 불린다. 서한범 교수는 "일반적으로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을 뜻하며, 민간음악인들은 현악기 중심의 합주음악이란 의미로 '줄풍류'라고도 부른다"고 소개했다.

현악영산회상은 제1곡 상령산(上靈山), 제2곡 중령산(中靈山), 제3곡 세령산(細靈山), 제4곡 가락덜이(加樂除只), 제5곡 삼현도드리(三絃還入), 제6곡 하현도드리(下絃還入), 제7곡 염불도드리(念佛還入), 제8곡 타령(打令), 제9곡 군악(軍樂)으로 구성됐다.

'관악기를 위한 영산회상'이라는 의미의 관악영산회상은 삼현영산회상으로도 불린다. 관악영산회상은 영산회상 중 제6곡인 하현도드리가 생략된 8곡으로 이뤄졌다.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조옮김한 평조회상은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이란 아명이 있다. 악곡수는 관악영산회상처럼 제6곡 하현도드리가 생략된 8곡 구성이다.

서 교수는 "최초 단일곡이었던 영산회상이 9곡 모음곡으로 확대됐고, 세 갈래로 분화돼 레퍼터리 확충이나 연주형태의 다양성을 이루어 왔다"며, "특히 독주의 경우는 기존틀을 벗고 훨씬 자유롭게 연주된 악곡으로 재구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한범 교수는 "영산회상은 변주악곡을 싣고 있는 고악보들의 기보체계나 기보방법, 변천과정, 풍류문화 등 국악의 실체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며, "영산회상은 한국음악의 이론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보고(寶庫)"라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영산회상의 전체적인 악곡 수와 연주형태 등으로 볼 때, 영산회상이 국악계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라 주장했다.

서한범 교수는 "영산회상은 자유스러움과 신비감이 우뚝한 음악, 유려한 선율선의 특징을 지니면서 감정의 절제를 이상으로 삼는 높은 차원의 음악"이라고 극찬했다.

팔관회는 호국의례

양은용 교수(원광대)는 '팔관재의 한국적 전개'를 발표했다. 팔관회는 재가신자들이 팔재계를 수지하는 불교의례다.

양 교수는 "팔관회는 불교 흐름을 따라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고구려에 수용된 다음, 진흥왕 때 고구려 귀화승 혜량을 통해 신라에 유입돼 전몰장병의 위령제를 겸한 호국제전으로 설행됐다"고 소개했다.

양은용 교수는 "당시는 화랑이 활발히 활동했던 때로 팔관회 의식은 화랑들이 주도했다"고 추정했다. 고려시대 팔관회는 치세의식과 관련해 정치적인 색채를 띄게 됐다. 양 교수는 이를 팔관회적 질서라 부르며, "임금이 되면 팔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팔관회를 개최하는 존재가 임금이라는 등식"을 설명했다.

양은용 교수는 "호국의례인 팔관회가 고려에 이르러 왕실오례의 하례잡의로 정착됐다"며, "민속적 성격인 연등회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의궤(儀軌)가 남아 있지 않아 팔관회의 의식과 문화를 재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안 교수는 "<고려사> 예지의 팔관회 관련 기록에 깃발과 수례를 비롯한 장졸 숫자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고찰하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獨 · 泰 · 日 등 해외학자 참여

이번 행사에는 해외학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였다. 맥스 피터 바우만 교수(독일, 뷰르츠부르크대)는 '세계 평화와 세계적 관심의 관점에서 본 불교음악'을 발표했다. 바우만 교수는 "영산재는 영취산의 법화경 법회(영산회상)에 대한 회고와 재현이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음악"이라며,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그것이 불교정신과 화합하기만 한다면 세계의 모든 국가와 중생에게 유익할 것이며, 세상 모두를 위해 위대한 평화와 행복을 공헌할 것"이라 주장했다.

마쯔오 코이치 교수(일본역사민속박물관)는 '불교의례와 한일비교, 그 구조와 예능'을 통해 한일 불교의례가 대동소이함을 주장했다.

마쯔오 코이치 교수는 "현행 영산재는 현교적인 의식과 주악 · 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도 진언 · 범어를 사용해 밀교적인 요소도 엿보인다. 선종적인 식당작법과 무속적인 요소도 확인된다"며, "영산재에는 기원이 다른 모든 작법이 중층적으로 보태져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쯔오 교수는 "영산재에 사용된 종이 인형은 일본 이자나기류처럼 민간종교에서 사용된 예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산재의 식당작법과 일본 동대사 오미츠토리가 유사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식당작법 모두 선종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마쯔오 교수는 "본존에 올리는 공양물 형태를 예로 고대 일본 불교의례가 한국불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촌 봉원사는 매년 영산재를 시연해 불교문화의 대중적 친화도를 높여왔다. 올해 20회에 이른 시연회가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려왔다면, 매년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는 영산재를 매개로 세계 불교문화의 이론적 토대를 다져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 사 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 사 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 영 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 리 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 사 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 사 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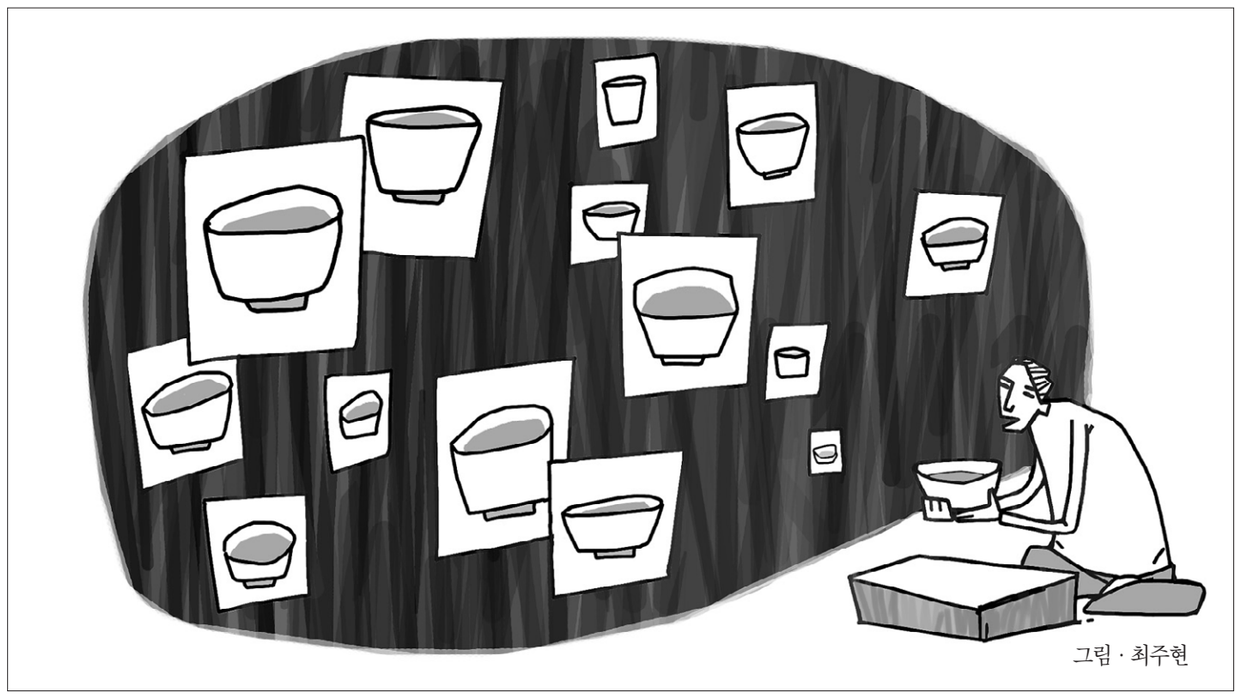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한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물 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다!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추석의 의미

질문: 한 달 전에 칠석과 백종을 지냈는데도 또 추석날 선원에서 조상님 천도재로 해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 하나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재사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추석은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신라 유리왕 때 궁녀들을 두 패로 나누어 배 짜기 시합을 시킨 것이 기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더군다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추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마음공부 하는 도리는요, 한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을 벗고 이 옷 속에 있는 그 곤충의 세계까지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비천상 보셨죠?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저 이것도 이 모습으로도 됐다가 저 모습으로도 됐다가, 이거를 건지려면 이 모습으로도 되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 모습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간 과거고 또 앞으로 올 미래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 현실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과거 미래 현재 이러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체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항상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름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니 미래니 현실이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질서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또 이러니저러니 말을 해 놓고….

그래서 '불교' 하면 그냥그냥 발기발기 뜯어서 그냥 쫙 늘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고 그 말씀을 또 덧붙여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려 놨습니까,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곤충들도 자기 모습이니까 모든 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에요. 나는 귀신이 나온다 이러면 그 참,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귀신이다 어떠한 신장이다 어떠한 뭐다 하더라도 겁 안 나는 게 뭐냐 하면 산 사람도 산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이고요. 그런데 산 귀신이 더 하지 그래 죽은 귀신이 더 하겠습니까? 그럼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 귀신은 귀신끼리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라 이런 거예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뭐가,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조상의 어떠한 문제들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총에 맞아 죽은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 죽은 분도 계시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오히려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잘 모셔 드린다면, 백중 때나 정월 때나 팔월 추석 때나 자기 조상이라면, 바로 자기네들 조상이라면 자기 뿌리나 똑같은데 그걸 은혜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아니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갈라요, 그냥. 시아버진이랬고 시어머닌 이랬고 이렇게,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다 갈라놓으니깐 갈라놓은 대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자손들도 싸움박질들이나 하고 나가서 일이나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이 편안치 못한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자식들을 낳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한탄을 하지만, 그거 한탄을 해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자기네들 생각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거 천 냥 빚은 못 갚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 얼마든지 자비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못해요.

그래, 추석을 쇨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추석을 쇠었나? 추석은 추석이니만큼, 물론 하루도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어떤 하루밖엔 더 없지만 추석이다 하면 뭐든 하루를, 하루를 봐서 모든 지 · 수 · 화 · 풍과 일체 중생을 만물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지요.

일차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차는 일체 조상님들 얘긴데, 법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모든 조상님들, 일체제불에게 또는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 권속들에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회향을 할 때, 마음의 회향을 할 때 한데 합쳐서 회향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한 거 하고, 아무 생각 안 해 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생각이 한 게 되고, 한 것이 바로 한 사이가 없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생각도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지고 창조력이 길러지고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상당히 의의가 깊은 날이다 그런 거지요.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계란

질문: 한 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계(境界)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 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지란 어떤 경지일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때는 주인공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헤아려 봅니다만 이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항상 제가 얘기했죠. 물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 봐야 안다고요. 정말 뜨거운지 미지근한 건지, 따뜻한 건지 찬 건지 그거는 먹어 보는 사람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 보지 않는 이상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모두 봐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해 나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셔 보고 그 물을 그냥 "야, 이건 먹으니까 시원하더라."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약사가 감로수를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걸 먹어 보지도 않고 저 물맛이 어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어디고 누구든지 나 아님이 없고 이럴 때는 물도 바로 내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을 줘도 그때는 아주 독특한 맛이 나고 그게 감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 지혜를 얻으려면요, 나부터 먼저 알아야 지혜가 자꾸 늘어가요, 나부터 알아야.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트여야 남도 이끌어 갈 수 있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귀를 뜨지 않고 남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남에게 진짜로 보시해라 하는 거, 금(金) 한 덩어릴 주고서 늘려라 이랬더니 그걸 늘리지 않고 그 금이 없어질까 봐 늘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 놓고 체험하고 가면서 남들한테 그 마음공부를 전달해 주게 되면요, 그만큼 공덕이 큰 겁니다. 이건 세세생생에 공덕입니다, 올바로만 관법을 일러 준다면. 한 사람을 이끌었는데 수십억의 중생들을 이끈 셈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집합소 하나를 포교했는데 집합소 안에 들어 있는 중생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 집합소 안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전부 바뀌어서, 화(化)해서 보살로 화했으니 얼마나 그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지금 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주먹을 번쩍 들거나 내리치거나 이런 등등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26면으로 계속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알립니다.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장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헌스님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buddhanews.com

모든 것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 아님을 알아야

☞25면에서 계속

래서 귀띔을 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도리를 어찌 알아서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는 도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틔워 주면서, 귀를 틔워 주면서 해야죠.

풍수나 지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질문: 사람이 사는 집이나 죽은 사람의 산소를 잘못 쓰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요? 저희처럼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풍수나 지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신라 때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아주 선비 중의 선비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가난한데다 등과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도 살려면 그런 수가 많지마는 여간 힘들지가 않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풍수(風水)를 봐서 좋은 자리를 찾을 형편이 못되었더랍니다.

가난하니깐 돈을 들여서 풍수에 좋은 걸 살 수도 없고 그런 관계상 고구려로 넘어가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어느 스님, 예전에도 선지식 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이 거기서 은거하셨던 모양입니다. 거길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부모를 모셔야 될 텐데 저희는 오형제나 되고 여자 동생들이 셋이고 그래서 팔남매나 됩니다. 그랬는데 팔남매 중에서 하나도 사람 노릇을 못하고, 각자 그저 각성(各姓)바지처럼 이리 뜯고 저리 뜯고 그러니, 부자도 싫고 권위도 싫고, 단 하나 있다면 화목하게, 형제들이 화목한 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화목하려면 묘지를 어떻게 써야만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산 부처가 생각을 하니까 참 기특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너희 형제들이 화목하려면 관록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해 주신 겁니다. 금에다가 빛을 내게 하고 이자를 더 붙여 준 겁니다, 한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부모를 가매장한 것을 그냥 두고, 이 고구려에만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다. 모두 눈들이 멀고 귀가 뜨이질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오혈(五血)을 쥐고 있는 관계를, 오혈맥(五血脈)이 한 손에 들어 있느니라. 그러니 네가 가다가 발끝이 그냥 멈추었을 때, 즉 말하자면 멈춰서 가지 않을 때 그 자리에다 묻어라." 했거든요. 가다가 발이 멈춰질 때에 그 자리가 좋은 줄 알고 묻어라 그랬거든요.

그랬으니 이 선비는 그 뜻도 모르지만 하여튼 믿었죠. 그 당시 신라의 땅은, 저 왜 지붕 위에 있는 거 뭡니까? 굼뱅이 있죠? 굼뱅이 이렇게 둥글게 우그러진 것같이, 신라 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땅은 네 각이 지면서 아래로 펑퍼짐했던 그때 당시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 변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좋은 땅을 찾아서 다니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믿고 어느 산모퉁이를 오다가 들르려니까, 길이 있고 개골창이 있고 그러는데 아! 하필이면 말입니다, 거길 가는데 딱 멈춰졌단 말입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봐서는 도무지 여기다 묻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 자리에는 바위도 있고 바위 밑에 물이 흐르고 그러는 자리인데 아, 가다가 딱 멈춰 가지고는 영 발이 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한테 아마 내가 그렇게 하랬으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물도 질척질척하고 그런데 누가 거기다 묻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은 믿었습니다. '좋다! 스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여기다 묻자.' 그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곤 부지런히 가서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거길 팠습니다. 파니까 웬걸요, 파니까 그 위만 질척질척하지 밑은 금빛이 나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묻으려고 파는데 나중엔 다각다각거려서 보니까 돌로다가 아예 장식이 됐더랍니다. 밑바닥이 돌로다가 장식이 돼 있고, 옆으로는 돌이 천연적으로 아주, 그 옛날에 하얀 돌 있죠? 그런 것이 펑퍼짐하게 자연석으로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시고서 그 집안을 일으켰더랍니다. 한 술 더 떠서 관운을 갖게 됐고 이름을 갖게 됐고 또 화목을 갖게 됐고 재산을 갖게 됐어요. 재산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밥은 굶지 않게 됐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대갓집에서 정승으로서의 권위가 당당한 분이 풍수를 봤는데 도대체 그 산 거기밖에는 그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선비가 묘지 쓴 데 거기 말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몰래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사 가지곤 그걸 파 버리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묻었단 말입니다, 유골을. 딴 산소에 있는 걸 파다가 남의 묘지에다가 묻고선 그 묘지에 있는 뼈는 그냥 다 팽개친 겁니다.

그랬는데 선비 꿈에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집이 이렇게 없어진 것도 모르느냐? 모르느냐?" 하고 자꾸 와서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가 보니까 산소가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또 갔습니다. 가니까 하는 소리가 "그거를 또 뺏으려면 싸움이 나. 그러니 내버려둬라." 그러고선 "요 개천 너머로 넘어가면 너희 아버님 뼈가 전부 널려져 있느니라. 그러니 그거를 하얀 백지에다가 전부 주워서 상자에 담아 놨다가, 네가 또 발 닿는 데로 갖다가 묻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 싸움을 시키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 정승은 정승의 자리도 떨어지고 집이 폭삭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스님이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마는,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나쁘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판사가 얄밉게 보면 한 번 더 긋는단 말입니다. 한 번 더 그어서 십 년 받을 거 이십 년 받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죄목만 한 번 더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업을 받을 건데도 거기다 덧붙여서 스님께서 '참, 이놈 나쁜 놈이구나!'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업이 거기에 덧붙여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망하고 나니까 거기다 묘지를 써서 그렇게 됐다고 그걸 또 다 캐 갔답니다. 다 캐 가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저기다가 또 써도 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걸랑 거기다 또 묻어라.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삼형제가 관록을 먹고 다 잘됐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산맥(山脈)이라는 것이 토질에 따라서, 혈맥(血脈)에 따라서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의 생태도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거기 토질과 혈맥에 의해서 부패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잘 다져질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알칼리성, 산성이 한데 혼합이 된 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분산된 땅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일돼서 혈맥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그것도 혈맥 위에다가 묻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돌아가게는 하되, 그 영향이 자기한테 에너지로 오게끔 만들어서 그 묘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백혈 즉, 백호라고도 그럽니다. 또 청혈 · 황혈 이게 쌍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혈 · 석혈 또 수혈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다섯 가지의 혈을, 혈맥을 그것을 백호에서 주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心)이 전부 이 몸을 이끌어 가지고 가듯 말입니다. 그것을 한데 합친 것을, 다섯 가지가 한데 합친 것을 오혈맥(五血脈)이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 이해해 주세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혈(五血)이 한데, 혈이 한데 모아졌다가 다시 분산돼서 나가듯이 여러 혈이 한데 모아졌다가 다시 모아지는 반면에 다시 분산돼서 전체를 다 통하게 끔, 무전통신이 통하게끔 돼 있는 혈이 있습니다. 그 혈에는 사람의 머리, 정수리, 그러니까 백두혈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혈에서 모든 것이 머리로 인해 오관을 통해서 발끝까지 다 통하듯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서 들으세요. 발끝까지 다 통해서 그렇게 하듯이, 이 무르팍 뼈, 손목 뼈 중요하죠. 팔뒤꿈치, 옆 겨드랑이 뼈, 발 이것도 다 중요한 자립니다. 그렇듯이 산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혈맥을 다 죌 수 있어서 내가 자유권을 가졌을 때는 지리도, 마음공부를 해서 자유롭게 가졌을 때는 내가 나를 자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오온(五蘊)을 다, '오온' 하면은 벌써 거기는 오신통(五神通)이 들어가죠. 다섯 개의 그 주(珠)가 들어가죠. 그거를 한데 합쳐서 동시에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자동적인 자기 자성(自性)이라면, 그것조차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던 것처럼, 왜 똑같은 자리에다 묻어서 잘되는 사람이 있고 묻어서 안되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실 때는 '그저 그렇지.' 하고 오면 그르치고, 마음을 다지고 정돈을 잘해서 오시면 그분은 정돈을 잘해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혈맥도 우리 인간의 몸의 혈맥과 같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주의 섭리나 지리나, 산, 물, 한울, 삼위일체가 다 이 손 안에서 구른다면 오혈맥(五血脈)이 다 이 손 안에서, 한생각 안에서 다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가면 가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여기 좋구나!' 하면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아, 우리는 화목해야겠다. 또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난 관록(官祿)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묻는다면 그 자리가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땅 형편으로 봐서 그런 산 자리나 보러 다니게끔 돼 있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산 자리를 봐서 좋다 하더라도 묻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돼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어디에나 묻어도 좋고, 또 예전부터 불가에서는 화장(火葬)을 합니다. 다비식(茶毘式) 하는 것이 바로 화장이죠. 화장을 했어도 육은, 즉 말하자면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난 뒤의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우면 옷 벗어 버리듯이 우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면 갈 곳도 없는 것을…'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태워 버리는 거죠.

몸에다 착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내가 옷 벗어 버릴 때에 수월하게 벗어 버리기 위해섭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콩 껍질을 벗길 때 덜 익었으면 콩 속살이 붙어 가지고 까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안 떨어지니까. 아픈 지 삼 년이다 오 년이다 온통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게 익은 거라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집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몸에다 착을 두지 않아도 싱그럽게 실상으로서의 그대로 삼위일체로 회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혈(血)을 볼 때,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각본대로, 운명대로 좋으면 좋은 거, 언짢으면 언짢은 거, 자기가 한 거만치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 토질 · 혈 · 맥(脈)이 나쁜 것만치 생태들이 나빠지고 나무들이 나빠져서 열매가 작아지는 수도 있고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다 묘를 써도 그 마음에 따라 잘되고 잘못되고 그렇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각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팔자 운명 이런 것이 말입니다. 각본대로 나오는 걸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아라 그 소리입니다. 다시 놓으면 테이프에 감긴 것이 다 지워집니다.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업보대로, 각본대로 나오지만 다 녹아서 지금 현상에서 영원토록 참자유인이 돼서 살면 영원토록 미래 과거도 없이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벗고
이 옷 속에 있는 그 곤충의 세계까지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 동 지 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시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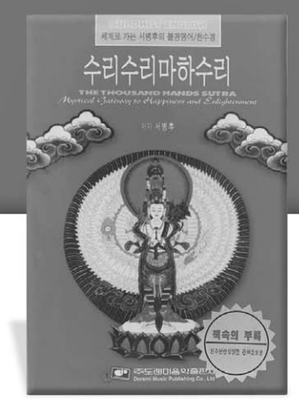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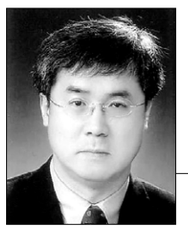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불안과 믿음의 관계

한동안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조용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과 매릴린치의 매각 등으로 세계경제의 심장인 월가가 공황상태로 빠졌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신용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해외 증시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와 내수의 위축 그리고 심각한 가계의 부채 수준과 고금리 등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종교계와 기업인들의 믿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기업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고, 정부 출범이후 종교적 편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더니 결국 정부와 불교계가 극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간에 저신뢰 현상은 우리 경제를 멍들고 병들게 한다. 사회적 자본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후쿠야마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를 저신뢰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저신뢰 사회가 경제적 발전과 호황을 누리며 선진국으로 간 예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불교의 신행체계 '신해행증(信解行證)'은 올바른 믿음(信)을 갖고, 믿음에 대해 올바로 이해(解)하고, 믿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行)한다. 이해와 실천 통해서 깨달음(證)을 얻는다.

믿음이 가장 처음이듯, 경제에서도 각 경제주체간에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종교계간에 믿음, 정부와 기업간에 믿음, 정부와 국민간에 믿음,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간에 믿음은 신뢰로 축적되고 이는 경제에 대한 낙관적 예측으로 이어진다. 경제에서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이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경제 각주체간에 믿음이 없는 저신뢰 사회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게 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떨어뜨리고, 결국 경제를 침체의 구덩이로 밀어 넣게 되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심리가 경제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파나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시키고 위기설을 조작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아집과 독선적 사고로 민심의 향배를 읽지 못한다면 그것도 마땅히 고쳐져야 할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지금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가르며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룰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남의 말을 존중하고 남을 아끼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서로간에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을 치룬 중국의 끝없는 질주를 바라보는 힘겨운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의 경쟁력 추락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부터 온 국민이 슬기롭게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질시하며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구성원이 화합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부터 자신감과 슬기로운 지혜가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간에 신뢰를 구축하여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극락정토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社說

산사음악회, 근심 씻는 선물 되길

추석이 지났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난 여름 불교계는 종교편향이란 당면 문제로 유난히 뜨거운 계절을 보냈다. 지금도 대구 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경제도 미궁 속을 헤매며 시시각각 불안과 안도의 그네를 타고 있다.

일찍이 부처님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을 가르치셨지만, 중생들은 무상 속의 일들에 집착하고 또 집착한다. 자기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타인의 종교를 폄훼하고 사회 문제까지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물질이나 권력·부에 대한 집착은 세상의 수많은 범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원래 무상한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신념만 있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세상은 집착과 탐욕으로 얼룩지고 또 그 숱한 사사건건들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세상과는 상관없이 계절은 가고 또 온다. 지금 우리는 늦더위에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을은 산등선을 넘어 사람의 마을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가을산사음악회 준비에 분주하다. 사찰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지니고 있는 독특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승화시켜 지역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올 산사음악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걱정을 날려버리는 청량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계종 승려노인복지법의 과제

조계종이 승려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해 노스님들이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아직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았지만,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법의 초안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박수를 칠 일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관련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법의 제정은 많은 상징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출가수행집단의 '소유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사설사암 내지는 '토굴'을 양산해 왔다. 대중생활을 근본으로 여긴 출가수행자의 전통이 개인수행으로 변하면서 '소유의 문제' 또한 적지 않은 잡음으로 분출되곤 한 것이 사실이다. 전법을 위한 새 도량의 건립은 필요한 불사지만, 삼보정재가 '토굴'이란 이름 아래 개인의 노후를 위한 공간 확보에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 노후복지가 잘되면 잘될수록 수행집단으로서의 사찰 기능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승려노인복지는 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법 이전에 종단적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돼야 하고 그를 통한 수행가풍의 확립이 필수다. 또 법이 시행되기 위해 뒤따라야 할 재정 마련도 커다란 과제다. 이는 승단 구성원 누구나 해당되는 제도이므로 승단 전체가 동참해야 할 문제다. 국가의 의료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인 보장제도와의 연계도 더 연구해야 할 일이다.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법이 고령화사회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길 바란다.

"감사함으로 마음통장 채워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2 안 보이는 통장 만들기

손해보는 장사

"뭐요? 월세 오십요?" 부동산 전화를 받고 윤씨는 어이가 없었다. 그 동네 월세는 다 올라서 60만원 된지가 언제인데. 어떤 집주인들은 7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윤씨도 이번부터는 얼마라도 더 올려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0만원을 내려 50만원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려다 다음 말에 멈칫했다. "글쎄, 안 되는 줄 아는데요, 보니까 젊은 엄마가 혼자 애를 키운다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요. 갑자기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 빚이 많아 일년만 오십으로 해주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사정하는 거요." 갑자기 윤씨는 "돈이 원수다" 라고 하던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하필이면 나랑 똑같지. 나도 어려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빚 남겨 놓고 간 것도 똑같네. 가슴이 아려왔다. 단칸방에서 몇 식구가 시달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잠시 망설이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럼 힘드실 텐데, 아예 40만원으로 하라고 하세요" 해버렸다. 말하고 보니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다. 세를 올리기는커녕 손해 보게 것이다. 그것도 그쪽이 부른 것보다도 더 내려주다니.

돈 만이 내 편이다

예전 같으면 어림없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나부터 살고 봐야지. 흥, 고생 안한 사람 어디 있어"하며 이 악물고 살아온 윤씨였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와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냐고요?" 친척들은 자기들도 어렵다며 모른 척 했다. 아빠 빚 걱정에 시달리며 일하는 엄마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 윤씨는 돈 있어야 산다고 악착같이 일해서 모으고 또 모았다. 그러다보니 남들에게 박정해졌다. 구두쇠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나 힘들면 내 인생 누가 도와 주냐고. 통장의 돈만이 내 편이야.

그런데 몇 년 전, 금쪽같은 삼천만원을 도둑맞고 말았다.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왔다. 그 돈 생각에 한 달이 넘어도 밥을 잘 못 넘겼다. 옆집 엄마가 "그러다 병나시겠어요. 저랑 시간 좀 내요" 하며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가보니 절이었다.

스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군요. 그런데 보살님, 화를 내시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화낸다고 어디서 나오나요?" 스님은 "바로 그거예요. 돈 잃은 것도 힘든데 그걸로 그치셔야지요. 거기다 이제 건강까지 상하시려고요. 어차피 찾을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잘 사십시오." "말씀이야 맞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같이 마음공부하며 서로 돕는 겁니다."

마음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요?

스님은 "보살님, 돈을 잘 모으신다고 했는데요. 안 보이는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나 있으세요?"하고 물었다. "네? 안 보이는 통장이라니, 그게 뭐예요? 새로 나온 금융상품인가요?" 스님은 웃으며 "삼천만원이 있다가도 사라진 것처럼 물질적인 돈은 영원히 내 것이 없어요. 있다 없다 하지요. 그러나 안 보이는 통장에 드는 적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세세생생 자기 거예요." 바로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는 업식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몸이 죽어도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통장에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입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남에게 베풀고 보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음, 자비와 용서 등으로 적금을 들라고 했다. "보살님, 이제 진짜 부자가 되셔야지요!" 그 때는 그 뜻이 얼른 다가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 돈에 한 맺혀 있으니까 스님이 통장 이야기로 달래시려는 건가.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부동산이었다. "애기엄마가 좀 바꿔달라고 하네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원래 염치없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살기가 힘들다 보니 죄송해요. 그런데 사십만원으로 내려주시다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복 받을 분이세요" 하며 흐느꼈다.

윤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왜 이리 내 마음이 뿌듯하고 밝아지는 거지? 돈은 매달 몇십 만 원씩 손해 나게 된 마당에. 아, 그 때 스님이 말씀하신 안 보이는 통장, 이거구나. 남을 도왔는데 내가 좋고 감사한 이 마음. 물질 통장은 손해지만 마음통장은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차고 있다. 결국 이익이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젠 저, 과거의 인색한 구두쇠가 아니에요. 마음통장에 입금을 시작했다고요. 진짜 부자가 될 거예요. 넉넉한 마음 부자 한번 될 테니, 절대 보증은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권력 흥망 함께 하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림자'

53 궁녀

초안산에 우거진 잡목더미를 뒤지다가 사방이 트인 정상에 올라 약간 처량하게 '비목' (장일남 작곡, 한명희 작사)을 흥얼거린다. 이 노래는 1967년에 작곡됐다. 한국전쟁 때 작곡자 장일남 선생이 전투가 치열했던 철원 부근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널려 있는 시체들과 이름 없는 비목(碑木)을 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나 작곡한 것이다. 가사의 고난스런 배경이나, 단조에서 느껴지는 고독 · 우수 등이 엉뚱한 곳, 궁녀들의 공동묘지에서 문득 공감을 일으킨다.

사진작가 최진연 선생과 함께 초안산 일대를 탐험가처럼 뒤지다가 발견한 비문이 적힌 비석 하나. 비장감과 환희가 뒤섞여 끓어오른다. 잡목 사이에 넘어진 채 '상궁박씨묘(尙宮朴氏墓)'란 명문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숲속을 뒤지면서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비석, 상석은 수십 개를 봤다. 아예 그것마저 없이 허물어져 가는 무덤도 수두룩하다. '상궁박씨묘', 다섯 글자를 직접 발견하니 기분이 묘하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 사이에 있는 해발 100여m 초안산은 조선 왕실의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간 이들이 잠들어 있다. 남녀유별이라, 내시들의 무덤과 궁녀들의 무덤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다.

절대 권력자는 고독하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사치스런 것이기에 빠져보고 싶기도 하다. 왕의 고독은 주어진 것이고 수행자의 고독은 선택한 것이다. 왕은 고독의 공포를 달래기 위해 여색을 탐하고 수행자는 고독과 싸우고 고독을 즐긴다. 왕과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며 권력의 흥망, 사치와 굴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궁녀들. 그녀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본다.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을 총칭하여 궁녀(宮女)라 한다. 나인(內人)들과 그 아래 하역(下役)을 맡은, 무수리(水賜) · 각심이(방아이) · 방자(房子) · 의녀(醫女) · 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尙宮)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여인들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궁녀로 포괄되는 여인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수리: 무수리는 몽고어이다. 궁중 각 처소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여인이다. 21대 영조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이다.

② 각심이 [婢子, 또는 房子]: 상궁의 처소에서 부리는 가정부 · 식모 · 침모 등의 총칭이다. 이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했으므로 방자라고도 한다. 방자란 관청의 사환으로, 예컨대 <춘향전>에서의 방자와 같다.


초안산에 위치한 내시 묘.




상궁묘의 비문(위), 상궁묘의 비석.

의식주 담당하는 궁녀, 왕족 사생활 위한 '사치노예'
가뭄 궁녀 방출, 궁녀제도 부당성 국가가 인정한 증거

③ 손님: 왕의 후궁으로서 당호(堂號)가 바쳐지고 독립 세대를 영위하는 여인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하던 일종의 가정부 같은 여인이다. 대개 친정붙이이며, 보수는 후궁의 생계비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손님이라는 이름은 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무수리나 각심이와는 달리 예의를 갖춘 말이다.

④ 의녀: 약방 기생이라고도 한다. 약방이란 궁중 내의원(內醫院)의 별칭이며, 의녀의 소속이 내의원이지만 전신(前身)이 기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임은 평상시에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하고 비 · 빈들의 해산에 조산원(助産員) 노릇도 하지만,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가 있을 때에는 기생으로 변신한다. 원삼(圓衫)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손에는 색동 한삼(汗衫)을 끼고 춤을 추는 무희이기도 하다.

⑤ 나인: 궁녀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상궁 나인이라 하여 상궁과 나인을 구분하였다. 나인과 상궁은 그들 사회에서는 차원이 다를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녀의 신분적 등급은 견습나인 · 나인 · 상궁의 세 종류다. 세 종류 가운데에서도 입궁 연조와 소속 부서에 따라 차등이 있다. 같은 상궁이라도 경력에 따라 정7품도 있고 정5품도 있으며, 또 같은 정5품의 상궁도 소속 부서의 격에 따라 권한과 입지가 다르다.

궁녀는 왕족의 사생활을 위한 일종의 사치 노예이므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식주로 분장(分掌)된 각 독립처소이다. 지밀(至密) · 침방(針房) · 수방(繡房) · 내소주방(內燒廚房) · 외소주방 · 생과방(生果房) · 세답방(洗踏房)의 일곱 부서 외에 세수간 · 퇴선간(退膳間) · 복이처(僕伊處) · 등촉방(燈燭房)의 네 부설 부소가 있다.

위 부서에 소속된 궁녀들을 일반 개인 가정에 비교하면, 지밀나인은 몸종격으로 가장 격이 높고, 침방 · 수방 나인들은 침모(針母), 소주방과 생과방은 찬간(饌間)의 식모들이다. 궁중에는 무수리가 하역(下役)을 맡았다. 세답방은 표모(漂母)로서 빨래 일을 맡는데, 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빨래를 보통 노비가 하고, 다리미와 다듬이질은 대개 경험이 많은 부인들이 맡는다.

따라서 궁녀의 격은 지밀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침방과 수방으로, 이들은 양반 부녀와 같이 치마도 외로 여며 입고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길게 늘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것은 마루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상 소주방이나 세답방 나인같이 치마를 걷어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위 세 부서 외의 다른 부서는 치마를 바로 입고 앞치마를 위에 둘러 걷어 올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시가 있는 곳도 지밀과 침방 · 수방뿐이다. 나머지 부서들은 생(絲楊)을 맬 수 없으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다.

궁녀의 수는 중국 한대에 약 600명 정도였다. 궁녀는 왕이 있는 법궁(法宮, 또는 本宮)뿐만이 아니라 제사궁(祭祀宮, 혹은 魂宮)과 별궁에 소속된 여인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궁의 궁녀들은 별궁나인을 '궁것'이라고 경멸했다. 본궁의 경우, 왕을 비롯해 모두 독립세대로 영위되며 왕과 왕비와 왕대비 등은 같은 규모의 궁녀 인구를 갖는다. 궁녀가 90명이라 할 때 왕 · 왕비 · 대비전의 처소별 궁녀수는 대개 지밀 20~27명, 그밖에는 15~20명 정도로 추측된다.

궁녀 사회에도 간부들이 있다. 총수격인 우두머리 상궁과 그 밖의 맡은 바 직책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는 궁녀들이 있다. 즉, 제조상궁(提調尙宮)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많은 궁녀들 중에 어른으로 왕명을 받들고 내전(內殿)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예우는 오늘날 장관급이다. 또한, 아리꼬[阿里庫]상궁으로 불리는 부제조상궁은 내전의 창고(倉庫, 아랫고 · 下庫)의 물품을 관리했다.

그리고 일명 지밀상궁으로도 불리는 대령상궁(待令尙宮)은 왕의 측근에서 항상 그림자와 같이 시위(侍衛)했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궁이다. 왕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보모상궁(保姆尙宮)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 왕세자의 보모가 가장 격이 높았다.

또한, 지밀상궁 중에서 궁중 의식이나 잔치 때 왕을 비롯한 왕비 · 왕대비 등의 인도와 진행을 담당했던 시녀상궁(侍女尙宮)은 지밀의 서책 관리와 국상(國喪) 때 곡읍(哭泣)을 담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감찰상궁(監察尙宮)은 궁녀들의 상벌을 담당했으며, 감시병 구실도 겸한 두려운 존재였다. 궁궐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退出)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다. 왕의 직계 및 그 배우자 외에는 후궁도 궁중에서 죽을 수 없으므로, 늙고 병들면 궁녀는 궁궐을 나가야 한다.

궁녀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10년에 한번 이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지밀나인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와서 상궁들이 두세 번 씩 선을 보러 나갔다. 그러나 대개 연줄과 세습이라 할 수 있으며, 고모가 조카를 들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궁녀의 출신 계급은 지밀과 침방 · 수방은 중인 계급, 기타는 대개 상민 계급이었다. 입궁 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려 4~8세, 침방 · 수방이 6~13세, 그 밖은 12~13세가 관례였다. 궁녀는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성인식, 신랑 없는 결혼식)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된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머리에는 개구리첩지를 단 제복이 일생 동안 그들의 복장이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경과되면 상궁으로 승격한다. 가장 빠른 4~5세 입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5세 이후라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로, 왕의 후궁이 되면 20대에 상궁이 된다. 이런 궁녀는 왕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상궁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그 대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의 곁에서 시위만 한다. 이러한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했다. 이들이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6품 숙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져서 독립세대를 영위한다.

가혹하게 말해서, 세자는 왕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간에 갈등과 경계가 심했다. 궁녀는 승은 입기를 기약없이 기다리는 존재다. 궁녀는 지밀내관(=채색교관, 내시)으로부터 정사교육을 받는다. 발뒤꿈치 들고 다니기 훈련, 앉은 채 방바닥에 걸레질하는 자세 훈련, 왕의 복상사 대비 구급훈련, 득남 비방훈련, 설경훈련, 왕의 안마 등 교육내용이 다양하다. 설경(舌耕)훈련은 껍질이 얇은 연시를 혀로 다루는 실습이다. 얇은 연시 껍질에 상처가 나면 퇴출이다. 복잡하고 섬세한 훈련에 통과하면 궁녀로 남고 탈락하면 세답방에 배속되어 평생 잿물에 손 팅팅 불으며 빨랫감과 씨름해야 한다.

궁녀의 보수는 고정적으로 아기나인이 한 달에 백미 너말(4斗 : 오늘날의 3두꼴)이고, 옷감이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필, 여름에는 베 · 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므로, 이러한 보수는 친가 부모 ·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지만, 특별한 경우, 즉 중병이 들었을 때, 가뭄으로 궁녀 방출이 결행될 경우(단, 젊은 궁녀), 모시고 있던 상전이 승하했을 경우 중도에 나갈 수도 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이다. 결국 이러한 궁녀 제도는 절대군주국가 시기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궁녀는 궁궐에서 죽음을 맞지 못한다. 늙고 병들면 궁을 나가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혼인을 해서도 안 되고 첩이 돼서도 안 된다. 궁궐에서 자라 궁궐에서 핀 꽃이지만 궁궐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이 지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궁궐을 향해야 한다. 궁녀들의 무덤 역시 내시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서쪽을 향한다. 죽어서도 왕을 그리고 보좌해야 한다. 운 좋게 비석을 세우더라도 이름을 새기지 못한다. 그림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잊혀진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언제 누구를 모셨는지 모르지만 '박상궁'은 운이 좋다. '상궁박씨지묘'라고 적지 못하는 것도 당시의 법도인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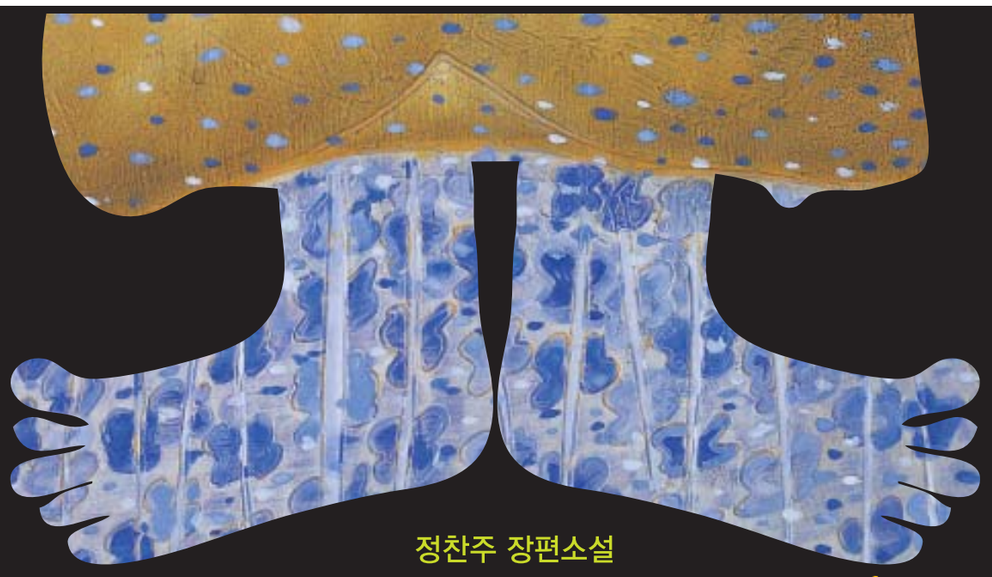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천불탑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비밀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되어 때로는 가슴 조이고
때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흥미진진한 천불탑의 비밀 속에 빠져든다.
저자 정찬주 / A5판/ 322p / 정가 10,000원

정찬주 작가의 이 작품은 참으로 독창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신화와 같은 '황룡사 9층 목탑' 이요, 또 하나는 '인도로 가는 길' 이다. 이 두 가지의 씨줄과 날줄과 같은 주제 위에서 인생의 의미를 작가는 갠지스 강의 그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젊은 전축설계사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질문이 그러나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소설의 전개 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인생의의미를 이처럼 소설 공간 속에 훌륭하게 마법의 융단처럼 펼쳐 보이는 정찬주 작가의 소설에 깊은 찬탄을 보낸다. 최인호 _ 소설가

황룡사 목탑 복원과 연계, 추리소설식 전개 '흥미'
진신사리 찾는 수행자 통해 '불교 참모습' 되물어 _ 불교신문



정찬주 장편소설
천불탑의 비밀

인생의 의미를 마법의 융단처럼 펼쳐 우리들의 가벼워진 삶에 의문을 던지며
황룡사 9층탑의 눈부신 재현으로 우뚝 솟은 불교 장편 소설!!!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신심 원력
글_ 혜인 스님
신국판 값 각권10,000원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제주 약천사 창건,
일타 스님과의 인연, 제주 약천사 회주스님의 수행 이야기
신심과 원력의 불덩이가 지금 서점가에서 타오른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소리
글_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 251쪽, 값12,000원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
사로 접하던 일선 스님의 그간 이야기가 소담하게 담겨있다.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